

2024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 포스트 이후의 포스트: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그 이후의 유라시아

제2분과 문화/역사 분과

**일 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0:00~18:00

**장 소**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하나스퀘어 강당 (B112호)

**주 관**  한국노어노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공동주관**  KRD 사단법인 한러대화  
KOREAN RUSSIAN DIALOGUE

**공동개최**  한국러시아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KASEUS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AND EURASIAN STUDIES

 KASL 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이 발표논문집은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4S1A8A4A0104352411)

# CONTENTS

## 문화/역사 분과 A 분과주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문학 서사의 영상화 경향

사회: 차지원 (충북대)

- 10:15~10:50 ▶ 소설 『죄와 벌』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1979년 타간카 공연의 프롤로그적 고찰 ..... 131  
발표자: 이승억(경북대) / 토론: 박선영(서울대)
- 10:50~11:25 ▶ 성인문학의 애니메이션화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서사 ..... 141  
발표자: 박미령(한국외대) / 토론: 이은경(한국외대)
- 11:25~12:00 ▶ 이동파 신화에 대한 도전: 혁신적 예술단체인가, 상업적 이익단체인가? ..... 153  
발표자: 이상철(경북대) / 토론: 심지은(경상국립대)

## 문화/역사 분과 B 분과주제: 전쟁 이후의 세계와 기억의 문제 - 기억의 재구성과 재정립 -

사회: 류한수(상명대)

- 13:00~13:30 ▶ 전쟁의 역사와 역사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165  
발표자: 신보람(전북대) / 토론: 구자정(대전대)
- 13:30~14: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주와 인구 위기 ..... 175  
발표자: 이문영(서울대) / 토론: 고광열(서울대)
- 14:00~14:30 ▶ 전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역사적 쟁점에 관한 양국의 역사관 변화 양상의 일고찰 · 183  
발표자: 이광태(한림대) / 토론: 송준서(한국외대)
- 14:30~15:00 ▶ 학살마는 어떻게 “자유의 민주 반공투사”가 되었나?  
- “뉴욕의 아이히만?” 미콜라 레베드와 냉전 초기 미국의 대소련 우크라이나 공작 - · 193  
발표자: 구자정(대전대) / 토론: 송준서(한국외대)

## 문화/역사 분과 C 분과주제: ‘포스트’ 시대의 러시아 영화 서사와 그 특징

사회: 이지연(고려대, 한러대화 문화예술분과 간사위원)

- 15:15~15:45 ▶ 애국주의에서 탈서구화까지: 후기 푸틴 시대의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주요 경향 연구 · 237  
발표자: 라승도(한국외대) / 토론: 조준래(한국외대)
- 15:45~16:15 ▶ 시상식을 통해 본 러시아 영화, 2022년 이후 ..... 247  
발표자: 황기은(서울대) / 토론: 이희원(상명대)
- 16:15~16:45 ▶ 2022-2023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여성 서사  
-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을 중심으로 - .... 257  
발표자: 홍상우(경상국립대, 한러대화 문화예술분과 위원) / 토론: 정미숙(가톨릭관동대)





문학/역사 분과

문화/역사 분과 A: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문학 서사의 영상화 경향

사회: 차지원(충북대)

- ▶ 소설 『죄와 벌』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1979년 타간카 공연의 프롤로그적 고찰 ..... 131
  - 발표: 이승억(경북대)
  - 토론: 박선영(서울대)
  
- ▶ 성인문학의 애니메이션화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서사 ..... 141
  - 발표: 박미령(한국외대)
  - 토론: 이은경(한국외대)
  
- ▶ 이동파 신화에 대한 도전: 혁신적 예술단체인가, 상업적 이익단체인가? ..... 153
  - 발표: 이상철(경북대)
  - 토론: 심지은(경상국립대)



# 소설 『죄와 벌』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 - 1979년 류비모프의 타간카 공연의 프롤로그적 고찰 -

이승익 (경북대)

### I. 들어가는 말

본 발표문은 필자의 연구재단 과제 ‘러시아 고전 문학의 문화 콘텐츠화 연구’의 연차과제인 ‘소설 『죄와 벌』의 문화 콘텐츠화 연구 - 1979년 타간카의 연극과 2007년 TV 드라마 연구’의 도입 단계이다. 필자의 연구 대상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바탕으로 제작된 1979년 타간카 극장(Театр на Таганке)의 연극 공연과 2007년 러시아 TV <1번 채널>(Первый канал)에서 8부작으로 방영된 TV 드라마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1979년 공연된 타간카의 연극 『죄와 벌』은 타간카의 대부분 공연이 그러했듯이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실험적이며 표현적인 연극을 지향한 연출가 Ю.류비모프(Любимов)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떠한 용서도 없고, 참회에 대한 어떠한 감형도 없다’를 기본적인 연출 방향으로 잡고 대단히 잔혹하며 논쟁적으로 연출하였다. 원작과 다르게 피날레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촛불을 켜자 그가 죽인 두 명의 여인, 즉 전당포 노파 자매가 등장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에게 참회하고 그녀들은 그를 용서하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하는데, 이때 소비드리가일로프가 등장하여 마치 용서는 없다는 듯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촛불을 꺼버리고 무대 가운데로 나와 ‘라스콜리니코프! 노파를 죽인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다만, 잡혀서 유감이야’라고 말하면서 막이 내린다.

2007년 드미트리 스베토자로프(Д. Светозаров)가 감독한 TV 드라마 『죄와 벌』 역시 적잖은 논쟁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원작보다 대단히 잔혹하고 어떠한 도덕적 반성도 보여주지 않는 라스콜리니코프의 형상은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냉혹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형상으로 평가받았다.

필자의 연구 대상은 한편의 장편 소설, 연극, 그리고 8부작의 TV 드라마라는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에 필자는 현재 세 장르의 비교 고찰을 한 편의 논문으로 담기보다는 소설과 연극, 소설과 TV 드라마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 논문으로 작업 중인 소설과 연극, 즉 소설 『죄와 벌』의 1979년 타간카 극장의 공연은 류비모프와 타간카, 그리고 1960-70년대라는 소비에트 해빙기의 복잡한 문화적 맥락에서 공연되었기에 이에 관한 세밀한 연구는 논문 작업에 필수적 요

소로 판단된다. 이에 본 발표문은 본격적인 공연 분석에 앞서 류비모프의 연출미학, 소비에트 해빙기에서 타간카의 의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무대화 등을 프롤로그적 개념으로 우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연출가 류비모프와 타간카 극장

러시아 연극사를 통틀어 한 극장에서 가장 오랜 기간 예술감독을 역임하면서 가장 많은 작품을 연출한 연출가는 단연 유리 류비모프(1917-2014)라 할 수 있다<sup>1)</sup>. 이른바 해빙기 3대 연출가로 불리는 Г. 톱스타노고프(1915-1985), A. 에프로스(1925-1987), O. 예프레모프(1927-2000)와 달리 가장 늦은 47세의 나이에 1964년 타간카의 예술감독을 맡은 류비모프는 2011년 극장을 사임하기까지 타간카에서만 약 58편의 공연을 올린다. 약 47년간의 타간카 예술감독 재임 기간 중 류비모프와 타간카의 전성기는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으로 극장의 역사를 시작한 1964년부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런던 순회공연 도중 더 타임스의 인터뷰에서 소련 당국을 비판한 것이 발미가 되어 입국 금지와 시민권 박탈을 당한 1984년까지라 할 수 있다.

1964년부터 1984년까지 류비모프는 타간카에서 약 31편의 연극을 연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류비모프의 공연 레퍼토리는 동시대 해빙기 연출가들이 주로 러시아 고전 희곡과 당대 희곡에 집중된 것과 달리 다양하고 흥미로운 목록을 보여준다. 류비모프의 레퍼토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브레히트를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체호프 등과 같은 고전 희곡<sup>2)</sup>, 두 번째로 소설을 각색한 작품(인스ценировка)<sup>3)</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시적 공연(поэтичес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이라 불리는 시를 각색한 작품<sup>4)</sup>이다.

1) 실제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연예술계를 통틀어 류비모프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공연을 연출가로서, 혹은 배우로서 활동한 예술가는 드물다. 류비모프는 연극뿐만 아니라 발레, 오페라 연출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 그가 연출한 작품 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 연극 87편, 오페라 26편, 발레 1편으로 총 113편에 이른다. 연극 연출가로서 류비모프는 외국 극장에서 27편, 러시아 극장에서 총 60편의 작품을(타간카 극장 58편, 바흐탄고프 극장 2편) 연출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류비모프의 연출가로서의 공식적인 첫 번째 작품은 1959년 바흐탄고프 극장에서 갈리치의 『사람에겐 많은 것이 필요한가?』이며, 마지막 작품은 2011년 타간카 극장에서 사임한 이후 2012년 역시 바흐탄고프 극장에서 연출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지』라는 것이다.

1975년 이탈리아의 라 스칼라에서 루이지 노노의 『뜨거운 태양 아래의 사랑』으로 오페라 연출가로서 데뷔한 류비모프는 주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국외 망명 기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 23편의 오페라를 연출하여 큰 명성을 얻는다. 류비모프의 생애 마지막 작품은 죽기 직전인 2013년 6월 8일 96세의 나이로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하여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A. 보로딘의 『이고리』 공작이었다. 한편 류비모프는 1936년에서 1962년까지 바흐탄고프 극장에서 약 35편의 연극에서 배우로 활동하였고, 1941년에서 1970년까지 약 20편의 영화에서 배우로서 활동하였다.

2)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1964), 『갈릴레이의 생애』(1966), 『투란도트』(1979), 몰리에르 『타르튀프』(1968), 셰익스피어의 『햄릿』(1971), 체호프의 『세 자매』(1981) 등이 있다.

3) 레르문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1964), 고리키의 『어머니』(1969), 체르니셴스키 『무엇을 할 것인가?』(1971), 아브라모프의 『목마』(1974),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1977),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1979), 유리 트리포노프의 『해변의 집』(1980) 등이 있다. 이후 1984년 이후에도 파스테르나크의 『지바고』(1993),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1996),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1997), 불가코프의 『극장 소설』(2000) 등이 있다.

4) 보스넨센스키의 『반세계』(Антимир) (1965), 『당신의 얼굴을 소중히 여기시오』(1970), 마야콥스키의 『들으시오!』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류비모프가 20여 년간 연출한 약 46편의 공연에서 연극을 위해 만든 순수한 ‘희곡’ 텍스트는 6편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시와 소설 등을 각색한 각색 텍스트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류비모프의 연출미학의 중요한 근간을 추출할 수 있다.

류비모프가 희곡 텍스트보다 시나 소설 등을 각색한 텍스트를 더 선호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은 단순히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 드는 희곡들, 특히 동시대 극작가의 작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류비모프가 본격적인 연출가의 활동을 시작한 60년대 중반 이후는 해빙을 이끌었던 당서기장 흐루쇼프가 1964년 실각을 하고 ‘결빙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소련 극문학이 다시금 침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에 대해 류비모프 자신도 ‘시대의 고민과 문제를 담론화하는 동시대 희곡이 부재하고, 동시대의 희곡은 시와 산문보다 훨씬 못하다’<sup>5)</sup>라고 평가하면서 시와 산문을 각색하는 것을 선호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류비모프의 연극, 연출의 시발점은 이른바 ‘타간카의 세 기둥’<sup>6)</sup>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히트, 바흐탄코프, 메이예르홀트에 영향을 받아 ‘제 4의 벽’을 허물고 관객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춤과 노래, 마임과 광대극등의 유희적 요소를 최대화하는 반(反) 사실주의적 연극론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류비모프는 이러한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에 사용되는 텍스트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자유롭게 재해석, 혹은 해체하여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는 메이예르홀트식의 ‘연극의 작가(Автор спектакля)’<sup>7)</sup>를 표방하면서 독특한 ‘자신의 연극’(свой театр)<sup>8)</sup>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류비모프 연출 미학은 그의 극장 이름인 ‘타간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애초에 이 극장의 이름은 ‘모스크바 드라마 희극 극장’(Московский театр драмы и комедии)이었지만, 류비모프는 ‘타간카에 있는 극장’(Театр на Таганке)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이 극장 이름에 대단한 애착과 집착을 가졌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타간카’는 18~19세기에 시장과 광장에서 유행한 러시아 민중극인 발라간과 페트루시카가 가장 활발하게 공연된 지역이기 때문이다.<sup>9)</sup>

1965년 극장은 모스크바 문화성에 극장의 명칭을 ‘모스크바 드라마 희극 극장’에서 ‘타간카에

(1967), 예세닌의 『푸가초프』(1967), 푸시킨의 『친구들이여, 믿으라...』(1973), 비소츠키의 시와 삶을 중심으로 한 『블라디미르 비소츠키』(1981)등이 있다.

5) Любимов, Ю. П. “Ждем встречи со зрителем” сов. Абхазия июля 6. 1996.

6) 1964년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타간카의 새로운 예술감독이 된 류비모프는 극장 홀에 자신의 연출미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브레히트, 바흐탄코프, 메이예르홀트, 세 명의 초상화를 걸며 타간카 연극의 세 기둥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당국의 요구로 세 명의 초상화 옆에 스타니스랍스키의 초상화도 걸리게 된다.

7) 1926년 테이엠(ТИМ)에서 고골의 희곡 『감찰관』을 공연하면서 원작을 완전히 재구성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메이예르홀트는 공연 텍스트에 ‘연극의 작가-메이예르홀트(Автор спектакля-Мейерхол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다.

8) 김혜란, “1960년대 타간카 극장과 『햄릿』 공연에 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6호(2007), pp. 43.

9)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타간카(Таганка)’의 명칭의 유래는 ‘철 받침대, 삼발이’ 등을 의미하는 고대 타타르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명칭은 타타르 침입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14세기 정도에 타타르인들이 모스크바 남동쪽 지역에 살면서 여기에 수공업 거리를 만들면서 지역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세기에는 수공업자들이 줄어들고 이곳에 상인과 소시민들이 거주하였고, 19세기에는 이곳에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위 광장과 아래 광장으로 구성된 ‘타간카 광장’이 형성되었는데 바로 이 광장과 시장에서 모스크바에서 가장 활발한 발라간과 페트루시카 공연이 성행하였다. <https://mr.moscow/milaya-taganka/?ysclid=lz2xd93als851984414>.

있는 극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류비모프 타간카 극장의 출발점,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극장명 변경에 관한 논쟁은 우리 극장의 근본적인 창작적 지향점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후 첫 공연(『사천의 선인』)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공연(『세계를 뒤흔든 10일』)을 마치면서 우리 극단은 공연을 통해서 바흐탄고프적 전통의 세례를 받은 민중적, 거리적, 광장적인 볼거리를 추구하는 극장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드라마’나 ‘희극’ 공연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중적, 다면적, 다장르적인 공연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최근 우리의 공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극장의 오래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타간카에 있는 극장’으로 부르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명칭 논란을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간카 극장은 단순히 극장의 정확한 주소 이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라간과 페트루시카를 공연했던 예전 모스크바의 광장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극장 이름을 ‘타간카에 있는 극장’이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sup>10)</sup>

한편, 류비모프의 이러한 연출미학은 동시대 연출가인 톱스토노고프, 예프레모프, 에프로스와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이들 네 명의 연출가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연출미학으로 당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20세기 중후반 러시아 연극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네 연출가 모두 독특한 개성으로 차별화된 연출미학을 전개하였지만,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톱스토노고프, 예프레모프, 에프로스, 이 세 명의 연출가와 류비모프는 연극 미학에서 분명한 대척점을 보인다.

우선 이들 네 명의 연출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지만, 연출가로서 데뷔 시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에프로스, 예프레모프, 톱스토노고프는 공교롭게도 1950년대 중반에 거의 동시에 『안녕히 계세요』<sup>11)</sup>, 『영원히 사는 자들』<sup>12)</sup>, 『백치』<sup>13)</sup> 등을 상연하면서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해빙기 연극의 서막을 열었다.

에프로스, 예프레모프, 톱스토노고프가 ‘해빙기 3대 연출가’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 명의 연출가는 1950년대 중반, 즉 정치적 해빙기 시기에 등장하여 문화적 해빙기를 이끌었는데, 대체로 이들은 로조프, 볼로딘 등의 당대 극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영웅이 아닌 평범

10) Абелюк, Е. С., Леенсон, Е. И., “Таганка. Личное дело одного театра,” М.: Нло, 2007. с. 56. 그러나 문화성은 이를 거절하고 이전의 극장 이름을 고수하지만 이후 관객들에게는 통상적으로 ‘타간카’로 불리게 된다. 1972년에 다시 한번 문화성에 이름 변경을 요구했으나 변경이 거절되었고 극장은 예전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1) 1954년 체데테에 수석연출가로 부임하면서 체데테를 가장 인기 있는 극장의 반열로 올려놓은 불우한 천재 연출가 에프로스는 1954년 로조프의 『안녕히 계세요!』를 상연하면서 해빙기의 초석을 놓는다.

12) 올렉 예프레모프, 갈리나 볼체크와 므하트 연극학교 출신들의 젊은 배우들이 중심이 되어 1956년 4월 15일 공연된 로조프의 희곡 『영원히 사는 자들』은 해빙기의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첫 공연 이후 엄청난 반향에 힘입어 1958년 예프레모프는 당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동시대인(Современник)’이라는 이름의 극장을 개설하면서 해빙기 연극의 중심이 된다.

13) 해빙기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가장 뛰어난 연출가로 평가받는 톱스토노고프는 1946년 레닌그라드의 체데테에서 3년간 연출가로 활동하다가 1955년 베데테의 수석연출가로 부임하면서 1957년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1959년 볼로딘의 『다섯 밤』을 상연하면서 베데테를 소비에트 최고 극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동시에 레닌그라드의 해빙기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개인의 삶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인간성 회복의 담론을 던지면서 당대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이들은 ‘화석화된 사람들’(окаменевшим людям)에게 감정을 되돌려주는 연극을 창조하였고, 소비에트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평범한 인간이 되고, 암기된 억양과 습관적인 사회적 역할의 껍데기에서 해방되는 연극을 창조<sup>14)</sup>한 것이다. 평범한 인간의 삶,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극이기에 이들의 연출미학은 대체로 스타니슬랍스키의 사실주의 연출론을 계승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류비모프는 세 연출가와 1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 1964년 4월 23일 타간카 극장에서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으로 연출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sup>15)</sup> 즉 류비모프가 연출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는 해빙기가 끝나는 결빙의 시기이자, 그리고 이른바 ‘60년대인들’(шестидесятники)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였다. ‘60년대인들’은 주로 1918~1940년에 출생하여 스탈린 치하, 조국 전쟁, 해빙기를 거치면서 1960-70년대에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형성된 지식인 그룹을 일컫는 말로써 ‘반스탈린주의’와 ‘윤리적 인본주의’ 등을 통해 소련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sup>16)</sup>

그리고 바로 류비모프와 타간카는 십여 년 전에 예프레모프와 소브레멘닉 극장이 해빙기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소련 연극계에서 ‘60년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인간 내면 감정에 집중한 해빙기 연극이 스타니슬랍스키 연출론에 기반을 두었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담론화하기 위해서는 류비모프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광장적, 유희적, 양식적 연극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무대화

러시아 연극무대에서 가장 많이 각색되는 소설 작가는 단연 도스토옙스키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러시아 작가들이 전문적인 극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희곡을 창작했던 것에 반해 도스토옙스키는 희곡을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세기의 푸시킨, 고골, 레르몬토프,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네크라소프, 체호프를 비롯하여 20세기의 고리키, 안드레예프, 블록, 마야콥스키, 불가코프 등 대부분의 러시아의 작가들은 두세 개의 문학 장르를 넘나들면서 시인이자 극작가, 소설가이자 극작가로서 창작활동을 왕성히 하였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소설만을 창작하였고 단 한 편의 희곡도 쓰지 않았다. 물론, 도스토옙스

14) Смелянский А. М. Предлагаем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з жизни русского театр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 Артист. Режиссёр. Театр, 1999), с. 56.

15)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류비모프의 연출가 데뷔는 바흐탄고프 극장에서 1959년 갈리치의 희곡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가』이다. 류비모프는 1946년 바흐탄고프 극장에 입단하여 오랜 기간 주로 배우로서 활동하였다.

16)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ерминов и понятий, “Шестидесятники” (М.: Интелвак, 2001). с. 1211. 전정옥, “타간카, 1964-2011,” 『한국 연극학』, 45호(2011), pp.201-205.

기도 희곡 창작을 시도하긴 하였으나,<sup>17)</sup> 지인들에게 자신은 극작가의 재능도 있지 않고, 극작품과 어울리지도 않기에 희곡을 쓸 생각이 없다고 여러 번 고백하였다. 특히 도스토옙스키는 1872년에 『죄와 벌』을 연극으로 각색해달라는 B. 오블렌스카야의 부탁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사적인 형태는 결코 극적인 형태와 부합될 수 없다는 어떤 예술의 신비가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예술의 다양한 형태들을 위해 각각에 부합되는 시적인 사상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상은 그 사상에 부합되지 않은 다른 형태로 결코 표현될 수 없습니다.<sup>18)</sup>

그런데도 1878년 모스크바의 말리극장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아저씨의 꿈』(Дядюшкин сон)이 최초로 각색되어<sup>19)</sup> 무대에 올려진 이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이 매우 빈번하게 공연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치정, 살인 등의 극적인 사건과 갈등, 긴박하고 급속한 대화 등의 연극적 요소, 즉 ‘연극성’(театральность)이 풍부하게 내재하여 있기에 무대화에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메이에르홀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스토옙스키는 타고난 극작가이다. 그의 소설들에서 우리는 비극들의 단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소설을 각색하는 것을 때면 실패하지만 ‘고골의 연극’, ‘푸시킨의 연극’, ‘오스트롭스키의 연극’과 마찬가지로 ‘도스토옙스키의 연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sup>20)</sup>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메이에르홀트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각색하는 것을 때면 실패한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다른 산문작가의 각색과 달리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대체로 실패를 하곤 하였다.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전면에 드러난 살인과 범죄 등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과 파국 등의 ‘극적인 것들(драматические)’과 그 배면에 있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서사적인 것들(эпические)’의 양면성을 동시에 무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난해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17) 도스토옙스키가 희곡 창작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쉴러의 희곡 『마리아 스투어트』와 푸시킨의 『보리스 고두노프』를 결합한 역사 드라마를 구상하기도 하였고, 죽기 직전에는 지인들에게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의 한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창작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с. 7-8.

18)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исьма. В четырех томах,” т. 3. (М.Л.: Academia, 1934), с. 20. 행정부 장관이자 공작인 D. 오블렌스키의 딸인 바르바라 오블렌스카야는 역사 잡지 발행인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애호가였다. 그녀는 1871년 12월 6일 도스토옙스키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인 『죄와 벌』을 자신이 각색해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에 도스토옙스키는 1872년 1월 20일 편지를 보내어 각색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각색의 과정과 결과는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19) 1878년 12월에 모스크바 말리극장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작품이 각색되어 무대에 오른 것을 본 유일한 작품으로서 19세기 극작가인 Л. 안트로포프가 『매력적인 꿈』이라는 작품으로 각색하여 공연되었다. 사실, 이 작품은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각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안트로포프가 3막으로 된 희곡이라는 부제를 단 『매력적인 꿈』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다 몰리에르의 희극을 혼합하여 만든 가벼운 희극 형태로 만들어져 공연되었다.

20) Гладков, А. Театр.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размышления (Л.: Искусство, 1980), с. 350.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무대화는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문제들, 즉 서사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단지 악마적 형상의 주인공들의 범죄 행위를 추적하는 추리소설적인 것, 즉 극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서 공연됐다. 특히 세기말 초에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은 유럽의 극장에서 유행처럼 공연되었는데, 역시 작품 속에 있는 철학적, 종교적 문제들은 제외하고 하나의 파블라, 즉 범죄 추리 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공연되어 당대 유럽인들에게 도스토옙스키는 ‘추리 소설 작가’로 인식되기도 하였다.<sup>21)</sup>

이후 20세기 초 스타니슬랍스키의 사실주의 연극이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추리소설적 이야기를 넘어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본질 중의 하나인 인간 영혼의 비밀스러운 심연의 본질을 무대화시키는 작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0년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1913년 『백치』를 각색한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이 네미로비치-단첸코의 각색과 연출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혁명 직전 러시아 지식인의 정신적인 위기를 반영하여 ‘혁명 이전 러시아 연극 예술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낸 연극’<sup>22)</sup>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1917년 혁명 이후 소련 당국은 모든 고전 작품에 혁명적 이상을 덧붙여 민중들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선전 선동하려는 연극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본질상 이러한 경향성에 부합되지 않았기에 몇 차례 무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한동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소련의 연극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1950년대 중반 해빙기 시절인 1957년 모스크바의 예르몰로바 극장의 『죄와 벌』, 1958년 레닌그라드의 베데테의 『백치』 등을 기점으로 다시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왕성하게 공연되기 시작하였다.

소설 『죄와 벌』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무대화가 이루어졌다. 소설 『죄와 벌』은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과 더불어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무대화된 작품이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들이 1910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초연된 것에 비해 『죄와 벌』은 1888년 파리 오데옹 극장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세기말 초에 유럽 극장에서 빈번히 공연되었다.<sup>23)</sup> 그것은 소

21) Бушуева, С, “Достоевский на зарубежной сцене,”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с. 465. 세기말 초에 유럽 극장에서 공연된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 브뤼셀 로알 뒤 파르스 극장(1912), 런던 연극 사회(1913), 밀라노의 갈리치 극장(1913), 베를린 예술극장(1925), 런던 아폴로 극장(1928), 함부르크 실내 극장(1935), 파리 아틀리에 극장(1946) 등. 『백치』 - 밀라노 올림피아 극장(1923), 파리 보드빌 극장(1924), 런던 바르야즈 극장(1926), 프라하 도시 극장(1934) 등. 『죄와 벌』 - 파리 오데옹 극장(1888), 베를린 레싱 극장(1890), 밀라노 만조니 극장(1894), 베를린 신극장(1895), 바르샤바 말리극장(1905), 런던 갈리크 극장(1910) 등.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с. 505-510.

22) 한편, 예술극장의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에 대해 연극 평론가 니콜라이 에프로스는 ‘예술극장의 연극 중에서 가장 배우들이 연기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으며, 스타니슬랍스키는 ‘예술극장의 연극적 창작 양식이 외적인 사실주의에서 정신적인 사실주의로 진화되는 단계에 있는 공연’이라고 평가했다. Якушина, В, “Искус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и Достоевский(«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1910),”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с. 240.

2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극장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공연은 다음과 같다. 파리 오데옹 극장(1888), 베를린 레싱 극장(1890), 빈의 부르크극장(1891), 밀라노의 만지오니극장(1894), 베를린의 신극장(1895), 마드리드의 마드리드극장(1901), 프라하의 프라하극장(1905), 바르샤바의 말리극장(1909), 런던의 가리크 극장(1910) 등 한편 한국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작품을 무대로 최초로 부민관에서 1938년 공연한 『죄와 벌』이다. 당시 이 작품을 올린 것은 좌파 계열의 문인과 연극인들이 결성한 연극단체인 ‘낭만좌’였다. 극작가인 박항민이 총 13장으로 각색하였고 김옥이 연출한 이 공연은 연기, 무대장치, 작품 해석 등에서 호평을 받고 3일만에 내려졌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작품 자체의 변역조차 변변하지 않았음을 추정해보면 공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김숙현,

설 『죄와 벌』이 188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폴 부르제, 앙드레 지드, 카뮈 등에 의해 극찬을 받으면서 유럽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소설 『죄와 벌』을 각색한 최초의 연극 공연은 1888년 프랑스 파리의 오데옹 극장이었고, 2년 후인 1890년 독일 베를린의 레싱 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이후 『죄와 벌』은 유럽 극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레퍼토리가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 극장에서의 공연은 소설 텍스트를 상당히 많이 개작하여 공연하였는데, 파리 오데옹 극장 공연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소냐를 악의 길로 빠지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독일의 경우 슈제트의 근간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노파인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소냐와 스피드리가일노프의 증매자 역할로 만들기도 했다.

러시아에서의 『죄와 벌』의 초연은 1899년 극작가 야코프 플류쉬크-플류셴스키의 각색으로 П. 오르네프 극단의 공연으로 페테르부르크의 문학예술 클럽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연은 주로 라스콜리니코프와 추적자로서의 포르피리의 대립과 결투 등이 주된 테마로 다루어졌다. 이후 1910년 모스크바의 러시아 드라마 극장(Рус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sup>24)</sup>, 1922년 페트로그라드의 드라마 아카데미 극장, 1923년 모스크바의 민중의 집 극장에서 공연을 끝으로 소련의 무대에서 거의 공연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혁명적 이상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해빙기 시절을 맞이하여 1956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드라마 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을 기점으로 소련의 극장에서 다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활발히 공연된다. 그중 1969년 모소베티 극장에서 유리 자보드스키의 연출의 『죄와 벌』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출구 없는 상황에 대한 불행에 초점을 맞추어 공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 IV. 류비모프의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각색하여 1979년 2월 19일 초연된 『죄와 벌』은 단순한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공연 내외적으로 타간카 극장과 류비모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공연외적 측면에서 본다면 『죄와 벌』은 류비모프의 강제 망명의 발단이 된 작품이다.

1983년 8월에 류비모프는 영국의 초청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연극 『죄와 벌』을 공연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는데, 9월에 영국의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연을 방해하는 소련의 검열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이것이 발단되어 시민권 박탈과 함께 소련으로 입국이 거부되어 1988년 5월 까지 외국에 머물게 된다.<sup>25)</sup>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타간카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도스토옙스키 극의 한국 공연사 연구,” 『노어노문학』, 28권 3호(2016), pp. 207-210.

24) 극작가이자 변호사였던 표도르 코르쉬(Ф. Корш)가 1882년 세운 극장으로 희극과 보드빌을 지향했던 코르쉬의 지도 하에 극장은 초기에 가볍고 유쾌한 희극 위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당대에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진지한 희곡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혁명 이후 1920년에 국유화되었고 명칭이 ‘희극 극장’으로 전환되었다가 1932년 문을 닫았고 이후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스튜디오 사용되었다.

음유시인인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생전 마지막 배역이 바로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노프였다는 것이다.<sup>26)</sup> 그리고 앞서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련 당국의 검열에 대한 것은 1980년 7월 25일 사망한 비소츠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연극 『블라디미르 비소츠키』가 작품 내에서 비소츠키를 예술적 투사로 묘사하였기에 공연을 금지한 것에 대한 류비모프의 불만이었다.<sup>27)</sup>

공연 내적으로 본다면 연극 『죄와 벌』은 류비모프가 타간카에서 연출한 25번째 작품이자 소설을 각색한 12번째 작품이다. 1960년대 류비모프의 레퍼토리는 시를 각색한 ‘시적 공연’ 작품들이 많았지만, 1970년대에는 소설을 각색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류비모프는 바흐탄고프 극장에서 두 편을 공연한 것을 포함하여 연극 연출가로서 총 60편의 작품을 공연하였는데, 그중 절반 정도인 약 30편 정도가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0편의 소설 중에서 류비모프가 한 작가의 작품을 두 편 이상 올린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류비모프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총 네 편을 올리는데, 본문에서 다룬 『죄와 벌』(1979)을 비롯하여 1996년 『미성년』, 1997년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그리고 류비모프의 마지막 연극 연출 작품인 2012년 바흐탄고프 극장에서의 올린 『백치』<sup>28)</sup>이다.

류비모프의 『죄와 벌』은 1978년 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빅신하즈 극장에서 먼저 공연이 된 후 1979년 2월 12일 타간카에서 초연된다.

『죄와 벌』이 러시아가 아닌 헝가리에서 먼저 공연된 것은 다시 소련 당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류비모프가 『죄와 벌』을 공연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헝가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류비모프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공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공연을 준비하였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심화되어 공연이 쉽사리 허가되지 않았다. 특히 1977년 불가코프의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공연에 대해 ‘프라브다’지가 ‘타간카의 흑마술 공연’

25) 1983년 8월 류비모프는 런던의 리릭극장의 초청으로 『죄와 벌』을 공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리고 한달 뒤인 9월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소련 당국의 검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다. 그 후 류비모프는 소련 대사관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영국 외부부의 도움을 청한다. 소련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류비모프는 그해 가을에 이탈리아로 가서 여러 극장에서 오페라를 연출하며 소련으로 입국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그런데 그동안 류비모프에게 호의적이었던 당시기장 안드로포프가 1984년 2월에 사망하자 그해 3월 타간카 극장의 예술감독 직에서 해임되며 7월 11일에는 새로운 당시기장 체르넨코의 서명으로 류비모프의 소련 시민권이 박탈된다. 이후 류비모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연극과 오페라 연출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1988년 5월에 모스크바로 귀환한다.

26) 비소츠키의 마지막 무대에서의 공연은 1980년 7월 12일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노프 역할이었다. 7월부터 심장 쪽에 이상을 느껴 병원 치료를 병행하였던 비소츠키는 이후 7월 21일 『죄와 벌』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연 직전 비소츠키는 몸의 이상을 느끼고 무대에 서지 못하고 7월 25일 아침 4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27) 배우이자 음유시인인 20세기 후반 소련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블라디미르 비소츠키가 1980년 7월 25일 사망하자 그를 아들처럼 여겼던 류비모프는 그의 시와 연극의 대사들을 중심으로 그를 기념하는 연극 『블라디미르 비소츠키』를 연출한다. 소련 당국은 비소츠키의 시와 대사 중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자유 등을 상징하는 대사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류비모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981년 7월 25일 비소츠키 사망 1주년에 단 한 번 공연된 것을 끝으로 금지된다. 이듬해 류비모프는 푸시킨의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와 불가코프의 소설을 각색한 『극장 소설』을 준비하였으나 금지당한다. 1983년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류비모프가 말한 당국의 검열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28) 류비모프가 94세의 나이에 바흐탄고프 극장에서 올린 네 시간짜리 공연인 『백치』는 관객들과 평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론가들은 이 공연이 류비모프의 반세기 연출 경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고, 우리 시대 연극에 엄격하고 우아하고 개방적인 바람을 불어일으켰고 극찬하였다. “Бесы. Театр им. Вахтангова. Пресса о спектакле,” [http://www.smotr.ru/2011/2011\\_vaht\\_besy.htm](http://www.smotr.ru/2011/2011_vaht_besy.htm)

이라는 제목으로 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성이 부재한 공연을 올렸다고 류비모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류비모프는 여러 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문화성 관계자들을 비판한다. 소련 문화성은 류비모프의 차기작인 『죄와 벌』 공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연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이에 류비모프는 부다페스트의 빅신하즈 극장에서 『죄와 벌』을 공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류비모프가 헝가리에서 『죄와 벌』을 공연하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당시 헝가리 연극계는 류비모프의 연극 미학인 실험적 무대 연극을 선호하는 국가였기에 류비모프에게는 공연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여기에 이 시기 류비모프는 자신의 숭배자이자 러시아어에도 능숙한 헝가리의 젊은 저널리스트 여성인 30세 연하인 카탈린 쿤츠와 사랑에 빠져 1978년에 결혼을 한다. 류비모프는 세 번째 결혼으로 만난 카탈린을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여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였고, 죽는 날까지 그녀와 함께한다.

헝가리에서 『죄와 벌』 연습 과정은 사실 순탄치는 않았다. 타간카에서 그랬듯이 류비모프는 이곳 극장의 배우들과 연습 방법과 연기법에 대해 강하게 마찰한다. 몇몇 주연배우 들은 공연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류비모프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여 공연을 올린다. 우여곡절 끝에 올려진 공연은 엄청난 찬사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자신의 형식적인 연출술을 헝가리 극장에 전수해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류비모프는 1979년 2월 12일 모스크바의 타간카에서 『죄와 벌』을 공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다.

## 참고문헌

- 김혜란, “1960년대 타간카 극장과 『햄릿』 공연에 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6호) (2007).
- 전정옥, “타간카, 1964-2011,” 한국 연극학 (45호) (2011).
- Абелюк, Е. С., Леенсон, Е. И. “Таганка. Личное дело одного театра.” М.: Нло, 2007.
- Бушуева, С. “Достоевский на зарубежной сцене.”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ник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исьма. В четырех томах.” т. 3. М.Л.,: Academia, 1934.
-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ник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 Грешкович А. Театр на Таганке(1964-1984). М.: Солярис. 1993.
- Любимов Ю. П. “Ждем встречи со зрителем” сов.Абхазия июля .6. 1996.
-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ерминов и понятий. “Шестидесятники.” М.: Интелвак, 2001.
- Смелянский, А. М. Предлагаем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з жизни русского театр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 Артист. Режиссёр. Театр, 1999.
- Якушина, В. “Искус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и Достоевский(«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1910).” Достоевский и театр. сбник статей. Л.: Искусство. 1983.
- “Бесы. Театр им. Вахтангова. Пресса о спектакле,” [http://www.smotr.ru/2011/2011\\_vaht\\_besy.htm](http://www.smotr.ru/2011/2011_vaht_besy.htm)  
<https://mr.moscow/milaya-taganka/?ysclid=lz2xd93als851984414>

# 성인문학의 애니메이션화에 나타나는 다층적 서사\*

- 흐르자놉스키의 「코 또는 ‘이단아들’의 음모(Нос, или Заговор «не таких»)」를 중심으로 -

박미령 (한국외대)

## I. 들어가는 말

성인문학의 애니메이션화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작가는 고골이다. 러시아에는 푸쉬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홉, 투르게네프 등 뛰어난 작가들이 많지만, 애니메이션계에서 많이 다뤄지는 작가가 고골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고골 작품을 원작으로 소비에트 시절을 포함하여 러시아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는 1935년에 제작되어 1963년 프랑스에서 처음 상영된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의 핀스크린 애니메이션 「코(Нос)」를 시작으로 1945년에 제작된 브룸베르그 자매(Зинаида и Валентина Брумберг)의 「사라진 편지(Пропавшая грамота)」 등 현재까지 10여 편이 넘으며 『디칸카 근교의 야회(В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와 『코』는 가장 많이 애니메이션으로 매체전환되었다. 애니메이션은 그림책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무시되어 왔지만 고골의 작품은 옛이야기와 유사하고 환상적이며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영상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강했다.

21세기에 고골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가운데 두드러진 작품으로는 유리 노르슈테인(Юрий Норштейн)이 제작 중인 「외투(Шинель)」와 안드레이 흐르자놉스키(Андрей Хржановский)의 「코 또는 ‘이단아들’의 음모(Нос, или Заговор «не таких)」(2020)가 있다. 애니메이션 「외투」는 198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완성 상태이며 제작된 30분 정도 분량으로 제15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유리 노르슈테인이 1시간 분량으로 기획한 이 애니메이션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개된 단편들은 이 작품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또한 안드레이 흐르자놉스키의 「코 또는 ‘이단아들’의 음모」는 89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에 영화제 “키노타브르(Кинотавр)”<sup>1)</sup>에서 최초로 상영되었으며 같은 해에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2A01078904)

1) 이 영화제는 1990년에서 2021년까지 개최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이 영화제는 러시아어로 된 영화만 출품할 수 있다.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제93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상 롱 리스트에도 포함되었지만 노미네이트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이 애니메이션은 2021년 3월에 러시아 극장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골의 『코』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Дмитрий Шостакович)의 오페라 「코」(1928)를 근간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실사, 다큐멘터리 기법이 다양하게 적용된 이 애니메이션은 19세기와 20세기의 러시아 영화, 연극, 작곡, 소설 분야의 독창적인 예술가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단아들”은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Сергей Эйзенштейн), 브세볼로드 메이에르홀드(Всеволод Мейерхольд), 주인공 코발료프(Ковалёв),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니콜라이 고골을 가리킨다. 에이젠슈테인은 세계 영화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메이에르홀드는 러시아 연극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고골의 『검찰관(Ревизор)』(1926)을 연극으로 만들었다. 이 연극은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이단아’들은 고골의 『코』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단아”는 위에서 언급한 예술가들 외에 그 당시 형식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당국으로 탄압받고 사형당하거나 수용소로 쫓겨나거나 했던 예술가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코 또는 ‘이단아들’의 음모」는 세 가지 ‘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꿈은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가 중심이며 두 번째 꿈은 불가코프와 스탈린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세 번째 꿈은 쇼스타코비치의 풍자 칸타타인 「반형식주의 라옥(Антиформалистический раёк)」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세 가지 꿈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층적인 서사를 살펴보고 흐르자놉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첫 번째 꿈: 고골의 『코』와 쇼스타코비치 오페라 「코」

애니메이션은 “니콜라이 고골”이란 이름의 러시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시작된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좌석에 부착되어있는 스크린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카메라는 다큐를 찍듯 승객들의 표정과 보고 있는 스크린을 찍는다. 여기에 탄 승객들은 모두 고골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 비행기의 이름이 “니콜라이 고골”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객들은 고골과 연관되어 있으며 고골도 탑승해 있다.

흐르자놉스키가 고골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기획한 데에는 12살 흐르자놉스키에게 고골은 가장 강력한 예술적 감흥 중 작가 중 하나였다는 이유도 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작가의 작품을 선물 받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다.<sup>2)</sup> 그는 전연방국립영화대학(Всесоюз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кинематографии(ВГИКа))<sup>3)</sup>의 연출부에 고골의 『초상화(Портрет)』를 써서 입학할 수 있었다.<sup>4)</sup>

2) С. Сорокина, “«НОС»: ГОГОЛЬ, ШОСТАКОВИЧ, ХРЖАНОВСКИЙ,” *Первые шаги в науке*, Челябинск, 2022, с. 21.

3) 현재는 전러시아국립영화대학(Все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имени С. А. Герасимова (ВГИК))이다.

4) Н. Лобачёва, Разговор с режиссёром Андреем Хржановским о "Носе, или Заговоре "не таких" ", Гоголе и анимации.

고골 작품에 관해 매료되어 있었던 그가 최초의 아방가르드 오페라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자 했던 생각은 1960년대 말에 가졌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 우연히 쇼스타코비치의 사위이며 코르네이 추콥스키의 손자인 친구 예브게니 추콥스키(Евгений Чуковский)를 만나게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에게서 쇼스타코비치가 흐르자놉스키의 데뷔작품이며 전연방 국립영화대학의 졸업작품이었던 <옛날 옛적에 코자빈이 살았습니다.(Жил-был Козявин)>(1966)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흐르자놉스키는 즉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서 오페라 <코>의 영상화에 대한 허가를 구했다. 그리고 드디어 쇼스타코비치에게서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된다.<sup>5)</sup>

그러나 허락을 받은 후에 쇼스타코비치 <코>(1928)를 근간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거의 반세기 가 지난 후에 완성되어 나왔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작품번호 15)와 흐르자놉스키 개인사 때문이었다. 흐르자놉스키의 개인사부터 언급하면, 그는 두 번째로 만든 애니메이션 <유리 아코디언(Стекло́нная гармо́ника)>(1968)으로 인해 당의 검열에 시달려야 했고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음악의 선한 영향력과 음악 앞에 존재하는 권력의 공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흐르자놉스키는 “오늘날의 이야기이며 영혼 앞에 놓인 돈의 권력에 대한, 입을 닥치게 하는 문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언급했다.<sup>6)</sup> 이 작품은 상영금지를 당했고 군 복무를 마친 흐르자놉스키는 당의 눈치를 보고 권력과 예술의 관계를 다루는 위험한 주제를 피했다. 이런 이유로 해빙 이후 70년대부터 조금씩 제작이 진행되었다.

「코 또는 “이단아”들의 음모」는 코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가 근간이 되는 작품이므로 애니메이션 음악에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는 고골의 『코』를 원작으로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애니메이션에서도 고골은 자신의 고향인 우크라이나를 떠나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고골이 『코』의 철자를 바꿔 “꿈(сон)”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부터 첫 번째 꿈이 시작된다. 이 꿈은 코발료프의 꿈이다. 즉 잃어버린 코를 찾아다니는 코발료프의 꿈인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발라간, 라욕을 기본으로 한다. 영화가 라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면 라욕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비행기 안에서 관객들이 보는 모니터<sup>7)</sup>는 현대판 라욕이다. 실사가 아니라 그림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장터, 그리고 발라간, 광대들이 나오고 장터에서 라욕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며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에이젠슈테인의 무성영화 <전함 포템킨(Броненосец “Потёмкин”)>의 유명한 장면인 오뎃사계단 장면을 보고 있다. 그 관객들 사이에 코발료프도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는 메이에르홀드의 아파트에서

<https://media.2x2tv.ru/nos-zagovor-ne-takih/>(검색일: 2024년 7월 12일)

5) Александр Кан, Сталин и "Нос". Как Андрей Хржановский сделал из повести Гоголя и оперы Шостаковича сагу о цензуре и власти,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6921893>(검색일: 2024년 7월 3일)

6) “Андрей Хржановский. Линия жизни”, YouTube, uploaded by Телеканал Культура. 2019. 12. 1, <https://youtu.be/ey57dDaVsIhw?si=t3h2fdwosVrd40n2>(검색일: 2024년 8월 2일)

7) 모니터, 오페라 공연과 영화상영, 라욕, 19세기 옷을 걸친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쇼스타코비치를 검색하는 모습은 미장아빴을 보여준다.

1막이 완성이 되고 2막은 레닌그라드로 돌아와 마무리되었다.<sup>8)</sup>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 쇼스타코비치, 메이예르홀드가 등장하고 오페라 <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흐르자놉스키는 쇼스타코비치의 첫 오페라 <코>가 메이예르홀드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장면을 구성한다. [장면1]은 쇼스타코비치와 메이예르홀드가 고골에게 쇼스타코비치가 오페라 <코>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메이예르홀드가 무대에 올린 <검찰관(Ревизор)><sup>9)</sup>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고골은 라욕을 통해 메이예르홀드의 <검찰관>의 한 장면을 보고 칭찬한다. 이런 장면은 시공간이 해체되고 상호텍스트성, 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고골 작품을 재매체화했던 쇼스타코비치와 메이예르홀드가 고골을 만나 허락 또는 인정을 받는 장면은 흐르자놉스키가 쇼스타코비치에게 허락을 받았던 그 상황과 오버랩된다. <코>로 연결된 이 세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1]은 마지막 장면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에 스탈린에 의해서 죽거나 수용소에 끌려간 예술가들의 사진이 나오고 눈이 내리는 밤 하늘에 그 예술가들의 이름이 붙은 수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난다. 그 모습을 지상에서 이 세 사람이 쳐다본다.



[장면1]

애니메이션에서 본격적으로 쇼스타코비치 오페라 <코>가 등장한다. 쇼스타코비치가 오페라 <코>를 구상한 것은 1927년으로 보인다. 그는 1927년에 야보르스키에게 편지를 써서 고골의 단편 『코』를 바탕으로 오페라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sup>10)</sup> 대본 작업은 쇼스타코비치 본인과 그리고리 요닌(Григорий Ионин)과 알렉산드르 프레이스(Александр Прейс), 예브게니 자마틴(Евгений Замятин)이 했다고 되어 있다. 쇼스타코비치 자신은 고골 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페라 <코>를 왜 썼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글썄, 무엇보다도 내가 고골을 좋아하니까 그랬겠지, 허풍떠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은 고스란히 외울 수 있다. 또 어릴 때 읽은 『코』는 강한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sup>11)</sup> 리브레토의 저자들은 등장인물과 그들이 구사하는 언

8) 엘리자베스 윌슨, 같은 책, 138쪽.

9) 1926년 12월 9일에 메이예르홀드 극장에서 초연한 <검찰관>은 쇼스타코비치에게 특별한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쇼스타코비치가 솔레르틴스키(И. И. Солертински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고백하고 있다. П. А. Федоровна, Опера “Нос” Д. Шостаковича и эксперименты В. Мейерхольда, Интеграция искусств в современ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2019, с. 39. 메이예르홀드와 쇼스타코비치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우혜연, 쇼스타코비치 “코”에 나타난 연극적 특성에 대하여: 메이예르홀트의 영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5권 4호, 2020을 참조.

10) 엘리자베스 윌슨, 『쇼스타코비치: 시대와 음악 사이에서』, 장호연 옮김, 파주: 돌베개, 2023, 138쪽.

어의 그로테스크적인 표현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특징을 극한까지 심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소설 『코』의 텍스트로 제한하지 않고 고골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필요한 것을 발췌했다. 예를 들면 『5월의 밤(Майская ночь)』, 『타라스 불리바(Тарас Бульба)』,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키포로비치의 말다툼에 관한 이야기(Повесть о том, как поссорились Иван Иванович с Иваном Никифоровичем)』, 『옛 지주들(Старосветские помещики)』, 『결혼(Женитьба)』, 『소로친 시장(Сорочинская ярмарка)』, 『광인일기(Записки сумасшедшего)』, 『죽은 혼(Мёртвые души)』에서 가져왔고<sup>12)</sup> 심지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에서도 가지고 왔다.<sup>13)</sup>

흐르자놉스키의 애니메이션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애용하는 자기반영성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비행기 객실 장면에서도 직접 등장하고 나레이터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전작 애니메이션을 객실 모니터에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를 등장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흐르자놉스키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장르의 자기반영성을 보여준다. 러시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이용하며 현대식 자동차를 등장시킨다.



[장면 2]

11) 솔로몬 볼코프, 『증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회고록』, 김병화 옮김, 강원도: 온다프레스, 2019, 463쪽.

12) А. И. Демченко, Ю. Г. Филиппова, “Нос” Гоголя и Шостаковича: Два авангарда,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5), 2013, 599.

13) 도스토옙스키의 예술적 특징은 고골과 연관성이 있으며 트이냐노프(Ю. Н. Тынянов)는 도스토옙스키가 고골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Ю. Н. Тынянов, Достоевский и Гоголь: К теории пародии, Опояз, 1921, с. 6. [https://imwerden.de/pdf/tynyanov\\_dostoevsky\\_i\\_gogol\\_1921\\_\\_ocr.pdf](https://imwerden.de/pdf/tynyanov_dostoevsky_i_gogol_1921__ocr.pdf)(검색일: 2024년 8월 15일)

코발료프의 코가 카잔성당에서 나와서 리무진을 타는데 레핀의 유명한 그림인 <볼가강에서 배를 끄는 인부들(Бурлаки на Волге)>에 나오는 인부들이 그 리무진을 끈다. 그 리무진을 수리코프의 대표적인 그림인 <모로조바 공녀(Боярыня Морозова)>에 등장하는 관중들이 모로조바의 수레 대신 코발료프가 탄 리무진을 배운다. 그 외에도 페도로프의 <소령의 구혼(Сватовство майора)>, 샤갈의 <도시 위에서(Под городом)>, 보리스 쿠스토디예프의 <미녀(Красавица)>, 그리고리예프의 <메이예르홀드의 초상화(Портрет В. Э. Мейерхольда)> 등을 인용한다. 흐르자놉스키는 사진과 그림의 콜라주는 물론이고 에이젠슈타인 영화의 일부도 인용했다.

매체적 속성을 드러내는 자기반영성도 있는데, 고골, 메이예르홀드, 쇼스타코비치는 첫 번째 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첫 번째 꿈의 근간인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의 작업은 이 세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드러낸다. 흐르자놉스키의 애니메이션에서 이 세 예술가는 함께 하며 오페라의 진행을 관찰하고 지켜본다. 고골은 쇼스타코비치 오페라의 대본을 확인하며 체크하기도 하고 메이예르홀드와 함께 코발료프의 코가 카잔성당에서 보디가드에 둘러싸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며 쇼스타코비치는 성당의 성가대를 지휘한다. 이 카잔성당에 자신의 코를 찾아 코발료프도 등장한다. 코발료프는 이 세 예술가와 함께 코의 행위를 지켜본다.

흐르자놉스키는 이 애니메이션을 관통하는 “예술가와 권력”이라는 주제를 놓지 않고 코발료프가 신문국(газетная экспедиция)에 찾아가 광고를 실어달라고 청을 하지만 거절당하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눈보라 치는 겨울바람과 사람들의 얼굴이 섞여 날아가는 카오스를 보여준다. 이때 고통스러워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사진과 1938년 체포되었을 때 찍힌 메이예르홀드의 사진이 나오고 총살당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장면 3]

대체로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에 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작품으로 처음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sup>14)</sup> 많은 음악가와 비평가들이 “난해하다”, “쓰레기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쇼스타코비치와 영화 <새로운 바빌론(Новый вавилон)>을 함께 작업했던 영화감독 그리고리 코진체프(Г. М. Козинцев, 1905~1973)는 오페라 <코> 리허설을 듣고 정확하게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고골의 판타스마고리아가 소리와 색채로 바뀌어 있었다. [...] 고골의 그로테스크한 세계가 사방에서 날뛰었다. [...] 반시적이고 반음악적이고 저속한 것의 통합이지만, 사실은

14) 엘리자베스 윌슨, 같은 책, 142쪽.

실제 삶의 역양이고 실제 삶의 패러디였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관습적인 것에 대한 맹공격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sup>15)</sup>

첫 번째 꿈은 코발료프의 꿈이지만, 시대의 부조리와 넌센스를 고발하려는 고골과 쇼스타코비치의 꿈이며 고골도 쇼스타코비치도 시대에 이단아로 검열과 비난에 시달렸지만, ‘꿈’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고 했다.

### III. 두 번째 꿈: 스탈린과 불가코프

두 번째 꿈은 불가코프의 꿈이다. 흐르자놉스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꿈에 불가코프를 다루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에피소드는 나의 좋은 친구이자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의 딸이자 로스트로포비치(Ростропович)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자 쇼스타코비치의 유명한 연구자인 영국 여성 엘리자베스 윌슨의 제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엘레나 세르게예브나 불가코바(Елена Сергеевна Булгакова)의 일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에피소드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제목은 ‘마치(Будто бы)’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쇼스타코비치는 불가코프의 대본을 바탕으로 오페라를 쓸 예정이었고 그들은 서로 방문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불가코프의 이야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친구들과 함께 오페라를 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쇼스타코비치와 지휘자 멜릭-파샤예프(Мелик-Пашаев)가 그들이 틀림없이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훈장을 위한 구멍을 자켓에 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훈장은 없고 파멸로 끝났죠.”<sup>16)</sup> 흐르자놉스키는 불가코프의 꿈을 불가코프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라욕 또는 베르테프(вертеп)처럼 구성했다.

스탈린이 불가코프의 희곡 『도망(Бег)』(1928)을 “반소비에트”라고 특정화한 후에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산문도 금지되는 데 이른다. 불가코프는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족적 파국, 유혈사태와 끔찍한 죄악으로 혁명을 받아들였다.<sup>17)</sup> 그는 자신이 작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 1928년 7월에 스탈린에게 처음 편지하게 된다. 거기서 자신을 국외로 추방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스탈린에게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sup>18)</sup> 1930년 3월 28일에 스탈린에게 절망이 담긴 편지를 보낸다. 1930년 4월 18일에 스탈린이 작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 순간에 나라의 지도자는 불가코프에게 므하트(МХАТ)에서 일해보라고 권하며 개인적으로 불가코프와 만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가코프는 독특한 망상

15) 엘리자베스 윌슨, 같은 책, 144쪽.

16) Александр Кан, Сталин и "Нос". Как Андрей Хржановский сделал из повести Гоголя и оперы Шостаковича сагу о цензуре и власти,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6921893>(검색일: 2024년 7월 3일)

17) Е. С. Маломожнова, “Творец и вождь: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 А. Булгакова и И. В. Сталина”, *Young Scientist*, 16 (120), August 2016, с. 503.

18) И. Золотусский, Булгаков и сталин. <https://lit.lsept.ru/article.php?ID=200103205>(검색일: 2024년 7월 28일)

을 하게 된다. 이런 망상은 불가코프와 스탈린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즉 스탈린은 그의 희곡 『도망』을 반 소비에트라고 규정했지만, 불가코프의 또 다른 희곡 『투르빈 가의 나날들(Дни Турбиных)』은 15번이나 관람할 정도로 좋아했다. 어쨌든 스탈린은 혁명이나 당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불가코프를 죽이지는 않았다.



[장면4]

흐르자놉스키가 언급한 불가코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쇼스타코비치를 비롯한 불가코프의 친구들은 불가코프의 집에 모여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장면 4]에서처럼 작은 영상이 담긴 상자(вертеп)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미망인 불가코바에 의해서 기록된 불가코프의 이야기(Рассказ писателя М. А. Булгакова, записанной его вдовой Е. С. Булгаковой)”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목 “마치(Будто бы...)”가 나온다. 불가코프는 스탈린에게 ‘트람파즐린(Трампазлин)’이란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다. 스탈린은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겐리흐 야고다(Г. Г. Ягода)를 불러서 물어본다. 그는 그 사람이 불가코프라고 말한다. 그러자 스탈린은 그를 크렘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고 갑자기 데리러 온 사람들로 인해 불가코프는 경황이 없어서 신발을 신지 못한 채 가게 된다. 맨발로 온 불가코프를 본 스탈린은 처음에 야고다의 신발을 벗겨서 신게 하지만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보라실로프(К. Е. Ворошилов)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다. 카가노비치(Л. М. Каганович)의 신발도 맞지 않자 미코얀(А. И. Микоян),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신발을 벗어서 불가코프에게 신겨보더니 몰로토프의 신발이 드디어 맞았다. 그 이후 스탈린은 왜 자신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불가코프에게 묻는다. 스탈린은 불가코프를 극장에 취직시키고 그와 붙어 다니면서 우정을 쌓는다. 스탈린은 불가코프 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불가코프가 삼 주 동안 키예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코프가 떠난 후 스탈린은 “미호, 미호(Михо)”라는 애칭을 부르며 불가코프를 그리워한다. 할 일이 없어 무료하던 스탈린은 오페라를 보러 가기로 한다. 그 오페라는 쇼스타코비치 오페라 <코>였는데 실제로 스탈린이 관람한 오페라는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므첸스크 군의 맥베스 부인(Леди Макбет Мценского уезда)>였다.

스탈린, 몰로토프, 미코얀, 즈다노프가 1936년 1월에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를 관람했다. 이때의 상황을 쇼스타코비치와 같이 관람했던 세르게이 라담스키가 전한다. 이 묘사는 애니메이션의 상황을 글로 전하는 듯하다.

스탈린, 즈다노프, 미코얀이 [...] 관료 박스석에 있었다. [...] 나는 쇼스타코비치, 메이예르홀드, 아흐 메텔리와 함께 그들 맞은 편 박스석에 앉아 있어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탈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무대를 볼 수 있으면서 청중의 호기심은 피할 수 있도록 작은 커튼 뒤에 앉아 있었다. 타악기와 금관이 포르티시모를 연주할 때마다 즈다노프와 미코얀이 몸서리를 쳤고, 그러고는 소리 내 웃으며 스탈린을 돌아보았다. [...] 쇼스타코비치는 이들 세 명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는 좌석 깊숙이 몸을 묻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극도로 불안한 모습이었다.<sup>19)</sup>

이 오페라 이후 1936년 1월 28일에 발행된 「프라브다」 지에 “음악 대신 혼란(Сумбур вместо музыки)”이라는 글이 실리면서 쇼스타코비치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쇼스타코비치의 가까운 예술가들이 처형당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언제 체포되어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스탈린은 오페라 <코>를 보고 부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음악이 “불협화음(какофония)”, “음악 안의 혼란(сумбур в музыке)”임을 언급한다. 스탈린이 부하들과 함께 이 오페라에 관한 회의를 하고 나서 스탈린과 부하들을 태운 자동차가 모스크바 상공을 달리자 거대한 소련의 깃발이 도시를 덮는다. 그 후에 예술가들에 대한 숙청과 「프라브다」 지에 “음악 대신 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쇼스타코비치의 <반형식주의 라옥>(Антиформалистический раёк)>이 중심이 되는 세 번째 꿈으로 연결된다.

#### IV. 세번째 꿈: 쇼스타코비치의 <반형식주의 라옥>

쇼스타코비치의 <반형식주의 라옥>은 오프스 번호 없이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4명의 베이스, 낭독자, 합창단, 피아노를 위한 풍자 칸타타(cantata)이다. 1948년부터 1968년까지 창작되었으며, 쇼스타코비치 생전에 공연되지는 못했다. 1989년 1월 12일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 콘서트 홀(Kennedy Center Concert Hall)에서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비치(Мстислав Рострович)의 지휘하에 초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989년 9월 25일 쇼스타코비치 탄생 83주년 기념으로 모스크바 음악당 대강당에서 처음 공연되었으며, 발레리 폴란스키(Валерий Полянский)가 지휘를 맡았다.<sup>20)</sup>

『증언』에서 볼코프는 <반형식주의 라옥>이 1948년의 반형식주의 캠페인과 그 캠페인을 조직한

19) 엘리자베스 윌슨, 같은 책, 205~206쪽.

20) Шостакович Д. Антиформалистический раек; Публикация М. А. Якубова, Наше наследие. 1993. № 28. с. 93.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며 이 곡의 대사가 전부 스탈린을 포함한 고위당직자들의 이름과 연설문의 교묘한 패러디라고 했다.<sup>21)</sup> 쇼스타코비치가 제목으로 “라욕”을 선택한 것은 모데스트 무소르스키(Модест Мусоргский)의 <라욕>(1870)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이 작품에 어린 시절부터 친숙했다. 쇼스타코비치의 <반형식주의 라욕>은 무소르스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음악적 적들을 조롱하는 짧은 풍자적 성악 작품이다.<sup>22)</sup>

1947년 12월 중반에 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ЦК ВКП(б)(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Всесоюзн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большевиков))에 “소비에트 음악 발전에 대한 결점에 대해서(О недостатках в развитии советской музыки)”라는 제목의 비밀 편지가 전달되었다. 이 비밀 편지에는 그 당시 중앙위원회의 선동 선전 지도자인 셰필로프(Д. Т. Шепилов)와 레베데프(П. И. Лебедев)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쇼스타코비치의 제8, 9번 심포니, 니콜라이 마스콥스키(Н. Я. Мясковский)의 <크렘린의 밤(Кремль ночью)>이라는 “칸타타-녹턴”,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С. С. Прокофьев)의 오페라 <전쟁과 평화(Война и мир)>와 제6번 심포니, 바노 무라델리(Вано И. Мурадели)의 오페라 <위대한 우정(Великая дружб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sup>23)</sup>

194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무라델리의 오페라 <위대한 우정>에 대하여”라는 결의안을 발표한다. 이는 ‘형식주의’라고 낙인을 찍은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하차투리안, 세발린, 포포프, 마스콥스키, 무라델리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다.<sup>24)</sup> 이 작곡가들을 둘러싼 스탈린의 교시부터 전반적인 박해가 전개된다. 권력은 퇴폐, 반민중성, 서유럽 음악의 해로운 흐름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 작곡가들을 비난했다.

쇼스타코비치의 <반형식주의 라욕>의 텍스트는 1993년 잡지 「우리의 유산(Наше наследие)」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작품의 부제는 “낭독자, 네 명의 베이스와 포르테피아노 반주 하의 혼성 합창단을 위해서. 무명 작가들의 대본과 음악.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음악에서 사실주의 방향과 음악에서 형식주의 방향과의 투쟁.(Для чтеца, четырёх басов и смешанного хор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фортепиано. Слова и музыка неизвестных авторов. В помощь изучающим. Борьба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музыке с формалист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 музыке)”이며 출판사에서는 “무명 작가들의 대본과 음악”에 주를 달았는데 “음악 보안부에 따르면, 저자들은 수배되고 있다. 음악 보안부는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Как сообщает Отдел Музык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вторы разыскиваются. ОМБ заверяет, что они будут разысканы. (Издательство))”라고 했다. 그런데 흐르자놉스키는 스크린에 이 글을 프레임마다 넣었다.

<반형식주의 라욕>의 주요 등장인물은 진행자(Ведущий, 베이스), 예디니친(И. С. Единицы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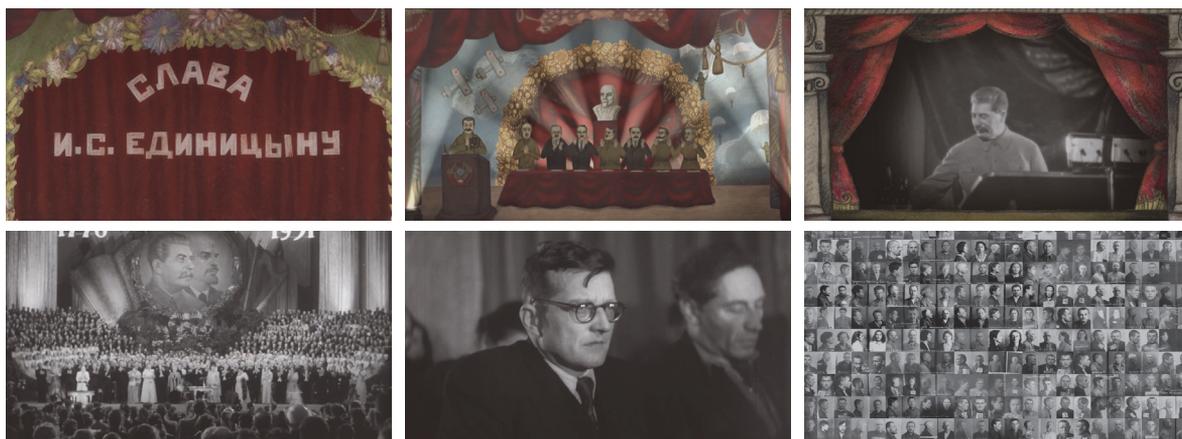
21) 솔로몬 볼코프, 같은 책, 353쪽.

22) Gregory Grabowski, SHOSTAKOVICH'S USE OF SATIRE IN ANTI-FORMALIST RAYOK WITH A FOCUS ON THE MUSIC OF THE CHARACTER D.T. TROIKIN, p. 1.

23) Вера Гаврилова, “«Антиформалистический раёк» Д. Д. Шостаковича: концепция и черты музыкального стиля”, *Израиль XXI. Музыкальный журнал* 2, 2011, с. 1.

24) 채혜연, 대조국전쟁 이후 스탈린체제 말까지 소련의 음악, 『노어노문학』 제26권 제4호, 2014, 464-465쪽.

(베이스), 드보이킨(А. А. Двойкин) (베이스), 트로이킨(Д. Т. Тройкин) (베이스), 혼성합창단(남녀 음악활동가들)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 궁전”에서 “음악에서의 사실주의와 형식주의(Реализм и формализм в музыке)”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된다. 진행자는 예디니친, 드보이킨, 트로이킨에게 발언권을 준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예디니친은 스탈린을, 드보이킨은 즈다노프(А. А. Жданов)를, 트로이킨은 셰필로프(Д. Т. Шепилов)를 가리킨다. 성을 제외한 이름과 부칭의 이니셜은 해당 인물을 가리키는데 스탈린을 가리키는 예디니친은 “И. В.”가 아니라 “И. С.”로 되어 있다. 예디니친의 캐릭터는 스탈린의 연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수사적 스타일인 질문에서 답의 문구가 반복되는 심오하고 문답적인 화법을 사용한다. 드보이킨의 텍스트의 핵심은 1948년 음악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에서 즈다노프가 한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따온 것이다. 또한 즈다노프가 가수로서 훈련을 받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쇼스타코비치는 드보이킨의 연설을 여러 발성으로 그의 보컬 실력을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트로이킨의 캐릭터에 주어진 이니셜은 분명히 셰필로프를 암시하지만, 오프닝 왈츠 음악에서 사용된 텍스트 외에는 그의 연설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지 않았다. 트로이킨의 캐릭터는 셰필로프와 즈다노프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섹션의 대본 상당 부분은 즈다노프의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sup>25)</sup>



<반형식주의 라욕>에서 예디니친부터 트로이킨까지 연설을 하는데, 트로이킨의 연설 마지막 부분은 예술가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충분했다. “누구든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둘 겁니다. 강력한 체제로 운영되는 수용소 캠프에 보낼 겁니다.(Ну, а если буржуазные идеи/ Кто-нибудь воспримет,/ Надолго тех будем мы сажать,/ И в лагеря усиленного режима помещать.)”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울고 있는 쇼스타코비치의 클로즈업된 얼굴과 행진하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교차편집되어 있다. 총살과 수용소로 간 예

25) Manashir Yakubov, "Anti-Formalist Rayok: A History of the Work's Composition and its Musical and Literary Sources," in *Shostakovich in Context*, ed. Rosamund Bartlet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53. Grabowski, Gregory, "Shostakovich's use of satire in" *Anti-Formalist Rayok*" with a focus on the music of the character DT Troikin", University of North Texas, 2014, p.2에서 재인용.

술가들이 적힌 실제 재판 기록과 문서들이 나온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루반카 감옥에서 보낸 메이예르홀드의 편지가 나온다. 그 편지에 그는 총살되기 전에 가해졌던 끝없는 고문과 조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편지에서 중요한 부분에 붉은 줄을 치는데 줄을 친 부분은 이렇다. “여기서는 나를 때렸어. 66세의 아픈 노인을 말아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가죽 채찍으로 발뒤꿈치와 등을 때렸어. [...] 아프고 예민한 다리 부분에 펄펄 끓는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 (난 아파서 소리치고 울었어.) (Меня здесь били — больного шестидесятишестилетнего старика. Клали на пол лицом вниз, резиновым жгутом били по пяткам и по спине; [...] боль была такая, что, казалось, на больны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места ног лили крутой кипяток (я кричал и плакал от боли).” 그 뒤로 메이예르홀드를 비롯해서 그 당시 체포되어 찍힌 실제 사진들이 지나간다. 또한 총살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화면에는 총살당한 수많은 예술가의 사진과 스탈린, 쇼스타코비치가 교차편집되어 나온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그 당시 사라져갔던 예술가들의 이름이 적힌 비행기들이 하늘을 수놓는다. 이들은 권력에 희생당한 “이단아”들이었다. 그 비행기를 쇼스타코비치와 메이예르홀드, 고골이 지상에서 쳐다보고 있다.

## V. 나가며

호르자놉스키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탈린의 공포 시대에 살았고 주변 친구들의 희생, 배신, 동료 예술가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쇼스타코비치를 중심으로 권력과 예술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호르자놉스키는 인터뷰에서 “내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영화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되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답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건 어제에 대한 것도 오늘에 대한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언제나에 관한 것이죠.’ 전 그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기뻐합니다.”<sup>26)</sup> 그의 인터뷰처럼 이 주제는 어떤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늘 존재해 왔고 예술은 시대의 “이단아”가 되어주었다.

호르자놉스키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화, 애니메이션, 실사, 다큐멘터리, 실제 문서를 폭넓게 사용하면서 상호텍스트성, 상호매체성, 미장아빌, 자기반영성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호르자놉스키는 권력에 고통받고 사라진 “이단아들(не такие)”을 다룬다. 이들은 시대를 창조했지만, 너무 앞선 시대를 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시대의 이단아로 살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멸을 얻었다. 호르자놉스키는 시대, 시간, 허구와 픽션을 해체하고 그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카니발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26) Александр Кан, Сталин и "Нос". Как Андрей Хржановский сделал из повести Гоголя и оперы Шостаковича сагу о цензуре и власти,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6921893>(검색일: 2024년 7월 3일)

# 이동파 신화에 대한 도전:

## 혁신적 예술단체인가, 상업적 이익단체인가?

이상철 (경북대)

### I. 들어가는 말

1870년 러시아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미술 단체인 ‘이동미술전람회조합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sup>1)</sup>은 1923년까지 존속하였다. 19세기 중반 - 20세기 초 러시아 미술의 운명은 선명한 예술 현상인 이동파의 결성 및 활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시 이동파는 러시아 미술 발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동파는 1871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약 반세기 동안 러시아 제국과 초기 소련의 다양한 지역에서 48차례의 정기순회전을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곧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동파에 대한 평가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 비평가는 블라디미르 스타소프(В. Стасов)이다. 그는 이동파를 철저하게 이상적이고 미학적인 단체로 높이 추켜세웠다. 특히 스타소프는 ‘민족과 리얼리즘’의 가치를 내건 이동파는 기존 황실미술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예술과 미학적으로 대립했으며, 아카데미의 보수적이고 미화된 예술 방식을 논박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동파의 전시회 활동은 특별히 자기희생과 교육적인 목적을 추구했다고 확신하였다<sup>2)</sup>. 이동파 활동에 대한 스타소프의 시각은 이후 비평가들의 평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sup>3)</sup>. 사회주의 혁명

1) ‘이동미술전람회조합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은 ‘이동미술전람회연합’, ‘이동미술전람회’, ‘이동예술전람회’, ‘이동전람회화파’, ‘이동전람회’ 등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또한, 약칭으로 ‘передвижный’에 접미사 복수형태 ‘-ники’를 붙여 ‘Передвижники’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이동파’라고 칭하는데 접미사 ‘-ник’은 대상뿐만 아니라 인물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므로 그 단체뿐만 아니라 소속 화가까지 지칭한다. 참고로 영어식 표현인 ‘Wanders’ 또는 ‘Itinerants’의 영향으로 ‘방랑파’, ‘순회파’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동파’ 명칭은 2016년 국립국어원이 『우리말샘』에 최초 등록했으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2) 스타소프는 1882년 「유럽 통보」 12월호에 ‘러시아 예술의 25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최초로 이동파를 ‘민족과 리얼리즘’ 원칙에 연관시켰다. Стасов В.В., ‘Двадцать пять лет рус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В. Стасова, в 3 т. СПб., 1894, т.1, сс. 493-590.

3) 예를 들면, 이동파에 관한 첫 번째 전기작가이자 목록 분류자인 니콜라이 소브코(Н. Собко)의 저술과 1897년 이동파의 25번째 전시회 기념일에 출간된 모노그래프가 있다. 이 책은 1940년대 소련 시기에 저술이 나올 때까지 이동파에 관한 유일한 모노그래프이다. 반면에 알렉산드르 베누아(А. Бенуа)는 19세기 러시아 예술을 개관하면서 스타소프의 견해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교훈 또는 비판적인 방식으로 당대의 주제와 문제를 다루는 풍속화로 한정하여 그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Шабанов А.Е. Передвижники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 товариществом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전까지 이동파에 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스타소프를 답습하였다. 1929년 알렉세이 표도로프-다비도프는 최초로 이 단체의 정치화에서 벗어나 명백한 상업적 성격에 주목했다. 그에 주장에 따르면 이동파 전시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상품 판매 시장의 확대였다<sup>4)</sup>. 그러나 그의 연구는 1930년대부터 이념적으로 위협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작업을 논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1930년대 말부터 연구자들은 이동파의 활동을 러시아 인텔리겐치아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과 비교하기 시작했다<sup>5)</sup>. 이후 서구권에서는 70년대 말부터 러시아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이 단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하지만 국내 연구는 여전히 이동파의 상업성과 영리적 측면 즉 새로운 시각에서 그 단체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스타소프와 그의 견해를 견지하는 소련 및 러시아 연구의 테두리 내에 머물고 있다.<sup>7)</sup> 이동파에 대한 지배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은 그 단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속 화가들이 자신을 대중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시회의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동파를 이상적인 단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동파는 알렉산드르 2세의 자유주의 통치 시기, 알렉산드르 3세의 반동 시기와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던 니콜라이 2세 치하 등 다양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전시회와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갔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동파가 당시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예술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카데미 미술과 철저히 독립적이고 대립적인 성격을 띤 반체제 단체로서 자기희생과 사회적 의무만 추구하는 리얼리스트-예술가였다

СПб., 2015, с. 13.

- 4)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크람스코이나 스타소프와 같은 사상가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잇는 자유주의 저널리스트들이 이동파의 사조에 관해 쓰고 있지만, 그 단체의 기본 원칙은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상품’이 명백하게 증명해준다. <...> 이동파 전시회의 기본 사상은 지방의 소규모 상품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Федоров-Давыдов А.А. Ру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М., 1929, с. 175.
- 5) 다음의 연구 참조: Варшавский Л.Р. Передвижники. Их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искусстве. М., 1937; Беляева О.Ф. Передвижники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указатель литературы. Л., 1955; Гомберг-Вержбинская Э. Передвижники. Л., 1970; Зотов А.И. Ру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М., 1971. (1979년 개정판 출간). 1971년 판 한국어 번역본: A.I. 조토프. 이견수 역. 러시아 美術史, 동문선, 1996.
- 6) 대표적 연구는 다음을 참조: Гольдштейн С.Н.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Письма, документы, в 2 т. М., 1987. 이 책은 이동파 활동의 상업적 측면을 다루며 해당 단체의 조직 목적과 성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Valkenier E.K. Russian Realist Art. The State and Society: The Peredvizhniki and Their Tradition. Ann Arbor, 1977. 영어권에서는 러시아보다 빠른 1977년 미국 연구자 엘리자베스 발크니어(E.K. Valkenier)가 이동파의 설립 목적과 원칙을 당시 지배적이었던 소련의 해석과 다르게 시도하였다. 그는 이동파의 급진적인 반체제로의 진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스탈린 정권 치하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동파를 신화화하고 진실을 날조했다고 설명했다. 소련 학계는 발크니어의 견해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발크니어의 1989년 재출간본 서문 참조: Valkenier E.K. Russian Realist Art. The State and Society: The Peredvizhniki and Their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xiii.; Jackson D. The Wanderers and Critical Realism in Nineteenth-Century Russian Painting. Manchester, 2006. 2006년에는 영국 연구자 데이비드 잭슨이 이동파 활동의 전통적인 문제와 미학적 평가뿐만 아니라 예술 유산의 다양한 특징을 보다 상세히 연구하였다.
- 7) 한국에서는 러시아와 서구권에 비해 다소 늦은 2022년이 되어서야 이동파의 상업 활동에 관한 연구 논문이 등장하였다. 다음 논문 참조: 김가영. 러시아 이동파, 대의와 세계 사이에서. 『미술사학보』. 2022. № 58. 이 논문에서는 ‘이동파가 과연 혁명적인 단체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동파의 창설과 영리 활동에 관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다루고 있다.

면, 제정 러시아 시기에 그들이 오랫동안 존속하며 대중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1863년 아카데미 졸업 주제 선정에 반기를 들고 자퇴한 ‘14인의 반란’ 사건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조합(Артель)의 출현이 이동파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60년대 장르 화가들의 급진주의를 이동파에 투영하고, 14인의 반란과 그 급진주의를 연관시키는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나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이동파 화가의 그림은 특히 전시회를 배경으로 설명되고 이해돼야 하지만, 기존 예술학자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동파의 활동을 전시회 그 자체와는 별도로 고찰하였다. 리얼리즘 운동으로서 이동파에 대한 평가를 증명하기 위해 전시회에 출품되지 않은 그림을 포함하여 개별 회화 작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동파의 실질적인 활동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 접근 방식을 통해 이동파의 원래 목표와 정체성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동파를 일련의 예술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의 대항으로 평가하는 사회학과 예술사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동파가 기존의 익숙한 예술 법칙을 깨트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동파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익숙한 평가에 의의에 작은 의문을 제기하며 이동파 예술 활동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동파 전시회를 다룬 당시 언론 보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이동파에 대한 대중 인식의 변화와 그 단체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화가와 비평가의 역할 또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동파는 존속 기간 동안 전시회를 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최하면서 시종일관 자신과 전시회가 그런 성격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사화, 풍경화와 초상화를 비롯하여 현대적 소재 등 다양한 주제와 양식을 다룬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이동파 화가들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고자 계획했다라도, 발전하지 못한 미술 시장과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상업 단체를 창설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았다. 오히려 그들은 공익성을 지방에서 이동파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로 간주하였다. 아카데미를 대체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는 수십 년 동안 관객의 관심을 끌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어야만 했다. 제한적인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불리하고 목적에도 맞지 않았다. 실제로 이동파의 초기 전시회는 특별한 사상이나 미학적 정체성을 보여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동파의 결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단체가 자신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적 이미지와 요인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이 단체의 첫 번째 전시회를 포함하여 주요 전시회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이동파 신화에 도전해보고자 한다.

## II. 1870년 이동파 결성

1870년 11월 ‘이동미술전람회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국가 등록을 승인받은 공식 현장을 발표<sup>8)</sup> 하면서 소속 화가들<sup>9)</sup>은 자신과 단체의 활동을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소개했다. 이 문서에는 이동파의 목표, 구성, 관리와 재무가 명시되어 있다. 현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파는 상업 전시 협회를 창설했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동파 현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현장

#### 이동미술전람회조합 \*)

1870년 11월 2일 내무부 승인

### 이동파 목표

1항. 이동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지방 주민에게 러시아 미술을 소개하고 그 성공을 지켜볼 기회 제공; b) 공동체 속에서 미술에 대한 애호심 고취; c) 화가들의 작품 판매 용이 등의 목적을 위해 합당한 허가를 받아 제국의 모든 도시에서 이동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

2항. 상기의 목적을 위해 이동파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회에서 미술 작품, 미술 출판물과 사진 촬영물을 판매할 수 있다.

### 이동파 구성

3항. 이동파의 회원 자격은 미술 활동을 지속하는 화가로만 제한한다.

4항. 이동파 회원 가입은 총회에서 후보자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

\*) 원본 초안 현장에 서명한 이동파 회원-창립자 명단: 아카데미 출신 В.Г. Перов, 상급 화가(классный художник) Г.Г. Мясоедов, 아카데미 출신 Л.Л. Каменев, 아카데미 출신 А.К. Саврасов, 상급화가 И.М. Прянишников, 교수 Н.Н. Ге, 아카데미 출신 И.Н. Крамской, 교수 М.К. Клодт, 아카데미 출신 М.П. Клодт, 아카데미 출신 И.И. Шишкин, 교수 К.Е. Маковский, 화가 Н.Е. Маковский, 아카데미 출신 В.И. Якоби, 아카데미 출신 А.И. Корзухин, 상급화가 К.В. Лемох.

---

8) 이동파의 시작일을 내무부로부터 현장의 승인을 받은 11월 2일로 보는 견해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의 결재와 경찰청의 검열 및 인쇄 허가를 받은 11월 23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Шабанов А.Е. Передвижники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 товариществом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СПб., 2015, сс. 27-28.; Гольдштейн С.Н.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1869-1899 Письма, документы. в 2 т. М., 1987. т.1, с. 334.

9) 이동파 창설 회원은 총 15명으로 교수 3인, 아카데미 출신 8인, 상급 화가 3인, 화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래 현장 전문 번역본 주석 \*) 참고.

5항. 이동파 회원은 전시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신의 그림을 출품해야 한다.

참고. 이동파는 전시회의 품격을 크게 높이고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작품일 경우 이미 전시회에 출품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이동파 업무 관리

6항. 이동파 업무는 그 회원 총회와 이사회가 관리한다.

7항. 총회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에 일 년에 한 번 개최한다. 그 외 총회는 이동파 재적 회원의 1/3이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8항. 총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이사회가 제출한 연간 보고서 검토; b) 회원 임명과 선출; c) 전시회 개최 시간과 장소 결정; d) 이동파 수입 장부 확인; e) 재정 상태 증명; f) 이사회에 모든 활동 감사

9항. 총회에서 제기된 모든 안건은 표결을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10항. 이사회 회원은 이동파 회원 중에서 1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동파는 페테르부르크 지부와 모스크바 지부 두 개의 지부로 구성된다. 이사회에 소재지는 두 도시 중에서 회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한다. 두 도시의 회원 수가 같은 경우 이사회 소재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1항.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이사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이사회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이동파 회원 중에서 대신 참석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2항. 이사회에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전시회 경로 지정; 전시회 장소 선정; 전시회 안내원에게 설명서 제공; 출품자 간 수익 분배 시 기준이 되는 그림 평가; 전시회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매; 전시회 입장표 가격 결정; 이동파 회원에 대한 대출 결정 및 지급; 장부 관리; 재정 보존; 전시회 개최와 이동 전체 관리.

13항. 이사회는 전시회 개최 시 출품작 중 구매자에게 즉시 인도 가능한 작품과 전시회가 원래 출발 장소로 복귀한 후 인도 가능한 작품을 결정한다.

14항. 이사회는 어느 한 지부의 추천에 따라 이동파 회원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15항. 각 지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전시회를 위한 예술 작품 채택권을 가진다.

16항. 이사회뿐만 아니라 각 지부의 모든 안건은 표결을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 이동파 재무

17항. 이동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해 발생한다.: a) 전시회 입장권 요금 b) 예술 작품과 출판물 판매금에서 5% 공제.

18항. 이동파의 재정을 직접 보존하고 이사회가 허가한 대출 제공을 위해 회원 중에서 회계원을 선출한다.

19항. 전시회가 종료된 후 만약 순수익이 전시회 개최 및 이동 경비와 판매 품목의 5%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이사회에 작품 평가에 부합하여 출품자 간에 서로 분배한다. 상기 5%로 조성된 금액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할 수 없는 이동파 회원에게 대출을 지급하기 위해 할당된다.

20항. 이동 전시회 기간 동안 모든 예술 작품은 화가 자신이 직접 지정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1항. 총회에서 선출된 인물은 이동파가 비용을 대고 이동 전시회에 동반한다.; 필요한 경우 그 인물이 직접 선택한 보조자를 붙여준다. 이 두 인물은 총액수와 예술 작품의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주어진 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22항. 전시 작품의 판매 가격은 화가가 직접 결정한다.

23항. 본 현장에 수정이나 추가 사항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그 사항을 승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요청한다.

24항. 이동파의 활동이 청산되는 경우, 본 조합의 모든 금전적 요구를 보상하기 위해 각자 5% 납입한 액수에 부합하여 현 회원과 전 회원 간에 서로 분배한다.

인쇄 허가됨. 상트-페테르부르크. 1870년 11월 23일. A. 윈스터 석판 인쇄소. 바실리에프 섬. 2번가. № 7.

총 4절 24항으로 구성된 현장의 제1절 ‘이동파 목적’의 제1항에는 ‘제국의 모든 도시에서 이동 미술전시회를 개최해 화가들의 작품 판매를 쉽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절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동파 구성 Состав Товарищества’절에는 이동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중개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업 화가로만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동파는 두 개의 기관 즉 동등한 권리를 가진 회원들의 총회와 연간 이동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이사회가 상호협력하여 업무를 관리했다. ‘이동파 재무 Касса Товарищества’절에는 이동파의 사업, 표 판매 금액으로 전시회 이동비 충당, 작품 판매 금액에서 5% 수수료 징수 등 재정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수수료는 이동파 기금의 지분 형태로 화가가 소유권을 가졌다. 회원들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거나 연간 전시회 표 판매 금액에서 각종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을 정산받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동파는 각 지방의 순회 전시회에 전문가를 고용해 동행했다. 이처럼 현장의 세부 내용에서 이동파의 구성 특징과 신선한 전시 기획을 통한 경제적 수익의 기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아카데미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러시아 미술 전시회를 조직하여 당시 화가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즉 과제와 목표가 잘 명시된 이 공식 문서를 통해 전통 예술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적 신념을 공표하기 위한 것보다는 매우 상업적인 전시 기획을 목표로 이동파가 창설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동파 창설의 주된 목적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명확하기 대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단체 창설과 관련된 상황뿐만 아니라 참여 예술가들이 결정한 전시 프로그램과 향후 활동에 영향을 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동파는 내무부의 등록을 거치고, 그들에

게 부여된 제한 사항 내에서 운영되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동업자 관계를 맺는다는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는 특이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 구조를 현대화하고 유동성을 촉진한 1860년대의 거대한 자유주의 개혁의 여파로 등장한 그러한 파트너십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산물이자 현상이었다. 정부가 국가의 모든 생활 양식을 현대화할 능력이나 재정이 없음을 인식한 개혁자들은 사회 자체의 생명력을 북돋우고, 지방 권력이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sup>10)</sup>. 이 정책은 예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당시 전문가와 예술 애호가들 간의 상부상조 사상이 유행했으며 그 결과 몇몇 선도 단체와 협회가 탄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동파였다. 이 단체나 협회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억압적인 핵심 규범은 변화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 협회, 조합, 연합체와 기타 유사 모임을 만들거나 조직할 수 없었다. 새로운 조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헌장 작성, 조직의 목표 규정과 재정 기반 확정뿐만 아니라 담당 관리의 복잡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출판물은 발행 전에 미리 담당 검열관의 검열을 거쳐야만 했다. 이동파의 경우에도 전시회 공고를 제외한 모든 출판물, 헌장, 카탈로그와 공개 보고서에 ‘검열 통과함’이라는 문구가 찍혀있었다.

실제로 이동파는 정부의 불필요한 질문을 피하고자 헌장에서 미학적 신념 선언을 거부하고 상업적이고 미학적으로 중립적인 자기표현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이동파 회원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연합하였는가? 이에 관해 이동파 창설에 관한 화가들의 3통의 서신 내용을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의 화가 6인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화가 아르텔에 보낸 1869년 11월 23일 자 서신으로 주석이 달린 헌장 초안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마소예도프(모스크바 화가 집단 대표)가 크람스코이(상트-페테르부르크 화가 아르텔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다. 두 번째 서신은 1870년 2월 2일 자료 참가자들의 의심과 기대를 적고 있다. 1870년 9월 21일 자의 세 번째 서신에는 창설자들이 조합 등록을 신속하게 하도록 정부 내 사적인 인맥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헌장 초안 버전이 등록 버전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로 판단해 보면 약 1년 동안 그 내용보다는 헌장 등록 및 조합의 활동 시작과 관련된 일을 논의했다<sup>11)</sup>.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신에는 두 가지 문제 즉 1)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전시회 사업과 2)이 조합의 발족과 관련된 정치적 또는 사회적이고 경력적인 위험(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sup>12)</sup>.

이동파 활동의 상업적 측면에 특히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예술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향후 전시회 프로그램을 언급한 서신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9일 자 초대 서신에는 최대한 많은 화가를 모집하기 위해 헌장 초안과 더불어 ‘적어도 예술계에서 어떤 명성이

10) Freeze G.L., “Reform and Counter Reform. 1855-1890”, Russia. A History. Oxford. 1997, p. 180.

11) Шабанов А.Е. Передвижники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 товариществом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СПб., 2015, сс. 31-32.

12) Гольдштейн С.Н.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Письма, документы, в 2 т. М., 1987. т.1., с. 51-55.

라도 가진 모든 화가는 만약 원한다면, 이동파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그림을 출품한 화가는 스스로 책임지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최자가 되는 전시회의 유용성’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관료 질서’로부터 예술의 해방과 ‘기타 모든 예술 격려 단체로부터 이동파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sup>13)</sup> 모든 단체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위주의 국가에서 전시회 활동을 사유화하려는 민간 계획은 쉽게 정치색을 띠 수 있으므로 두 도시의 화가들은 이 위험과 관련된 평가에서 명확하게 나뉘었다. 2월 2일 자 편지를 보면 명확해지는데 그 당시 모스크바 화가들은 새로운 계획에 열광했지만, 페테르부르크 화가들은 이를 우려하며 기존 아르텔 내에서 이동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다. 모스크바의 마소예도프는 페테르부르크의 크람스코이에게 ‘우리의 겁과 소심함 때문에 실제보다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고 쓰고 있다<sup>14)</sup>. 두 도시의 화가들은 1863년 페테르부르크 미술계에서 발생한 ‘14인의 반란<sup>15)</sup>’ 사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페테르부르크 화가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지만, 모스크바 동료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sup>16)</sup>. 예술계에서 최근의 성공적인 선례로 인해, 만약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타협과 소동없이 즉 ‘뱀처럼 현명하고,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진행된다면, 정부의 기존 전시회 독점과 경쟁하는 위험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모스크바 화가들은 확신했다<sup>17)</sup>.

이동파 창설자들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단체의 창립을 고수했다. 페테르부르크 아르텔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화가 중 크람스코이와 레모흐만이 이동파에 합류하였다. 다시 한번 편지에 관해 언급하자면, 사적인 서신 거래에서도 이동파 창설의 예술 원칙에 관한 논의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동미술전람회조합’이라는 공식 등록 명칭 또한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이 단체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헌장을 통해 완전한 행정과 경제적 자립을 단체의 원칙으로 공표한 이동파는 1870년 12월 16일 개최된 제1회 총회에서 역사적인 첫 전시회 준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3) Там же. с. 51-53.

14) Там же. с. 54.

15) 1863년 11월 9일 크람스코이를 포함한 14인의 학생이 시험 주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으나 주최 측에서 이를 무시하자, 황금 메달 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아카데미를 떠난 사건이다.

16) 비밀경찰은 반란자들이 포함된 단체를 은밀히 감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창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화가 아르텔의 등록을 마침내 허가했다. 아르텔은 1863년 설립되었지만, 등록 절차는 1865년 6월 9일까지 계속되었다. 등록된 이유는 아마 시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정치성을 띠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크람스코이는 ‘아카데미 사건’이라는 제목의 1863년 편지에서 마치 그 사건의 리더가 아니라 목격자인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반란의 급진성을 최대한 낮게 평가하려고 애쓰고 있다. Крамской И. Н., Письма, статьи, в 2 т. М., 1965, т. 1, с. 273-275. 이 편지는 크람스코이의 사후인 1888년 스타소프가 서간문을 엮어 출판하면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17) Гольдштейн С.Н.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Письма, документы, в 2 т. М., 1987. т.1., с. 53-54.

### III. 나가며

이동파는 1870년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1923년까지 53년간 존속하면서 러시아 미술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단체이다. 1871년 첫 전시회를 개최한 후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무려 48차례의 정기순회전을 열었다. 비평가 스타소프는 이동파를 이상적이고 미학적인 단체로 높이 평가했다. 이후 많은 비평가들이 스타소프의 영향을 받아 이 단체의 예술성과 혁신성에만 주목하는 비평을 답습했다.

이후 서구권에서는 70년대 말부터, 러시아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이동파를 복합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철저히 상업성을 추구한 단체로 정의하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동파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이동파 현장이다. 특히 현장의 첫 번째 쪽에 명시된 ‘이동파 목표’는 지방 주민에게 러시아 미술을 소개하고, 미술에 대한 애호심을 고취시키며 화가들의 작품 판매를 용이하게 한다고 적혀있다. 이동파 업무 관리와 이동파 재무에 관한 절에서도 상업성과 관련된 항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

이동파가 정부의 불필요한 질문과 검열을 피하고 정식 등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학적 신념 선언을 거부하고 상업성을 표명하며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동파 화가들의 서신에서 예술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전시회 프로그램을 논의한 부분을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이동미술전람회조합’이라는 정식 등록명에서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단체가 창설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 참고문헌

- Беляева О.Ф. Передвижники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указатель литературы. Л., 1955.
- Варшавский Л.Р. Передвижники. Их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искусстве. М., 1937
- Гомберг-Вержбинская Э. Передвижники. Л., 1970.
- Гольдштейн С.Н. Товарищество передвиж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Письма, документы, в 2 т. М., 1987.
- Зотов А.И. Ру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М., 1971.
- Крамской И. Н., Письма, статьи, в 2 т. М., 1965, т. 1,
- Стасов В.В., ‘Двадцать пять лет рус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В. Стасова, в 3 т. СПб., 1894, т.1.
- Федоров-Давыдов А.А. Ру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М., 1929.
- Шабанов А.Е. Передвижники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 товариществом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СПб., 2015.
- Freeze G.L., “Reform and Counter Reform. 1855-1890”, Russia. A History. Oxford. 1997,
- Valkenier E.K. Russian Realist Art. The State and Society: The Peredvizhniki and Their Tradition. Ann Arbor, 1977.
- 김가영. 러시아 이동파, 대의와 생계 사이에서. 『미술사학보』. 2022. № 58.
- A.I. 조토프. 이건수 역. 러시아 美術史, 동문선, 1996.

문학/역사 분과

문화/역사 분과 B:  
전쟁 이후의 세계와 기억의 문제  
- 기억의 재구성과 재정립 -

사회: 류한수(상명대)

- ▶ 전쟁의 역사와 역사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165
  - 발표: 신보람(전북대)
  - 토론: 구자정(대전대)
  
- ▶ 우크라이나 전쟁 이주와 인구 위기 ..... 175
  - 발표: 이문영(서울대)
  - 토론: 고광열(서울대)
  
- ▶ 전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역사적 쟁점에 관한 양국의 역사관 변화 양상의 일고찰 ..... 183
  - 발표: 이광태(한림대)
  - 토론: 송준서(한국외대)
  
- ▶ 학살마는 어떻게 “자유의 민주 반공투사”가 되었나? - “뉴욕의 아이히만?” 미콜라 레베드와 냉전 초기 미국의 대소련 우크라이나 공작 - ..... 193
  - 발표: 구자정(대전대)
  - 토론: 송준서(한국외대)



# 전쟁의 역사와 역사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신보람 (전북대)

## 우크라이나 전쟁과 역사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
  -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안보 위협
  -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서방의 위협과 왜곡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무력 공격
  -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보호
  - 우크라이나 내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네오나치 세력 경계
- 본 연설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한 근거 및 정당화 논리가 러시아 정부의 역사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Напомню, в 30-е годы прошлого века Запад фактически открыл нацистам путь к власти в Германии. А в наше время из Украины они стали делать «анти-Россию». Проект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новый. Люди, которые хоть немножко погружаются в историю, знают прекрасно: этот проект уходит корнями ещё в XIX век, его взращивали и в Австро-Венгерской империи, и в Польше,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 одной целью – оторвать эти историче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называются Украиной, от нашей страны. Вот в чём эта цель. Ничего нового нет, никакой новизны, всё повторяют."*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20세기 30년대에 서방은 사실상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반(反)러시아'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프로젝트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폴란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키워졌으며, 그 목적은 오늘날 우크라이나로 불리는 이 역사적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 연설문 중

## 우크라이나 전쟁과 역사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역사적 기원 및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와 더불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역사 인식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Digital Humanities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도구(빈번도 검사, 공기어 분석, 감성분석 등)를 활용하여, 러시아 정부의 역사 인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교 관계 (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분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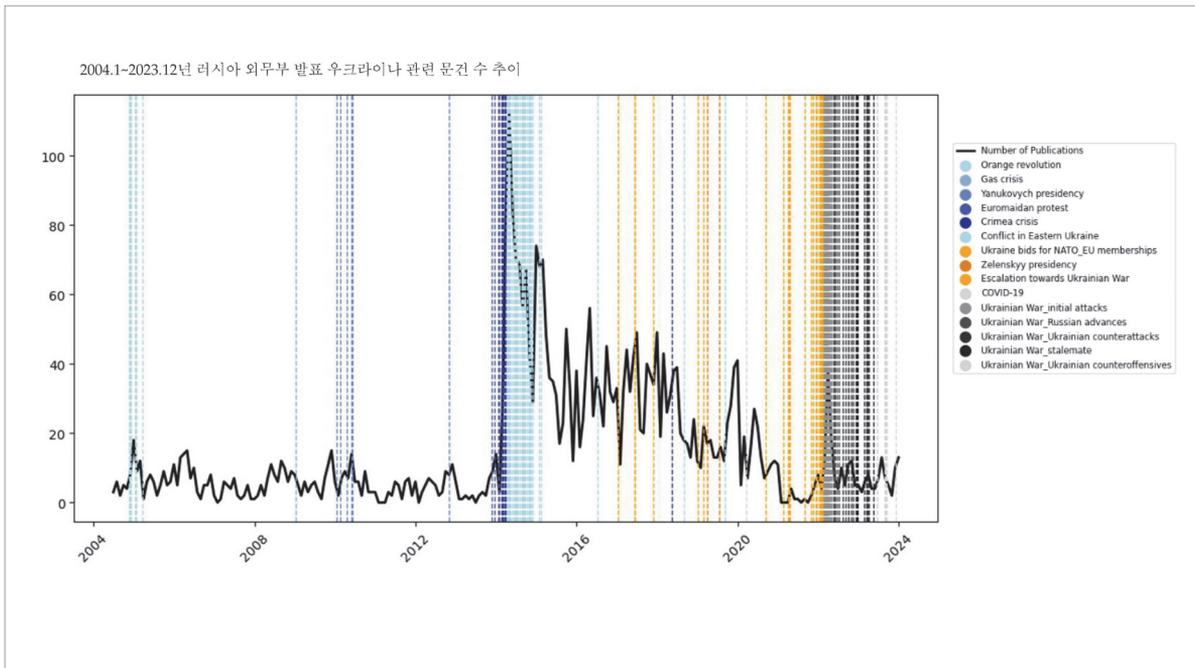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 시기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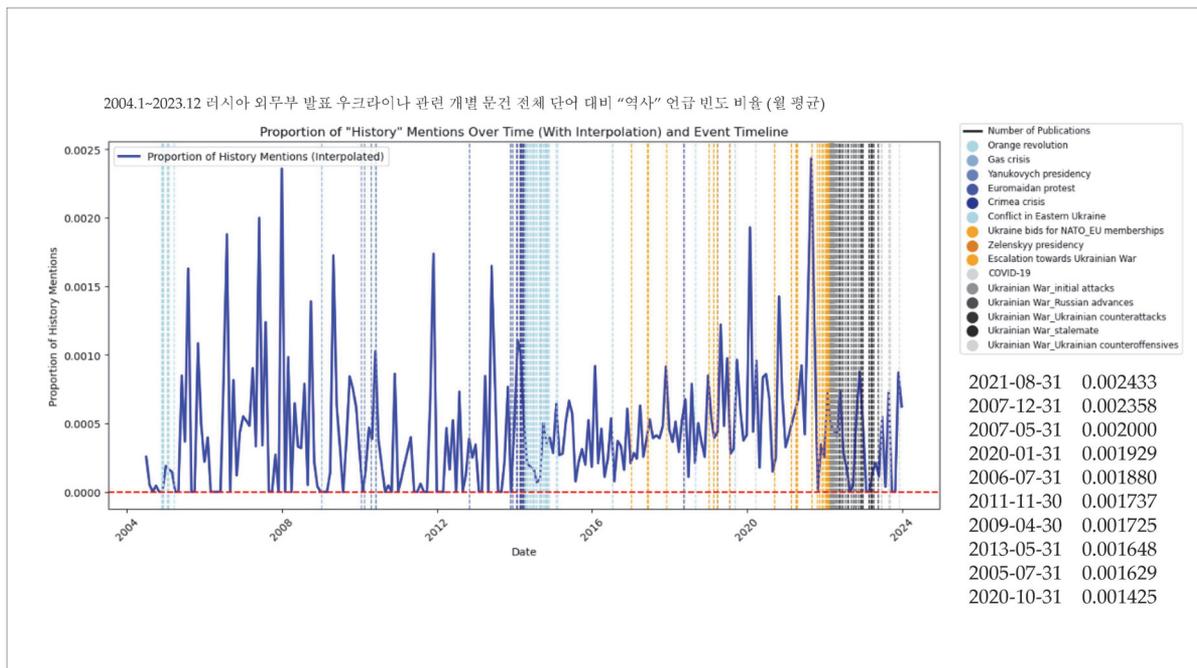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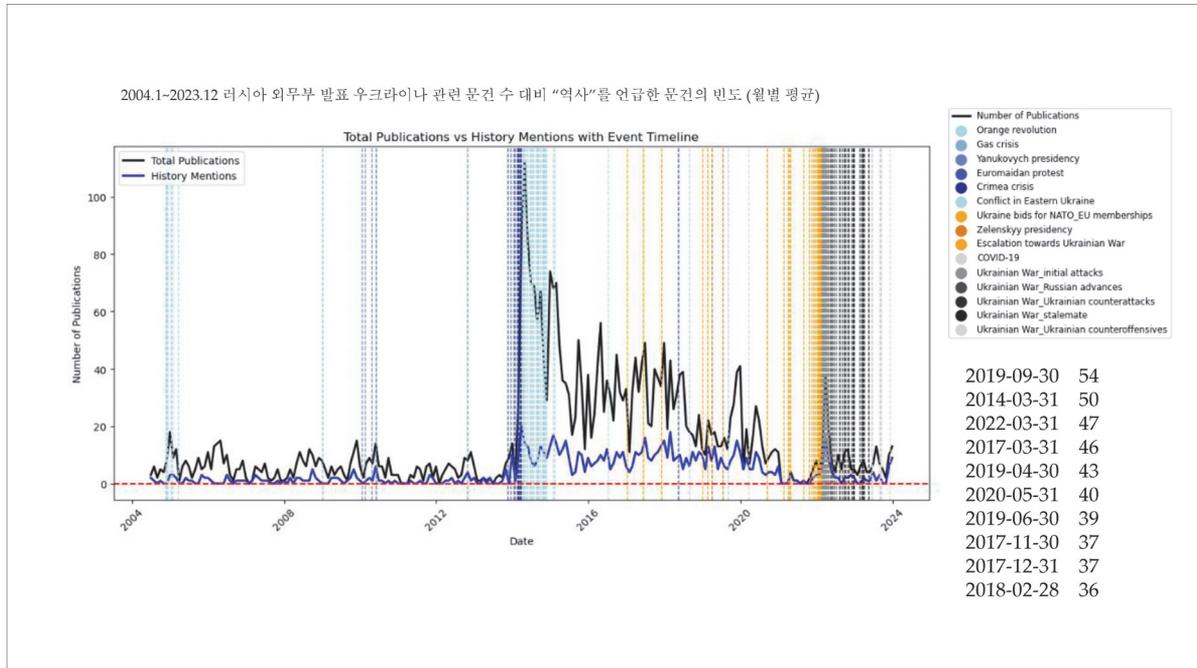
시기 (Date) 2004~2022	사건 (Events)	시기 (Date) 2022~	사건 (Events): 우크라이나 전쟁 (War in Ukraine)
2004.11~2005.03	오렌지 혁명 (Orange Revolution)	2022.02~2022.05	침공초기 (Initial Attacks)
2010.01~2012.10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임기 초 (Yanukovich Presidency)	2022.05~2022.08	러시아군 진격 (Russian Advances)
2013.11~2014.02	유로마이단 혁명 (Euromaidan Protest)	2022.09~2022.11	우크라이나군 반격 (Ukrainian Counterattack)
2014.02~2014.03	크림 사태 (Crimea Crisis)	2022.12~2023.05	교착 상태 (Stalemate)
2014.04~2019.09	동우크라이나 분쟁 (Conflict Eastern Ukraine)	2023.06~2023.12	우크라이나군 공세 (Counteroffensive)
2017.06~2022.01	우크라이나의 NATO/EU 가입 추진 (Ukraine Bids for NATO_EU Membership)		
2019.03~	젤렌스킨 대통령 임기 (Zelenskyy Presidency)		
2021.04~2022.02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Escalation towards Ukrainian War)		

## Dataset

- 2004년 1월~2023년 12월 러시아 외무부 (МИД РФ) 공식 웹페이지에 공개된 대외자료 (보도자료, 대변인 및 외무장관 인터뷰 등) 중 “우크라이나” 혹은 “키예프”가 2회 이상 언급된 영어 문건 수집
- 2004년 1월 ~2020년 12월 문건 출처: Harvard Dataverse
- 2021년 1월~2023년 12월 문건 출처: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themes/824670/](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themes/824670/)
- 총 3552건 문서를 대상으로 분석 진행
- 이 중 “History”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서 978건 추출

문건제목	발표일 (년-월-일)	문건내용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remarks at the ambassadorial roundtable discussion of settlement in Ukraine, Moscow, November 8, 2023	2023-11-08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accepting our invitation to hold a second...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answers to questions for the Moscow, Kremlin, Putin programme, Astana, 2023-11-09	2023-11-09	Question: Will you comment on the recent report according to which the OSCE...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s answer to media question about improper storage of nuclear waste at the...	2023-11-10	Question: There has been information that dangerous radioactive waste at the...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answers to questions from the Moscow, Kremlin, Putin programme, Novosibirsk, 2023-11-12	2023-11-12	Question: Regarding the acceleration of Ukraine's progress towards EU membership...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remarks and answers to media questions at the Primakov Readings Intern. Forum, Moscow, 2023-11-27	2023-11-27	Mr. Dyakonov, colleagues. Your Excellencies! See many friends in the audience. Thank you...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remarks and answers to media questions at the Primakov Readings Intern. Forum, Moscow, 2023-11-27	2023-11-27	Applicants vying to get th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 the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participation in the upcoming OSCE Ministerial Council in Vienna, Austria, 2023-11-30	2023-11-30	On November 30 and December 1, the OSCE Ministerial Council will meet in Vienna...
Press release 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meeting with Hungari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Budapest, 2023-11-30	2023-11-30	On November 30,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met with Hungarian...





## 빈도수 분석 (문건 당 언급 수)

날짜	제목	빈도수
2019-09-04	Briefing by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ria Zakharova, Moscow, September 4, 2019	22
2017-05-04	Speech by General Director Sergey Vyazalov at a gala marking the 72nd anniversary of Victory in the Great Patriotic War, Moscow, May 4, 2017	19
2020-01-30	Briefing by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ria Zakharova, Moscow, January 30, 2020	18
2014-03-18	Vladimir Putin addressed State Duma deputies, Federation Council members, heads of Russian regions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in the Kremlin	17
2008-02-12	Transcript of Remarks by Russi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at the Myrdal Lecture, Geneva, February 12, 200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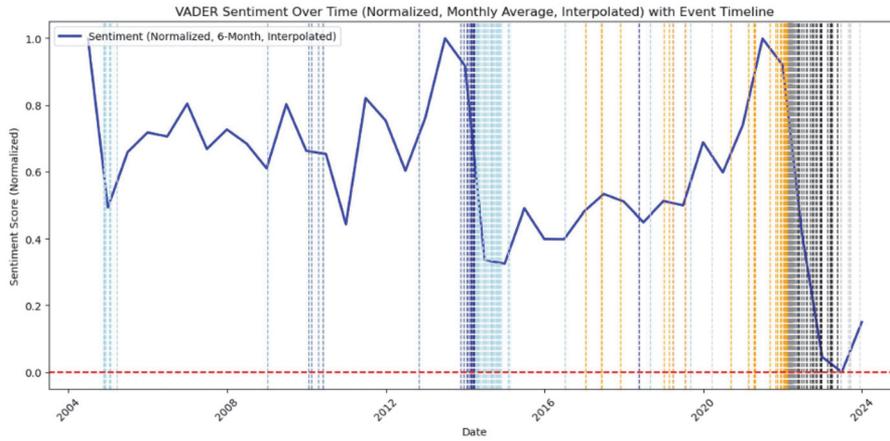
## 빈도수 분석 (문건 당 언급 비율)

날짜	제목	빈도비율
2014-02-27	Comment by the Information and Press Department of the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situation in Ukraine	0.013514
2018-05-13	Comment by the Information and Press Department on celebrations of Victory Day in Ukraine	0.012658
2014-09-09	Handover ceremony of a Red Star order belonging to a Soviet war hero, who died during the liberation of Kiev in 1943, and which was found during a search	0.012195
2019-09-26	Comment by the Information and Press Department on attempts to rehabilitate Nazism	0.011737
2019-04-23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remarks at the presentation of the documentary collection, Crimea in the development of Russia: history, politics and diplomacy. Documents from the Foreign Ministry's archives, Moscow, April 23, 2019	0.01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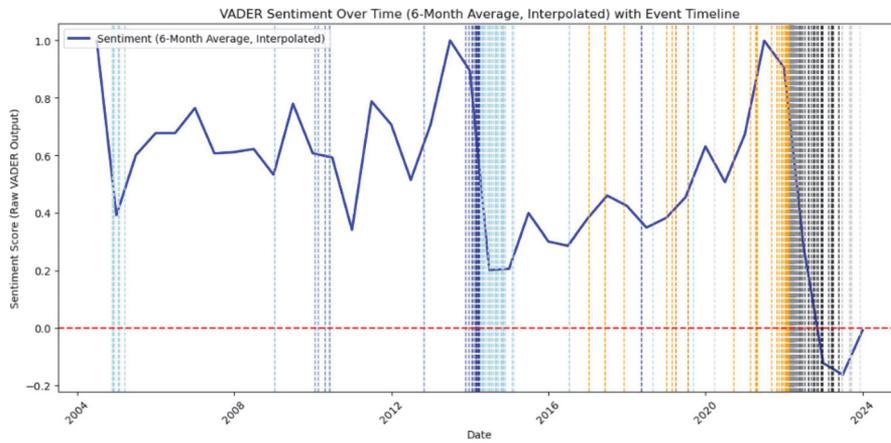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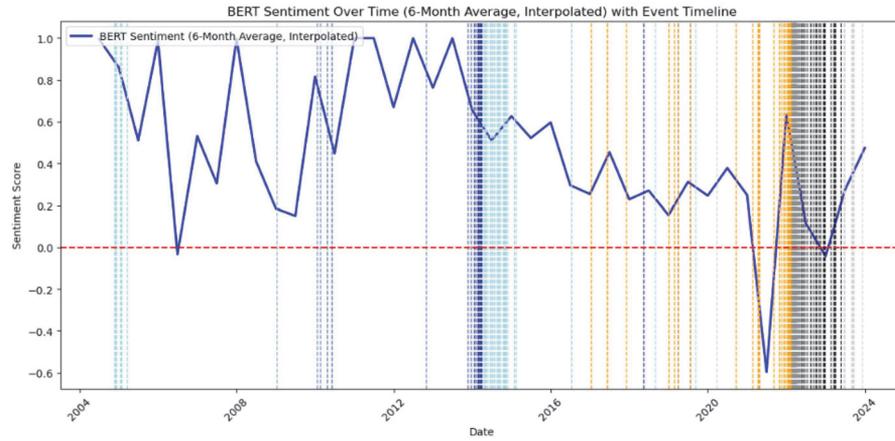
2004.1~2023.12 러시아 외무부 발표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 중 “역사”가 언급된 문건에 대한 VADAR 감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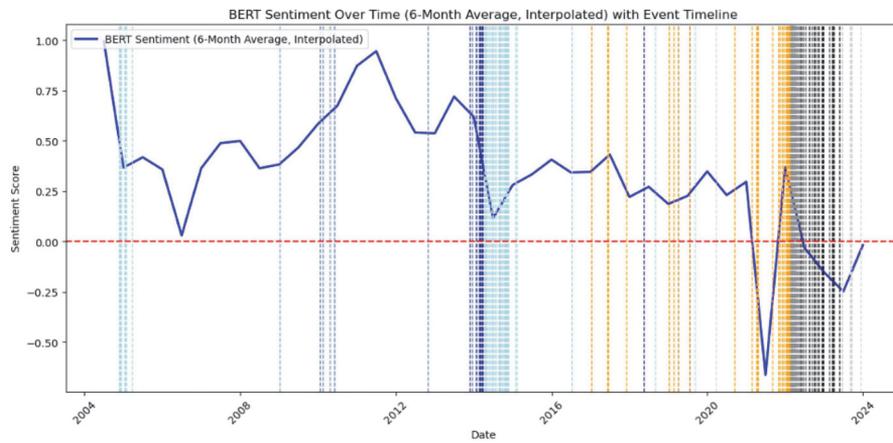
2004.1~2023.12 러시아 외무부 발표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에 대한 VADAR 감성 분석



2004.1~2023.12 러시아 외무부 발표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 중 “역사”가 언급된 문건에 대한 BERT 감성 분석



2004.1~2023.12 러시아 외무부 발표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에 대한 BERT 감성 분석





# 우크라이나 전쟁 이주와 인구 위기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Crisis in Ukraine

### \* 경제

- GDP: 3.4%(2021) → -29.1%(2022) → 4.8%(2023)
- 빈곤률: 5.5%(2021) → 24.2%(2022) → 23.1%(2023)
- 실업률: 16.1%(2023)

### \* 인구 위기: 국외 피난민 (700만) + 국내 실항민(500만)

- 실질적 GDP 생산인구 = 9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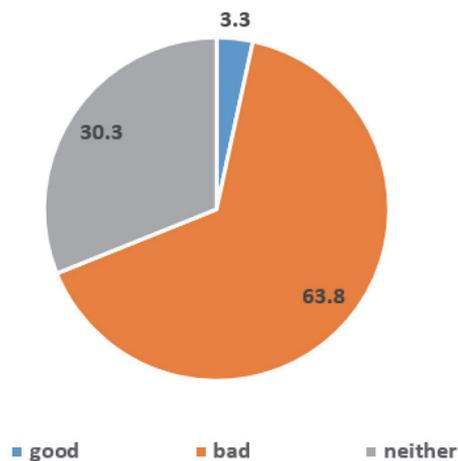
### → '이대로 가면 GDP 생산인구가 사라질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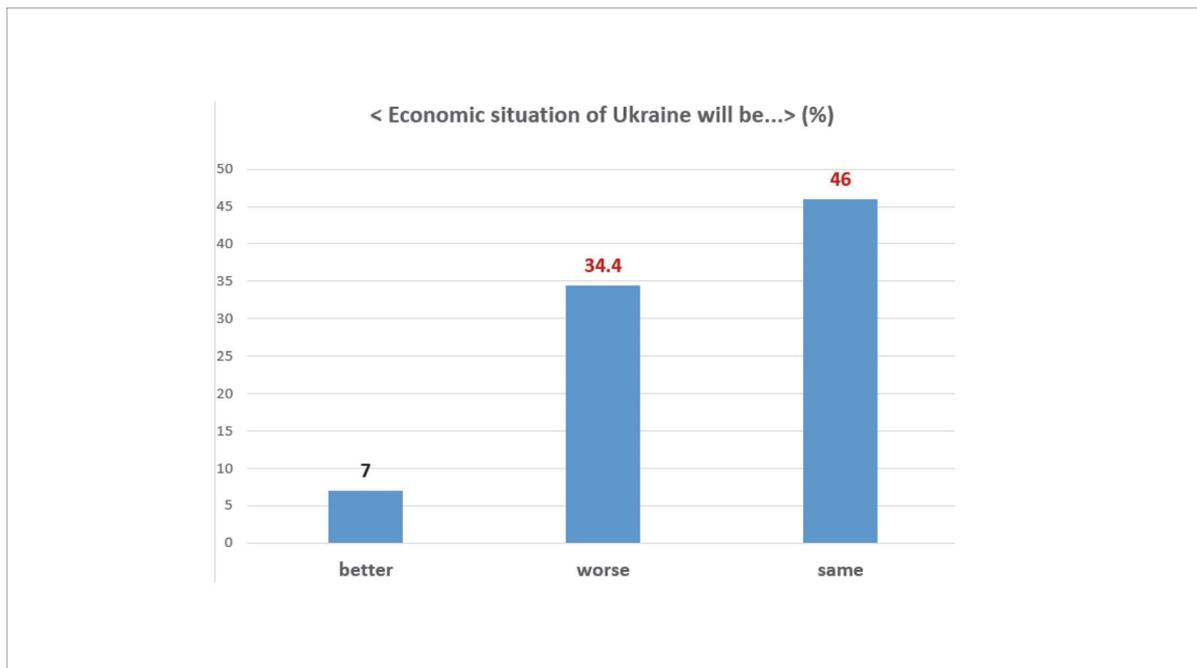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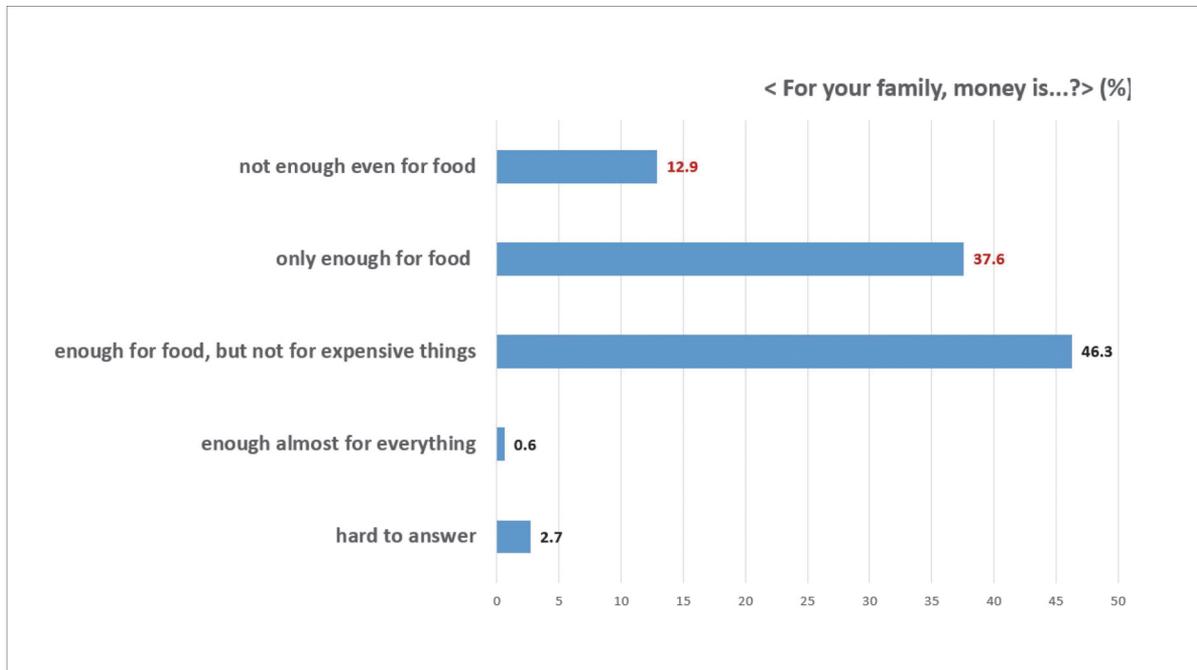
'최악의 경우 우크라는 인구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우크라는 '영토나 사람이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 \* Opinion Poll in Ukraine (Razumkov Center, June 2024)

<Economic situations of Ukraine (%)>





◎ 부패 & 징집 기피

\* 동원법 강화: 연령 하향 (27세 → 25세) & 죄수 모병 개시

\* 새로운 동원법 발효 (2024.5.18.)

: 처벌 강화 & 효율성 강화 / 외국 피난 남성 귀국 유도

: 18-60세 남성, 군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 등록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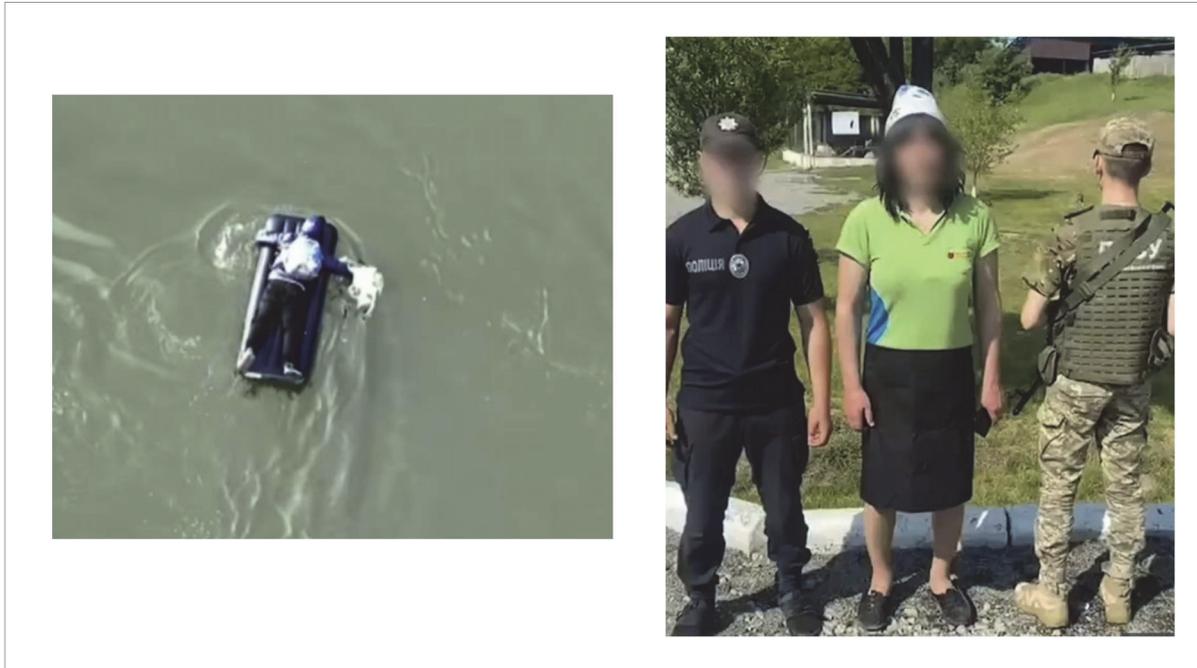
: 군 등록증 상시 소지

: 징집 통지서 우편 발송 & 당사자 수령 확인 여부 불필요

: 위반 시, 벌금, 운전면허 정지, 계좌 동결, 자산 억류, 형사처벌...

→ 동원법 반대: 방화, 폭행, 시위 & 징집기피 더욱 확산.





The Economist

Menu Weekly edition The world in brief Search

29 May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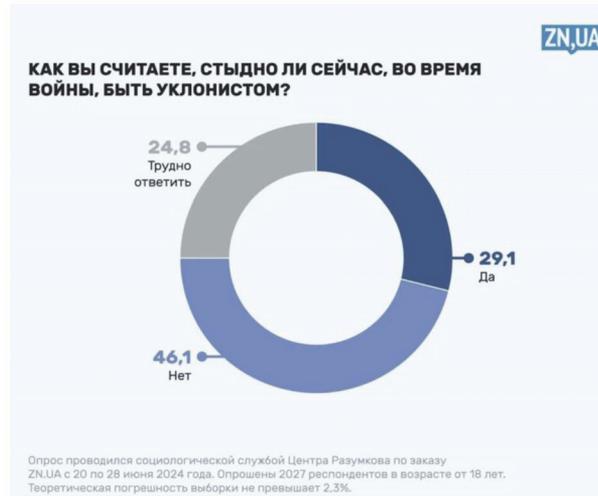
Europe | No way back

## Ukraine's desperate draft-dodgers drown in the river of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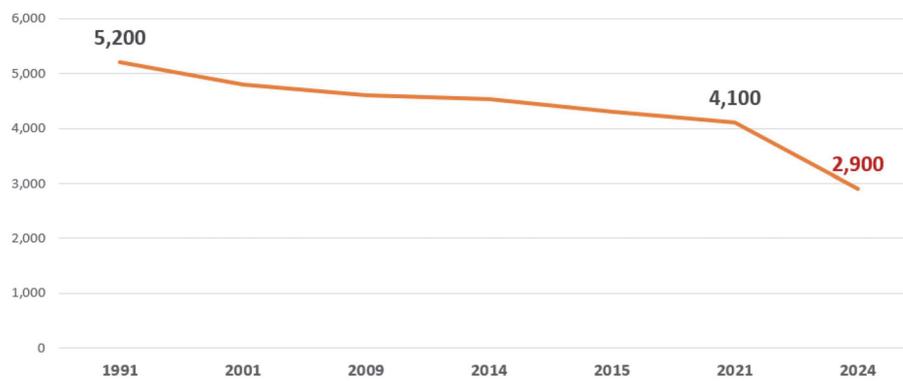
Thousands of military-age Ukrainians are risking their lives by swimming across treacherous wa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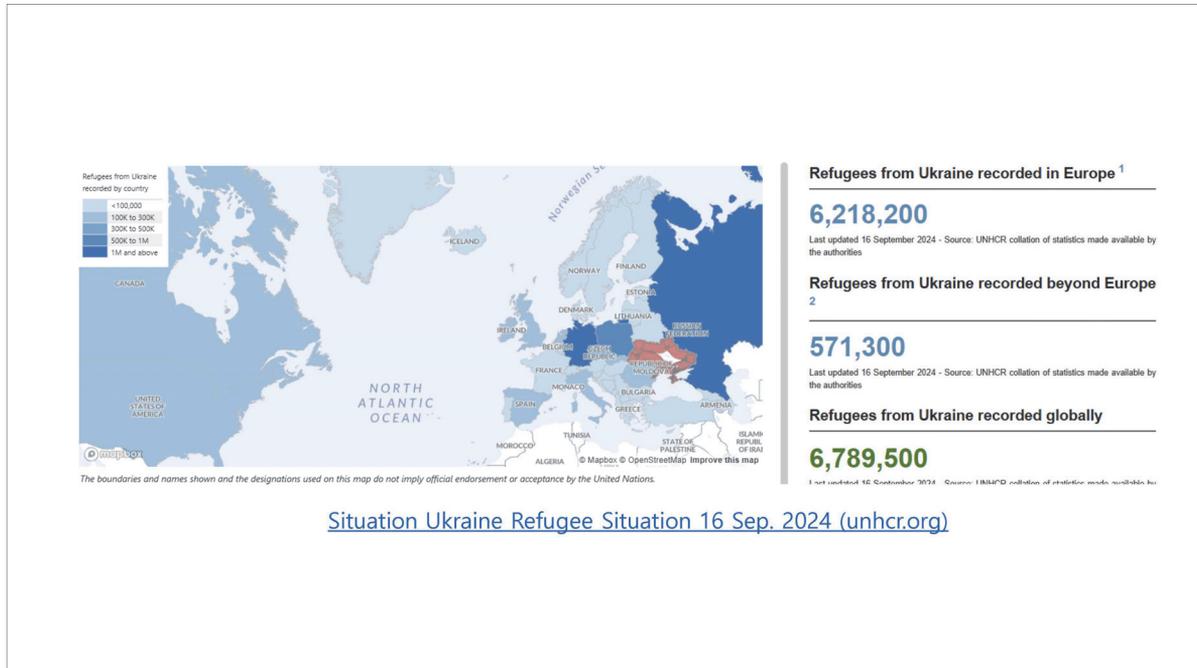
\* “전쟁 중 징병 기피?” (Razumkov Center, June 2024)

= 29% (“부끄럽다”) – 46% (“부끄럽지 않다”) – 25% (“응답 곤란”)



<Demographic crisis of Ukraine> (10,000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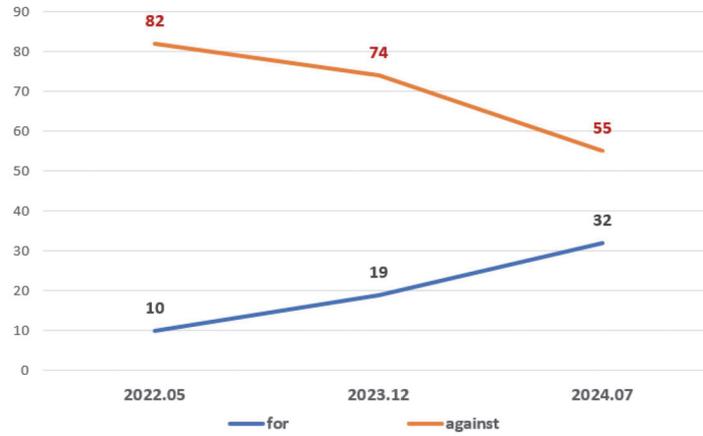
**Countries featured in the Refugee Response Plan**

Country	Data Date	Refugees from Ukraine recorded in country as of date <sup>(1)</sup>	Refugees from Ukraine who applied for Asylum, TP or similar national protection schemes to date <sup>(3)</sup>	Border crossings from Ukraine since 24 February 2022 <sup>(4)</sup>	Border crossings to Ukraine since 24 February 2022 <sup>(5)</sup>
Bulgaria	2024-08-31	66,255	196,660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Czech Republic	2024-08-04	370,980	615,235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Estonia	2024-08-30	36,120	61,620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Hungary	2024-09-17	62,455	46,150	5,585,995	4,692,545
Latvia	2024-09-04	46,520	60,220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Lithuania	2024-09-06	45,070	89,560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Poland	2024-09-11	970,120	1,837,620	24,463,940	22,529,825
Republic of Moldova	2024-09-08	123,185	62,010	1,174,315	943,140
Romania	2024-07-31	162,180	177,220	5,052,540	4,325,225
Slovakia	2024-09-08	125,940	153,845	2,631,780	2,545,670
<b>합계</b>		<b>2,008,825</b>	<b>3,300,140</b>	<b>38,908,570</b>	<b>35,036,405</b>

**Other countries neighbouring Ukraine**

Country	Data Date	Refugees from Ukraine recorded in country as of date <sup>(1)</sup>	Refugees from Ukraine who applied for Asylum, TP or similar national protection schemes to date <sup>(3)</sup>	Border crossings from Ukraine since 24 February 2022 <sup>(4)</sup>	Border crossings to Ukraine since 24 February 2022 <sup>(5)</sup>
Belarus	2024-08-31	53,270	4,525	16,705	Data not available
Russian Federation	2023-12-31	1,227,555	14,970	2,852,395	Data not available
<b>합계</b>		<b>1,280,825</b>	<b>19,495</b>	<b>2,869,100</b>	<b>Data not available</b>

\* <영토 양보> 찬반 여론조사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2022-2024)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ий философ Андрей Баумейстер уверен, что за время войны его стран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тоталитар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Мы попросили объяснить его, что это значит**

14.02, 25 июля 2024 - Источник: Meduza

\* How can this war end, and is Ukraine's victory possible?

: No one know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But **Ukraine cannot defeat Russia on the battlefield.** Everything is going to lead to territorial losses. However, it seems to me that Russia also faces very serious consequences after territorial acquisitions, which will be presented to Russians as a "victory". The country will lose the opportunity to be innovative, modern, and the one they are focused on. **Everyone will lose: Ukraine and Russia.**

\* What could be a victory for Ukraine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 There are so many answers to this question, and each one implies someone's manipulative and propagandistic position. I will answer as I think. **Now the victory for Ukraine is to save people and think strategically about the possibility of recreating the country. The longer the war lasts, the less Ukraine has the opportunity...** Now it seems that **Ukrainian politicians do not understand this.**

# 전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역사적 쟁점에 관한 양국의 역사관 변화 양상의 일고찰\*

이광태 (한림대)

## I. 머리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특히 양국의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으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sup>1)</sup>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단순한 전쟁의 설명을 넘어 전쟁의 해석, 그리고 전쟁의 수단으로서 역사 서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이후 양국에서 출간된 역사 서적의 논조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탕을 이루는 전쟁 담론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논조는 이른바 ‘근외지역(Ближнее зарубежье, 영어로는 Near Abroad)’의 국가들에도 확장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전공하는 발표자에게 현재 양국을 둘러싼 역사 담론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역사 전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본 발표는 당초 역사서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담론과 레토릭 가운데 특히 전쟁 발발 이후 강화된 부분을 식별해낼 의도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전공하는 발표자에게는 다소 벅찬 일임을 절감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출간된 도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었다. 따라서 본 발표는 2022년 이후 출간된 대표적인(그 선정은 자의적이지만) 역사서를 선별하여 그 주요 논지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철저하고도 총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양국 역사 담론의 전반

1) 본 발표문은 2024년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작성된 미완성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서도 2022년 전쟁과 양국의 역사적 경험 사이 관계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박영사, 2023); 송준서, 『우크라이나의 2차 세계대전 경험: 지역별 상이성과 분열의 씨앗』, 『슬라브연구』 제40권 1호 (2024), pp. 62~102; 윤종희, 「소련의 해체와 ‘지연된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기원」,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8, no.1 (2024), pp. 109~132; 이은채·장익현, 「우크라이나 영토분쟁에 관한 사(史)적 연구: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과 대안』 제8권 2호(2024), pp. 65~86.

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가 마중물이 되어 향후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II.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역사 담론

우크라이나 내 역사서 출판은 전시 상황 중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역사서의 재출간 작업으로 『1932-1933년 우크라이나인들의 제노사이드: 재판 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Геноцид українців 1932-1933 за матеріалами досудових розслідувань)』(Право)가 2022년 새롭게 출간되었다. 원래 2021년 미콜라 헤라시멘코(Микола Герасименко), 올렉산드르 비탈리오우치 페트리신(Олександр Віталійович Петришин), 올레샤 스타슈크(Олеся Стасюк)에 의해 집필·출간된 이 책은 홀로도모르의 희생자를 1천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이를 스탈린에 의한 악의적인 인종청소로 강조하는 기존 우크라이나 학계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종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홀로도모르 희생자 집계 수치가 명백한 과장 및 부풀리기라고 비난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학자 헨나디 예피멘코(Геннадій Єфіменко)는 잘못된 자료 수집 및 해석에 따른 홀로도모르 희생자 부풀리기가 오히려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sup>

우크라이나 학자들의 역사 서술은 서구 출판사를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미 2014년 이후 러시아와의 갈등을 관찰하는 서구 독자들을 위해 영어 등 서구 언어로의 출판이 활발했던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도서로 우크라이나계 영국학자인 타라스 쿠지오(Taras Kuzio)의 『러시아 민족주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제정-정교-민족성(Russian Nationalism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Autocracy-Orthodoxy-Nationality)』(Routledge, 2022)를 들 수 있다. 타라스 쿠지오는 역사학자이기보다는 정치학자이고, 이 책도 2022년 전쟁이 아닌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2022년 이전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일부로 보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연원을 제정 및 소비에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력이 푸틴 정부를 통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어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역사 학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학자 중 한 명인

2) С. Кульчицький, Г. Єфіменко, Демографічні наслідки Голодомору 1933 р. в Україні. Всесоюзний перепис 1937 р. В Україні: документи та матеріали / НАН України. Інститу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 К.: Інститу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НАН України, 2003. Hennadiy Yefimenko, “More is not better. The deleterious effects of artificially inflated Holodomor death tolls.” *Euromaidan Press*. Trans. Christine Chraibi. May 1, 2022. <https://euromaidanpress.com/2021/11/05/more-is-not-better-the-deleterious-effects-of-artificially-inflated-holodomor-death-tolls/>

세르히 플로히(Serhii Plokhy)는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The Russo-Ukraine War)』을 출간했다. 모스크바 공국의 키예프 기원설을 ‘신화’로 치부하는 등 우크라이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르다는 논조를 견지하면서, 이번 전쟁이 전체주의(authoritarianism)적 러시아와 민주주의적 유럽 사이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서구 독자들에게 이번 전쟁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계 학자들의 서적들은 서구의 시각 - 특히 서구식 루소포비아 - 을 우선적 주제로 활용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민족 중심 역사관은 중심 주제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영어로 출간된 도서 가운데 우크라이나 중심적 역사관을 강조한 책은 2023년 출간된 이호르 스메시코(Ihor Smeshko)의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에세이(Essays on the History of Ukraine)』(Summit-book)이다. 키이우에서 출간된 이 책의 저자인 스메시코는 공학박사이자 군인 및 정치인 출신인 만큼 역사학자의 새로운 역사 연구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기존 우크라이나 역사학계의 연구를 영어권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치중한다. 저자는 우크라이나의 고대 역사를 그리스-로마 식 민지에서부터 서술하여 우크라이나와 서구 문명 사이 연결을 강조한다. 또한 다른 우크라이나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류리크 왕조의 ‘고트적(Gothic)’ 성격 발언도 인용하고, 키이우(키예프) 루시와 블라디미르-수즈달 중심 모스크바 공국(Muscovy) 사이 단절성을 역설했다. ‘우크라이나’라는 표현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187년이며 그 뜻은 슬라브어로 ‘분리된 부족적 지방(separate, clannish country)’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주장, 표트르 대제가 유럽화를 추구하면서 ‘서부 루시식 루시 문화’를 흡수하고 ‘대러시아식 루시 문화’는 박멸하려 했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키이우의 중세 유럽적 국가가 ‘코자크(카자크) 국가(Cossack state)’로 이어졌으며, 이 헤트만국(Hetmanate)의 민주주의적 제도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전통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로 2차 세계대전 이전 역사에 집중한 이 책은 보다 선명하게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및 학계가 추구하는 탈러시아 및 유럽 편입 역사 강조의 경향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겠다.

### III.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역사 담론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계 역사 편찬 및 담론 형성 작업은 크게 기존 역사서의 재출간, ‘관찬(官撰)’ 역사서의 출간, 고등학교 교과서 개편, 언론인·정치 평론가들의 역사서 출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2022~2023년 재출간된 도서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2015년 스위스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던 기메탕(Guy Mettan)의 프랑스어 원작의 러시아어 역본인 『서구-러시아: 1천년의 전쟁(Запад-Россия. Тысячелетняя война)』(Paulsen, 2017)이 2023년 ACT 출판사에서 다시 출간되었다.<sup>3)</sup> 2019년 출간

된 가이다(Фёд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Гайда)의 『국경과 변경: 그들의 역사 발전 속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의 이해(Грани и рубежи: понятия «Украина» и «Украинцы» в их истор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Модест Колеров)도 2023년 Алетейя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2022년 이후 새로운 역사서 편찬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여 출간한 이른바 ‘관찬’ 역사서의 출현이 두드러진다. 먼저 그리고리예프(М.С. Григорьев), 데이네고(В.Н. Дейнего), 듀코프(А. Р. Дюков), 자소린(С.А. Засорин), 말케비치(А.А. Малькевич), 만코(С.А. Манько), 사포발로(В. Л. Шаповало) 등이 집필한 『우크라이나의 역사(История Украины)』(Москва, 2023)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일종의 외교부 공인 역사서이다. 서론 앞에는 러시아 라브로프(С.В. Лавров) 외교장관은 ‘독자들에게 부치는 말(обращение к читателям)’에 우크라이나 민족-극단주의들과 서구의 ‘관리인(кураторы)’들이 역사적 허구 및 날조를 계속해왔고, 거짓된 역사 해석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떨어져 별도로 발전해왔다는 잘못된 주장을 퍼뜨려왔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하나였음을 부정하면서 두 형제 민족(два братский народ)을 분리하고, 현대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후계국가로 악마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공동의 과거 전통적인 ‘좋은 이웃 관계(добрососедство)’가 포기되고,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간직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위 책을 제작 출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문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반복된다. 우크라이나 및 서구학자들의 주장들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교조주의에 빠져 정치화되었고 반과학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역사적 사실의 의도적인 왜곡, 반러시아적 추측과 날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고대 우크라이나 민족, ‘루시-우크라이나’ 정권, ‘우크라이나’ 공주 안나 야로슬라브나, ‘러시아 식민주의 침략자’에 맞선 우크라이나 민족의 수 세기에 걸친 ‘투쟁’ 등을 지적한다. 또한 바투린 학살이나 홀로도모르와 같은 주제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 책은 1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2장에서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 현대사를 다룬 이후 3장부터 14장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서술한다. 이 책의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및 민족을 러시아 현대사의 산물로 보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 시기에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 대신 ‘남서부 루시 및 갈리치아(Юго-Западная Русь и Галиция)’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현대사의 산물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 역사의 일부로서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차원에서 출간된 ‘관찬’ 성격의 역사서는 2023년 출간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적 일체성에 관하여: 문서들(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3) 이 책의 프랑스어 원제는 *Russie-Occident: une guerre de mille ans*이나, 영어로는 *Creating Russophobia: From the Great Religious Schism to Anti-Putin Hysteria* (Clarity Press, 2017)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우리말로도 2022년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 정치와 서구의 위선』(김창진·강성희 옮김, 가을의 아침)으로 번역되었다.

украинцев. Документы)』이다. 이 책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3건의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 연설문 속 역사적 주장,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한 민족성’에 관한 부분마다 사료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아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러시아 연방 문서고(Феде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агенство)와 러시아 국립 인문학 대학교(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소속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sup>4)</sup> 이 책은 12세기 초 노브고로드에서 제작된 이른바 ‘자작나무 문서(берестяная грамота)’에서부터 1991년 12월 8일 독립국가연합 결성 합의 문서에 이르기까지 총 242건의 역사 문서를 망라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소련 시기 출간된 관찬 역사서의 전통을 따르는 듯한 양식으로 주목할만하다.

또 다른 역사 편찬을 통한 전쟁의 정당성 강화 작업은 2023년 여름 발표되어 당해 9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X-XI класс) 사업이었다. 1914년부터 21세기 초까지를 다룬 이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편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최초의 국정 교과서(«перв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чебник» в России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로 불리며 특히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기존 역사 서술을 개정했다고 알려진다. 집필진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문서 자료에 의거하되, 당시 소련 공산당의 활동 중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강조하는 등 소련 및 이후 러시아 연방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특별히 한 장을 설정하여 설명을 제시한 부분이다. 11학년 교과서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초민족주의 성향의 정부(ультра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로 지칭하고, 오늘날 우크라이나 내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금지 및 탄압을 받고 있으며 “모든 러시아적인 것은 적대시되고 있다”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형제 민족들과 공통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알려주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역사의 날조와 나치즘의 부활이 ‘특별(특수)군사작전’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국정교과서 작업은 역시 러시아 대내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책으로 루브코프(Алекс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Лубков), 아르테모프(Виктор Владимирович Артемов), 루브첸코프(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Лубченков)가 집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꾸밈없는 역사(Россия-Украина, Невыдуманная история)』(Концептуал)가 2023년 마찬가지로 출간되었다. 이 책이 과연 ‘국정교과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나 앞서 언급한 러시아 외교부에서 보급하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여러 면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책 역시 20세기 이전 역사에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소러시아(малороссия)’로 대신 부르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2014년까지 역사를

4) 2023년 당시 러시아 연방 문서고 관장인 아르티조프(А.Н. Артизов)의 책임 편집 하에 아라체예프(В.А. Аракчеев), 베지예프(Д.А. Безьев), 그리고리예프(Е.М. Григорьев), 키릴로바(Н.А. Кириллова), 사디코프(Р.Р. Садыков), 스크로스펠로프(П.П. Скороспелов), 소로킨(А.К. Сорокин), 스테파노프(А.С. Степанов), 차렙스카야-다키나(Т.В. Царевская-Дякина), 에스킨(Ю.М. Эскин), 유라스프(А.В. Юрасов) 등이 집필진에 참여했다.

5) Максим Ширяев. Почему началось СВО на Украине: вот как новый учебник истории объясняет это. News.ru. 7 августа 2023. <https://news.ru/society/novye-uchebniki-po-istorii-cto-rasskazhut-shkolnikam-pro-ukrainu-i-svo/>

다른 7절 다음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다른 8절(раздел, 참고로 이 책에서는 장глава를 사용하지 않는다)의 제목을 “나치즘의 길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Украина на пути к нацизму)”로 설정한 것도 이 책이 지향하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언론인·정치 평론가들의 역사서 출간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논조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위협을 극적으로 확대 묘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24년 출간된 야콥 케드미(Яков Кедми)의 『러시아에 맞선 전쟁. 러시아 문제의 최종적 해결(Война против Росси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русского вопроса)』(Яуза-Пресс)이 그러한 레토릭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계인 케드미는 워싱턴에서 바르샤바에 이르기까지 서방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두 ‘러시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 연방의 몰락과 러시아 및 러시아인들의 멸절(уничтожение)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류의 논조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나치즘’의 부활로 강조하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 메탕의 루소포비아에 대한 역사서와 함께 러시아인들에게 서방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다양한 역사적 해석의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전쟁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러시아의 주류 사학계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학자들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학자들, 특히 역사학자들의 입장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에 출간된 『우크라이나의 역사(История Украины)』(Алетейя)의 집필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 2014~2015년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역사학자들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 문제를 토론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역사가들과 우크라이나 역사가들 사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당시 양국 역사학자들의 공동 역사 편찬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러시아 학자들만이 별도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가들은 서평을 통해 그 내용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러시아 측 집필진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다. 고대사 부분의 집필을 맡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고대사(16세기 이전) 전공자인 이고리 니콜라예비치 다닐레프스키(Игорь Николаевич Данилевский)와 현대사 부분을 쓴 빅토르 미로넨코(Виктор Мироненко)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발표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российские) 학자들 및 학술 언론인(научные журналисты)들의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sup>6)</sup> 또한 위 책의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의 집필을 맡은 타티야나 젠나디예브

6) 이 공개 서한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나 타이로바-야코블레바(Татьяна Таирова-Яковлева)의 경우 전쟁 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우크라이나 역사 연구소장을 맡을 정도로 촉망받는 학자였다. 그러나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지도부를 성토했으며 전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해임당하고 말았다.<sup>7)</sup>

한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푸틴 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작가 및 언론인 역시 러시아 정부의 역사 서술과는 다른 관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하일 빅토로비치 지가르(Михаил Викторович Зыгарь)는 2023년 『전쟁과 처벌: 어떻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했는가(Война и наказание: Как Россия уничтожила Украину)』(Медуза)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17세기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강조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장들이 역사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가르의 경우 반정부인사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그의 역사 서술의 저의가 의심되지만, 러시아 정부와는 다른 관점의 역사 서술이 러시아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российские) 학자들 및 학술 언론인(научные журналисты)들의 공개 서한>

우리 러시아(российские) 학자들 및 학술적 언론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대한 우리 나라의 군사력으로 말마암아 촉발된 전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항의를 표명한다.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보는 막대한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며 기존 국제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유럽 내 새로운 전쟁 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

이번 전쟁을 위해 어떠한 합리적인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 돈바스의 상황을 전투 작전 전개를 위한 이유로 이용하는 시도들은 어떠한 신뢰할 만한 부분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명백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항한 전쟁은 부당하며 솔직히 말해 무의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나라에 가까웠고 지금도 그러하다. 우리들중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친척, 친구 및 학문적 동료들을 두고 있다.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선조들은 함께 나치즘에 맞서 싸웠다. 러시아 연방 지도부의 지정학적 야심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의심스러운 면이 다분한 역사철학적 환상에 기반한 것으로, 선조들의 기억에 대한 냉소적인 배신이다.

우리는 실제 작동하는 민주주의적 제도들에 기반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성을 존중한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유럽식 선거 결과를 이해심을 가지고 대한다. 우리는 우리 국가들 사이 관계의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는 스스로 국제적 고립과 ‘불량 국가(страна-изгой)’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학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의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과학적인 연구의 수행은 다른 나라의 동료들과의 완전한 협력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전망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향후 문화적·기술적 퇴보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막다른 골목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나치즘에 맞서 함께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지금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 ‘방화범(поджигател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정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모든 전쟁 행위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들을 위한 평화를 요구한다.” (번역은 필자)

이 문서에 서명한 인사들은 2023년 1월 4일까지 8489명에 이른다. 공개서한의 내용(러시아어) 및 명단은 <https://tinyurl.com/t-invariant/2022/02/we-are-against-w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СПбГУ уволил главу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Украины, выступившую против войны. Север.Реалии. 30 июня 2022. <https://www.severreal.org/a/spbgu-uvolil-glavu-tsentra-izucheniya-ukrainy-vystupivshuyu-protiv-voyny/31922439.html>.

## V. 맺음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비록 러시아 측에서는 ‘특수작전’이라며 그 규모를 축소하지만, 역사 편찬의 정도와 타겟으로 삼은 독자층의 규모를 보았을 때 전면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부 모두 자국민 및 타국민에 대해 적극적인 역사 편찬을 통한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역사학자, 지식인, 언론인들이 동조하는 모양새이다.

그 논조를 보면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의 역사서는 서구와의 연관성 및 러시아와의 단절성, 러시아로부터 입은 피해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러시아 측 역사서는 푸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친연성, 우크라이나 정부의 나치즘적 성격 및 러시아계 주민의 탄압을 적극 강조한다. 또한 서구의 우크라이나 조종 및 그 속에 담긴 반러, 나아가 ‘멸(滅)러’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나 양국 역사서들 사이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전쟁 반대 서명에 나선 러시아 역사학자들이나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우크라이나 역사학자들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역사 인식 및 해석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의 역사 수단화 작업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과연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전쟁 이후 양국의 역사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2022년 이후 정치의 역사 이용 작업은 분명 종전 이후에도 양국 국민들의 의식과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나아가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 관계에서 역사가 정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미칠 가능성에 대해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Артизов А.Н. ред.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2023.
- Гайда Ф.А. Грани и рубежи: понятия «Украина» и «Украинцы» в их истор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Алетейя, 2023.
- Герасименко Микола, Петришин О.В., Стасюк Олеся. Геноцид українців 1932-1933 за матеріалами до судових розслідувань. Право, 2022.
- Григорьев М.С., Дейнего В.Н., Дюков А.Р., Засорин С.А., Малькевич А.А., Манько С.А., и Шаповало В.Л.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Москва, 2023.
- Зыгарь Михаил Викторович. Война и наказание: Как Россия уничтожила Украину. Медуза, 2023.
- Кедми Яков. Война против Росси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русского вопроса. Яуза-Пресс, 2024.
- Коллектив авторов.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Алетейя, 2015.
- Кульчицкий С., Сфіменко Г. Демографічні наслідки Голодомору 1933 р. в Україні. Всесоюзний перепіс 1937 р. В Україні: документи та матеріали / НАН України. Інститу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 К.: Інститу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НАН України, 2003.
- Лубков А.В. Артемов В.В. и Лубченков Ю.Н. Россия-Украина, Невыдуманная история. Концептуал, 2023.
- Меттан Ги. Запад-Россия. Тысячелетняя война. АСТ, 2023.
- Ширяев Максим. Почему началось СВО на Украине: вот как новый учебник истории объясняет это. News.ru. 7 августа 2023.
-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박영사, 2023.
- 송준서. 「우크라이나의 2차 세계대전 경험: 지역별 상이성과 분열의 씨앗」. 『슬라브연구』 제40권 1호 (2024), pp. 62~102
- 윤종희. 「소련의 해체와 ‘지연된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기원」.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 8, no. 1 (2024), pp. 109~132.
- 이은채·장익현. 「우크라이나 영토분쟁에 관한 사(史)적 연구: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과 대안』 제8권 2호 (2024), pp. 65~86.
- Kuzio, Taras. Russian Nationalism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Autocracy-Orthodoxy-Nationality. Routledge, 2022.
- Plokhyy, Serhii. The Russo-Ukraine War. W. W. Norton & Company, 2023.
- Smeshko, Ihor. Essays on the History of Ukraine. Summit-book, 2023.
- Yefimenko, Hennadiy. “More is not better. The deleterious effects of artificially inflated Holodomor death tolls.” *Euromaidan Press*. Trans. Christine Chraibi. May 1, 2022.



# 학살마는 어떻게 “자유의 민주 반공투사”가 되었나?

- “뉴욕의 아이히만?” 미콜라 레베드와 냉전 초기 미국의 대소련 우크라이나 공작 -

구자정 (대전대)

[미콜라 레베드는 ... 강도이자 불린 [지방]의 도살자다

- 우크라이나 역사가 보흐단 미하일류크 -1)

해당 인물[레베드]은 1948년 이래 CIA와 협력해  
오며 국가정보임무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그의 지식과 인맥은 ... CIA의 작전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CIA 부국장 앨런 델레스 -2)

## I. 들어가는 말

1986년 2월 11일 미국 뉴욕의 주간지, 『빌리지 보이즈(The Village Voice)』 지면에는 미국 정가와 북미 우크라이나 이민 공동체를 뒤흔든 특종 기사 하나가 실렸다. 이 기사는 「나치 사냥(To Catch a Nazi)」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 아래 미국 뉴욕 교외의 한적한 부도심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77세의 한 우크라이나인 이민자 노인에 대한 탐사보도를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었다. 일견 평범한 이웃집 은퇴 노인처럼 보이던 이 우크라이나 이민자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에 부역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악랄한 과거를 가진 거물 전범이었으며, 이

1) 연말에 정식 학술지 논문으로 나오기 전까지 본 발표문 내 내용의 인용을 가급적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 본 발표문 내용의 학술지 정식 게재 전 이용이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본 프로시딩 내 발표문을 반드시 출처로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학술적 이용 및 대중 강연/강의 모두 포함).

1) Bohdan Mihailiuk (1950), *Bunt Banderi*, p. 13

2) C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hereafter cited as “FOIA”), Special Collection 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 (hereafter cited as “NWCDA”), Electronic Reading Room (hereafter cited as “ERR”), “Lebed, Mykola,” Document 22, “Allen Dulles’s Secret Letter to the INS Commissioner,” May 5th, 1952. 델레스가 미국 이민국에 이 극비 서한을 보낸 이유는 레베드를 추방하려던 이민국을 압박하여 그의 미국 체류를 관찰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서한을 보내던 시점에서 알렌 델레스는 CIA의 부국장이었는데, 1953년 2월 26일 국장으로 승진하여 CIA의 최장수 수장으로 냉전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인물을 미국에 데려와 보호한 장본인이 무려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렇다면 나치 독일 부역이라는 문제적 과거를 가진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인가?<sup>4)</sup>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sup>5)</sup> CIA는 이 나치 부역자를 어떠한 이유로 미국으로 데려와 보호하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했던 것인가? 이스라엘의 야드바셈(Yad Vashem)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보관된 홀로코스트 관련 사료와 미군 방첩국(The Counter Intelligence Corps: 이하 “CIC”로 약칭)의 첩보 기록 등 광범위한 문서 자료에 대한 치밀한 취재를 통해, 『빌리지 보이즈』 탐사팀은 이 인물의 정확한 신원 및 과거 행적 중 일부를 확인하고 이 우크라이나 노인이 나치 독일의 자코파네 보안/첩보학교(SiPo/SD-Schule Zakopane)에서 훈련받은 잔학한 사디스트 성향의 나치 부역자임을<sup>6)</sup> 폭로할 수 있었지만,<sup>7)</sup> 안타깝게도 그가 “어떻게” 미국에 왔고 “왜” 왔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사에 담을 수 없었는데, 이는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빌리지 보이즈』의 취재를 어떤 기관이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취재기자가 CIA와 CIC 및 미국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건 열람을 신청했을 때 상당수 문건이 갑자기 기밀로 분류되어 회수되거나 열람이 보류되었으며, 그나마 확인이 가능했던 문건들마저 핵심 내용이 “소독”된 채 공백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것이다.<sup>8)</sup>

3) Joe Conason, “To Catch a Nazi,” *The Village Voice*, Feb. 11th, 1986, pp. 17–21. 레베드는 이미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공인이었으며, 그에 대한 언론보도는 이전부터 몇 차례 나온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레베드를 반공투사 또는 애국시민으로 찬양/포장하는 기획물로, 이 모든 기사는 CIA가 기획한 언론 공작의 일환이었다. 예컨대 Wallace Crouch, “A Russian Priest on His Head,” *Daily Telegraph*, May 7th, 1965; “Mykola Lebed Still Fights for His Country” *News-Weekly*, June 3rd, 1965를 보라.

4) 미국은 레베드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다. 미군 CIC 보고서는 레베드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했다. “[그는] [고문으로] 유명한 사디스트이며 독일인의 협력자이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USA [hereafter cited as “NARA”], RG 319, Entry 134B, Box 457, “Mykola Lebed,” July 22nd, 1947).

5)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 ERR, “Lebed, Mykola,” Document 27

6) Conason, “To Catch a Nazi,” pp. 17–21

7) 1939년 OUN은 나치 독일 당국과의 협력 속에서 계슈타포가 운영하던 “자코파네 보안/첩보 학교”에 120명의 조직원을 파견하여 특별훈련을 받게 했는데, 레베드는 이 훈련생들의 우두머리이자 감독자였다. 자코파네에서는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그리고 일종의 “유희”이자 “놀이”로써 인근 수용소나 계토 길거리에서 유대인을 납치해 고문/학대/살해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장려되었는데, 『빌리지 보이즈』의 취재에 따르면 레베드 역시 나치의 잔인무도한 취미생활에 적극 동참하였으니, “OUN 단원들의 배짱도 독일인 만큼 거칠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심장도 강철같이 단단 하단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OUN 조직원들의 의무”라 주장하던 레베드는, 자신의 나치 교관과 함께 한 “고문 실습” 중 “쇠파이프로 유대인을 구타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살을 불로 지지는 것”에 일말의 주저도 없었으며, 이 행위에 항의하는 동료들 오히려 질타했던 바 있다. 레베드의 잔학행위를 목격하고 그 잔인함에 큰 충격을 받은 그의 동료, 미키타 코스키브스키(Mikita Kosakivs’kii)는 훈련소에서 이탈 후 OUN에서 탈퇴하였으며, 훗날 나치 훈련소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레베드의 범죄적 행각을 고발하는 생생한 증언을 남겼다(*ibid.*, p. 18). 코스키브스키가 남긴 증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osakivs’kii (1977), “Z nedavn’oho minuloho,” *Nashe Slovo*, 5, pp. 69-70을 보라. 한편 자코파네 보안/첩보 학교에서 성행했던 유대인 대상 “납치 및 고문과 살인의 놀이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exander V. Prusin (2007), “A Community of Violence: The SiPo/SD and Its Role in the Nazi Terror System in Generalbezirk Kiev,” *Holocaust and Genocide Studies*, 21-1, pp. 1–30을 보라.

8) Conason, “To Catch a Nazi,” p. 18. 강조는 원문

비록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빌리지 보이스의 기사는 취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기관을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 또한 폭로 속에 담았다. 그 기관은 물론 이 인물을 미국으로 데려온 당사자인 CIA였다.<sup>9)</sup> 그렇다면 CIA가 이토록 집요하게 보호하려고 애쓴 이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의 이름은 바로 “미콜라 레베드(Mykola Lebed)”로, 이 인물은 우크라이나 파시즘 운동의 아이콘,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의 최측근이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이하 “OUN”)으로 약칭)의 방첩 및 첩보조직 “보안국(*Sluzhba bezpeki*)”의 수장인 동시에 반데라 분파(OUN-B) 지도부의 핵심 구성원이었다.<sup>10)</sup> CIA의 방해는 사실 1986년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레베드에 대한 논란 자체는 『빌리지 보이스』의 기사가 나오기 전인 1979년 미국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이하 “OSI”로 약칭)이 수행한 미국 내 나치 부역자 현황 조사 과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CIA의 극비기밀 서류에서 레베드의 이름을 처음으로 찾아낸 인물은 변호사 출신의 OSI 조사요원 존 로프터스(John Loftus)로, 그의 레베드 문건 발견은 전적으로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기밀 해제되지 않는 비공개 극비 문서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가진 OSI 요원의 자격으로 1979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다른 나치 부역자 자료를 찾고 있었던 로프터스는, 문서번호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위치에 (따라서 찾기 힘들도록 마치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잘못” 놓여 있던 대량의 CIA 문건들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문건들은 모두가 “미콜라 레베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레베드란 이름은 로프터스의 조사 대상에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이한 상황에 의아함을 느낀 로프터스는 이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의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었다. 이는 해당 문건의 생산자인 CIA는 물론이고, 무려 OSI의 상급 소속기관인 미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OSI 소속 정부 요원인 로프터스에게 무려 “변호사 면허 박탈과 투옥”을 협박하며 “레베드의 이름을 향후 절대 언급하지 말 것”을 공공연히 요구했었기 때문이었다.<sup>11)</sup>

『빌리지 보이스』의 1986년 기사가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빌리지 보이스』의 「나치 사냥」은 CIA와 미국 법무부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채 미콜라 레베드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의 범죄적 과거까지 공론화시킨 사실상 최초의 보도였기 때문이다. 『빌리지 보이스』의 보도는 나치 부역자 청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킴으로써, 그동안 특급기밀로 분류되어 온 냉전기 CIA의 대소련 우크라이나 공작 관련 일부 문서의 조기 공개를 촉발하는

9) 현재는 일부가 기밀 해제되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로 이관된 CIA의 레베드 관련 문건들과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으로 기밀 해제된 CIA의 문건들은 CIA가 레베드와 관련한 모든 언론보도와 해당 기자들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빌리지 보이스』의 기사가 나오자마자 CIA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레베드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내 여론조작 공작에 착수했다는 사실이다(NARA, RG 263, Entry ZZ-18, Box 80, Folder 2, “Update on Mykola Lebed’s Situation,” April 10th, 1986).

10)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 ERR, “Lebed, Mykola,” Document 1, “Testimony of Demid Chiznevskii”

11) Ralph Blumenthal, “Nazi Hunter Says C.I.A. Has Files On Man Accused of War Crimes,” *New York Times*, Sept. 17th, 1992, p. 10; John Loftus (2010), “Author’s Note” in *America’s Nazi Secret: An Insider’s History*, Waltherville, OR: TrineDay LLC, p. ii; Richard Rashke (2013), *Useful Enemies: America’s Open-Door Policy for Nazi War Criminals*, New York: Delphinium Books, p. 471. 로프터스에 따르면 CIA는 명백히 고의로 이 문건들의 “분실” 또는 “파기”를 의도했다.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빌리지 보이 스』의 기사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이는 레베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OUN의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가 빠져있었기 때문이었으니, 그 범죄란 바로 1943년과 1944년 폴란드 주민을 상대로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OUN-B의 잔인무도한 인종청소 도살, “볼린 대학살(Volin Massacre)”이었다.<sup>12)</sup>

레베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억류된 반데라를 대신하여 OUN-B 조직을 이끌었던 조직의 3인자이자 실질적인 1인자였다.<sup>13)</sup> 볼린 대학살 역시 그가 기획/구상하고 실행한 사건이었으니, 나치 독일에 비유하자면 레베드는 “우크라이나판 아이히만”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예루살렘의 독일인 “원조”와 뉴욕의 우크라이나인 “아류”가 달랐던 것은 전자는 결국 법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 처단되었던 반면, 후자는 북미 우크라이나계 이민자 공동체의 원로이자 민주 반공투사로서 애국적인 미국 시민으로서 사회적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뉴욕커”로서 그리고 (1991년 이후에는) 독립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서 1998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여생을 보낸 점이라 할 수 있겠다.<sup>14)</sup> 반데라는 물론이고 레베드와 더불어 볼린 학살의 또 다른 책임자였던 OUN-B의 4인자이자 UPA의 사령관 로만 슈헤비치(Roman Shukhevich)의 경우, 소련에 의해 추적되어 끝내 처단당하는 불운을 겪었지만, “뉴욕커” 레베드는 당연히 이러한 운명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대한 악마성과 극악무도한 잔인성을 고려하면 레베드의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레베드에 대한 폭로기사가 나온 1980년대의 미국은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나치 연루 혐의가 있다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그 누구든 시민권을 박탈하고 가차 없이 추방하여 엄벌하던, 나치 부역자 청산의 선도 국가임을 자처한 나라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연루 혐의로 무려 2차례나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전대

12) 볼린 대학살에 대해서는 구자정 (2023),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박영사, pp. 204-212를 참조하라. 지금도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남아 있는 OUN-B의 최고 수장, 스테판 반데라는 이 학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었는데, 이는 학살이 시작될 당시 반데라 자신은 조직의 2인자이자 심복인 야로슬라브 스테치코(Iaroslav Stets'ko)와 함께 독일에 억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Petro Balei [1996], *Fronda Stepana Banderi v OUN 1940 roku - prichini i naslidki*, Kiev: [s. n. ], p. 67). 물론 이 학살 자체가 반데라의 허락 없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는데, 반데라는 할리치나 현지 조직과 연락관을 통해 언제나 소통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Filip Ozarowski [1995], *Gdy płonął Wołyń*, Chicago: Wici, *Wołyn Aflame*, trans. by Jan Peczkis from Polish to English [1997], Wici, p. 25 [page citations are to the English edition]). 한편 반데라는 심지어 억류 중에도 할리치나 현지 OUN 조직을 운영하던 레베드에게 독일 측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나치 독일 측과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Evhen Stakhiv [1999], *Kriz tiurmi, pidpillia i kordony*, Kiev: Rada, pp. 99-100). 반데라가 일관되게 견지한 이러한 친독일 스탠스는 전세가 독일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한 1943년 이후 할리치나(Halichina) 현지의 OUN-B 수뇌부에게 큰 반발을 사게 된다.

13) Balei, *Fronda Stepana Banderi*, p. 68;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Lebed, Mykola,” Document 64; Kai Struve (2022), “Theodor Oberländer and the Nachtigall Battalion in 1959/60 - an Entangled History of Propaganda, Politics, and Memory in East and West,” *Slavic Review*, 81-3, p. 697. 조직의 삼인자로서 레베드는 1941년 6월 30일 리보프에서 소위 “민족 혁명”을 통해 선포된 (그리고 독일 측이 허락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파시스트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직을 맡았던 바 있다. 이 정권의 “자칭” 최고지도자는 물론 스테판 반데라였으며, 총리는 야로슬라브 스테치코였다(Balei, *Fronda Stepana Banderi*. p. 67).

14) Anatol' Kamins'kii (2009), *Proloh u kholodnii viini proti Moskvi: Prodovzhennia vizvol'noi borot'bi iz-za kordonu*, Hadiach: Vidavnistvo “Hadiach,” p. 148. 제2차세계대전의 학살 전범 중 무려 “미국 정부의 배려와 보호”를 받으며 생을 마감한 이는 레베드가 유일무이하다.

미문의 진기록을 수립하며 결국 독일로 추방되어 사망한 전 나치 홀로코스트 수용소 경비대원 존 데마뉴크(John Demjanjuk)나,<sup>15)</sup> 역시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소련으로 추방되어 사형당한 또 다른 수용소 경비대원 표도르 페도렌코(Fedor Fedorenko)가<sup>16)</sup> 대표적 사례일 터인데, 『빌리지 보이즈』의 탐사보도 또한 이러한 미국 사회 내 나치 부역자 색출 여론 속에서 나온 기사였다.

말단 경비대원으로 나치 학살 기계의 일개 톱니에 불과했던 데마뉴크나 페도렌코와 달리 레베드는 OUN 학살 기계의 “몸통”이자 “두뇌”인 동시에 “심장”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뉴욕의 아이히만”은 앞에서 언급했듯 어떠한 종류의 처벌도 단죄도 받지 않았으며 임종 시까지 편안한 여생을 누렸으니,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희극적 상황의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바로 그를 미국으로 데려온 당사자인 CIA의 헌신적인 보호가 원인이었다.<sup>17)</sup> 그렇다면 OUN이 자행한 여러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인물을 CIA는 어떠한 이유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낌없는

15) 존 데마뉴크는 1920년 우크라이나 빈니차(Vinnitsa)주에서 태어난 소련군 전쟁 포로 출신의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으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여러 절멸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복무했다. 전후 혼란기 신분을 숨긴 그는 미국의 나치 피해자들을 위한 “1948년 난민법” 수혜자 중 한 명으로 1952년 미국 입국에 성공하였고, 1958년에는 시민권까지 획득하였다. 안정된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던 이 인물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전역을 뒤흔들기 시작한 미국 내 나치 부역자 적발 청산 드라이브 때문이었다. 정체가 발각된 후 오랜 재판 공방을 거쳐 1986년 이스라엘로 추방당한 데마뉴크는 유대인에게 학대와 잔학행위를 일삼은 트레블린카(Treblinka)의 악명높은 경비대원, 일명 “폭군 이반”이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스라엘 법정에서 한때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재송환되었다. 송환 이후 그는 미국 시민권을 회복하였으나, 그가 수용소 경비대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재차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2009년 다시 독일로 추방되었다. 데마뉴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데마뉴크의 사례는 관련 국가 모두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에서 열린 재판의 경우 데마뉴크의 변호사가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염산 테러로 실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바 있다. 이 인물이 수용소 경비대원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가 가혹행위나 학살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며, 말단 경비대원으로 나치 학살 기계의 “톱니”에 불과했던 데마뉴크의 추방과 재판은 현재까지도 큰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존 데마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wrence Douglas (2016), *The Right Wrong Man: John Demjanjuk and the Last Great Nazi War Crimes Tria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를 참조하라.

16) 1907년생인 표도르 페도렌코 역시 소련군 전쟁포로 출신으로 존 데마뉴크와 비슷한 경로를 거쳐 나치 절멸수용소에서 복무했다. 종전 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고 정착한 후 자신의 신분 세탁에 확신을 가지게 된 페도렌코는 과거에 대한 향수로 인해 1974년 “미국인 관광객”의 자격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옛 가족을 만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정체는 KGB에 의해 즉각 발각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국으로 귀국하였으나, 그의 신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소련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국 정부에 의해 10년 후 소련으로 인도되어 1987년 사형당하였다. 페도렌코 또한 데마뉴크처럼 나치 학살 기계의 톱니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그의 경우는 데마뉴크와 달리 실제 홀로코스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여러 잔학행위를 했던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페도렌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hael J. Bazylar & Frank M. Tuerkheimer (2014), “The Trial of Feodor Fedorenko, Treblinka Relived in a Florida Courtroom,” in *Forgotten Trials of the Holocaust*,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pp. 247-274; Andrei Sidorchik (2022), “Delo Chernogo Fedora. Kak ukrainets iz Dzhankoiia stal natsistskim palachom,” *Argumenty i Fakty*, Sept. 19th, [https://aif.ru/society/history/delo\\_chernogo\\_fedora\\_kak\\_ukrainec\\_iz\\_dzhankoya\\_stal\\_nacistskim\\_palachom](https://aif.ru/society/history/delo_chernogo_fedora_kak_ukrainec_iz_dzhankoya_stal_nacistskim_palachom) (검색일: 2024.09.05)을 보라.

17) CIA의 레베드 보호 작전에 대한 전모는 Per Anders Rudling (2017), “‘Not Quite Klaus Barbie, but in That Category,’ Mykola Lebed, the CIA, and the Airbrushing of the Past,” in Norman J. W. Goda, ed., *Rethinking Holocaust Justice: Essays across Disciplines*, Berghahn Books: New York, pp. 158-187을 참고하라. CIA는 심지어 호주 언론에 보도된 기사까지 추적하여 감시할 정도로 집요하게 레베드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따지고 보면 레베드에 대한 첫 고발기사가 『뉴욕 타임즈』와 같은 주류 언론이 아니라 『빌리지 보이즈』와 같은 지역 군소언론에서 나온 것부터가 CIA가 심혈을 기울인 여론 공작의 성과로, 레베드에 대한 폭로가 소련의 흑색 선전에 의한 것처럼 미국 내 여론을 기만한 CIA의 작전은 성공을 거두고 처벌 여론은 곧 사그라들게 된다.

경제적 원조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끝까지 철저히 보호했던 것일까?<sup>18)</sup> 학살 기계의 말단에 자리한 일개 톱니는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 (심지어 구체적 학살 가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과 처단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던 바로 그 미국 정부가, 왜 학살의 본체이자 주범이며 잔혹한 살인마였던 진정한 학살 전범에게는 왜 그토록 관대하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인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그것도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가장 약한 자들의 생명만을 집중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도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앗아간 도살자이자 악명높은 홀로코스트 부역자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조국에 충성하는 “애국적 미국 시민”인 동시에 악의 제국 소련과 싸우는 “민주 반공투사”이자 “자유의 전사(Freedom Fighter)”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주지하듯 미국과 나치 부역자 간 문제적 관계는 오래전부터 북미와 유럽의 현대사학계와 냉전 사학계에서 증점적으로 다뤄져 온 주제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첫 본격 연구 성과가 출현할 만큼 학계의 조명에 늦었는데,<sup>19)</sup> 그 이유는 관련 자료들이 극비기밀로 취급된 탓에 CIA 문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으니, 뒤늦게나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빌리지 보이즈』에 의한 문제의 첫 공론화 덕분이었다. 이후 나온 관련 연구들에는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들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파시즘 그 자체의 악마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치 독일에 딸린 조연 내지는 종범”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안에 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었다.<sup>20)</sup>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자들과 CIA 간 관계 그 자체를 증점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은 2001년으로, 그 시작은 바로 제프리 버즈(Jeffrey Burds)의 연구였는데,<sup>21)</sup> 이 논문이 가지는 기념비적인 연구사적 가치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버즈의 글에는 2000년대 이후 새롭게 기밀 해제된 문건들에 대한 검토가 반영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새로이 공개된 자료에 기반하여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연구들 또한 소수 존재하나, 이 연구들은 빼어난 연구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으로 영어권 자료에만 의존한 채 우크

18) 미국 입국 후 레베드의 생계를 책임진 것은 CIA였다. 2000년대에 공개된 CIA의 극비 문서에 따르면 1976년 1월 23일 CIA는 은퇴를 앞둔 레베드에게 대략 5만 8천 달러(현 물가로 환산 시 대략 32만 달러[한화로 4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노후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했던 바 있다(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Lebed, Mykola,” Document 40). 1980년대에도 레베드는 약 2만 달러 상당(현 물가로 환산 시 약 5만 7천 달러[한화로 약 8천만 원] 해당)의 금액을 매년 생활비로 보조받았다(*ibid.*, Document 44). 이와 같은 CIA의 극진한 예우와 보살핌 덕분에 “뉴욕의 아이히만”은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19) Christopher Simpson (1988), *Blowback: America's Recruitment of Nazis and Its Effects on the Cold War*, London: Weidenfeld & Nicolson. 레베드 문건의 첫 발견자였던 로프터스 또한 관련 저작을 남겼으나(Loftus, *America's Nazi Secret*), 훈련된 전문 역사 연구자가 아니라 법학 전공 변호사였던 그의 연구에는 적지 않은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되기에 그의 저작에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물론 로프터스의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다면, (그가 추정하) CIA의 의도대로 레베드 관련 문건들이 “분실” 처리되어 이 문제가 영원히 망각되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또한 이 인물이 『빌리지 보이즈』의 폭로 이전의 유력 제보자로 추측되기에, 로프터스의 기여는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20) 예컨대 Richard Breitman & Norman J. W. Goda (2010), *Hitler's Shadow: Nazi War Criminals, U. S. Intelligence, and the Cold War*, Washington, D. 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을 보라.

21) Jeffrey Burds (2001), “The Early Cold War in Soviet West Ukraine, 1944-1948,” *Carl Beck Papers in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1505, pp. 1-70. 버즈의 연구는 주로 소련 문서고의 자료에 의존하였다.

라이나인 전범 자신들이 남긴 사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나,<sup>22)</sup> CIA와 우크라이나인 전범들 간 문제적 관계 중 CIA에 의한 “과거 세탁”에만 집중하는<sup>23)</sup> 아쉬움이 있었다. 세계 학계의 상황이 이렇진대 우리 학계의 상황이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학살 범죄자들이 아예 “민족 영웅”으로 찬양받고 있는 현재의 우크라이나에서<sup>24)</sup>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현 러시아에서조차 해당 주제는 자료 접근성의 문제로 거대한 연구 공백 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니, 이 논문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세계적인 연구 공백을 메우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글이 학계 동료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추가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훗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증오의 씨앗”을 뿌린 냉전 시기 미국과 우크라이나 파시스트 간 협력의 구체적 양상을 밝혀냄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에 자리한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서 주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계 북미 “우크라이나학”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로 유포되고 있는 “신화의 민낯”을 샅샅이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II. “학살자,” 미콜라 레베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미콜라 레베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서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반테라를 대신하여 OUN 반테라 분파 조직<sup>25)</sup>을 이끈 실질적인 지도자였다.<sup>26)</sup> 1909년생으로 우크라이나인

22) 영어 자료에만 의존하는 문제는 많은 냉전사 연구들과 국제정치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예컨대 Francesco A. Cacciatore (2021), “Re-evaluating the Émigrés: Intelligence Collection and Policy-making in the Early Cold War,” *Journal of Intelligence History*, 20-2, pp. 126-145; Cacciatore & Stephen Long (2023), “One Size Does Not Fit All: Rollback Orthodoxy and Anglo-American Covert Action in Albania and Ukraine in the Early Cold Wa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4, pp. 599-619를 보라.

23) Rudling, “Not Quite Klaus Barbie,” pp. 158-187

24) 이에 대해서는 고희열 (2024), 『검은 땅의 경계인: 우크라이나 도시 역사문화 기행』, 프시케의 숲을 보라.

25) 1929년에 출범한 OUN은 초대 수장 예브헨 코노발레츠(Evhen Konovalets)가 암살된 1938년 이후, 노장층으로 구성되어 점진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멜닉(Anrii Mel'nik) 분파(OUN-M)”와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보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선을 추구했던 “반테라 분파(OUN-B)”로 분열되었다. 크케는 OUN 조직의 정통성 문제, 작게는 나치 독일 당국이 OUN에 후원한 자금 관할 및 사용 문제를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갈등으로 비화하였고, 1941년 6월 독소전 발발 후 독일군 점령하 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은 서로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나치 홀로코스트에 참여하면서도, 같이 학살을 수행하는 상대 조직원에 대해 납치와 고문 및 암살을 주고받던 양 조직 간 격렬한 내전의 무대가 되었다. 이 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aroslav Antoniuk, Volodimir Trofimovich & Liliia Trofimovich (2020), “Orhani Bezpeki OUN(M) u period druhoi cvitovoi viini,” *Ostroz'ka akademiia*, 30, pp. 29-35를 보라.

26) Lev Shankovs'kii (2009), “Initsiativnii komitet dlia stvorennia Ukrainsk'koi holovnoi vizvol'noi radi, postannia i diia v 1943-1944 rr. - spohad i komentar -,” in P. J. Potichnyj & M. Posivnych, ed., *Litopis UPA - Ukrainsk'ka holovana vizvol'na rada*, kn. 7, L'vov & Toronto: Litopis UPA, p. 53; Petro Mirchuk (1970), *Roman Shukhevich (hen. Taras Chuprinka) - komandir Armii Bezsmertnikh*, Toronto: Tovarnstvo kolishnikh voiakiv UPA v ZSA Kanadi i Evropi, p. 173. 정확히 레베드는 1943년 5월 13일까지 정식으로 OUN-B의 최고지도자 대행 직을 맡았다(*ibid.*). 이날 이후 로만 슈헤비치가 공식적으로는 이 직위를 승계하며 OUN-B는 레베드의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형식상 변모하였으나, 군사 분야 전문가이던 슈헤비치가 UPA의 조직화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UPA의 창설자 레베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도자로 군림하며 불린 대학살을 진두지휘하였다.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레베드는 학생 시절부터 서부 우크라이나의 파시즘 학생운동 조직에서 적극 활동한 전형적인 “학생운동권” 출신 파시스트였는데,<sup>27)</sup> 레베드가 자신의 악명을 처음으로 떨친 계기는 1932년 할리치나(Halichina)의 주도 리보프(L’vov) 인근 소도시의 한 우체국에서 벌어진 UVO의 소위 “징발작전(*Ekspropriatsiia*)”이었다. “징발작전”은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을 위한 재원 획득을 명목으로 OUN의 전신, UVO(*Ukrains’ka Viis’kova Orhanizatsiia*: 우크라이나 무장전투단)<sup>28)</sup> 폴란드령 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의 우체국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무장강도 행위”에 붙인 이름이었으니,<sup>29)</sup> 1932년 11월 30일 리보프 인근 소도시 호로독-야하일론스키(Horodok-Iahailonskii)의 우체국 금고를 습격하여 현금을 강탈한 사건의 주 기획자가 바로 이 무렵 23세의 청년이었던 미콜라 레베드였다.<sup>30)</sup> 레베드는 또한 1934년 폴란드 내 무장 브로니스와프 피에라츠키(Bronisław Pieracki) 암살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이기도 하였다.<sup>31)</sup> 이처럼 제2차세계대전 발발 전부터 “무장 강도질”과 “암살”을 포함한 일련의 전방위적 테러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레베드는, 앞서 언급했듯이 나치 독일의 자코파네 보안/첩보학교 “유학”을 거치며 고문과 학살 기술을 연마한 후 1940년 2월에는 새로이 창설된 OUN의 방첩조직이자 첩보조직 “보안국”의 수장직을 맡았고, OUN의 분열 후에는 보안국 내 자신의 부하 대부분과 함께 반테라 분파에 가담한 후 즉시 조직 내 서열 3위의 OUN-B 핵심 지도자가 되었다.<sup>32)</sup>

보안국의 수장으로서 레베드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수령(*Providnik*)” 스테판 반데라의 영도 아래 우크라이나 민족 혁명의 단일 대오로 끌어드리는 혁명적 “선전 선동”의 과업이었다. 오랜 학생운동 경력자로서 일찍부터 이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던 레베드는 자신의 업무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 독소전 초기 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유대인을 겨냥하여 벌어진 우크라이나 민중의 “학살 축제,” 포그롬(Pogrom) 역시 그의 선동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sup>33)</sup> 1941년 7월 초 역시 독일군 점령 하 리보프에서 벌어진 폴란드 지식인 학살 사건도 레베드

27) NARA, RG 319, Entry 134B, Box 457, “Personality Report, Lebed, Mykola,” December 29th, 1947; NARA, RG 263, Entry ZZ-18, Box 80, Folder 1, “Questionnaire Submitted to Mr. Lebed in Connection with Clearing His Name with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 April 8th, 1952 (hereafter cited as “Questionnaire”). 수많은 폴란드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폴란드인과 결혼한 우크라이나인마저 대량 학살한 볼린 대학살의 기획자였던 레베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이 우크라이나-폴란드 혼혈이었다. 그의 외가는 폴란드 술라흐타의 후손으로 카톨릭 신앙을 가졌으나, (모친이 “우크라이나화”했다는 그의 자술서로 판단하면) 적어도 그의 어머니는 결혼과 더불어 우니아트 신앙으로 개종했던 것으로 보인다(*ibid.*). 한편 OUN-B 지도부는 그 구성원 전원이 김나지움과 직업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 급진적 파시즘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pp. 183-188을 보라.

28) UV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bid.*, pp. 158-161을 참고하라.

29) Alexander J. Motyl (1985), “Ukrainian Nationalist Political Violence in Inter-War Poland,” *East European Quarterly*, 19-1, p. 49

30) Mirchuk, *Roman Shukhovich*, p. 47. 이 강도 행위의 기획은 레베드가, 총기 등 무장의 준비와 참가자 인선은 로만 슈헤비치가 맡았다(*ibid.*, pp. 47-48).

31) NARA, RG 263, Entry ZZ-18, Box 80, Folder 2, “Report on the Assassination of Minister Pieracki”; NARA, RG 319, Entry 134B, Box 457, “Personality Report, LEBED, Mykola,” December 29th, 1947;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 ERR, “Lebed, Mykola,” Document 3

32) *Ibid.*, Document 1

가 주도한 독일 정보당국과 OUN-B 보안국 간 연합작전이었다.<sup>34)</sup> OUN 초대 수장 예브헨 코노발레츠(Evhen Konovalets) 암살 후 분열된 OUN 조직 양 분파 간 내전에서 과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의 동료이자 선배였으나 이제 반대파가 되어버린 다수의 OUN-M 계열 인사 암살과 납치/처형을 기획하고 집행한 인물도 역시 레베드였던 것이다.<sup>35)</sup> 독소전 초반의 이른바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트”에서도 나치 독일 당국이 조직한 우크라이나인 민병대와 보조 경찰(*Schutzmannschaft*)에 OUN-B 조직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이들을 홀로코스트의 실질적인 집행자로 만든 것 또한 레베드(및 슈헤비치)의 기획이었으며,<sup>36)</sup> 홀로코스트를 피해 숨어 있던 극소수의 유대인 생존자마저 모두 찾아내 아예 유대인의 뿌리를 뽑으려고 시도한 OUN-B의 자체적인 유대인 사냥 및 학살도 레베드의 작품이었다.<sup>37)</sup> 물론 레베드의 악마적 경력은 홀로코스트와 포그롬 그리고 무자비한 정적 납치 및 암살로 끝나지 않았다. 사실 레베드의 악마성이 가장 번뜩인 기획은 “우크라이나 봉기군(*Ukrains'ka Povstans'ka Armia*: 이하 ‘UPA’로 약칭)” 출범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독립 투쟁의 일환으로 본격 실행에 옮겨진 “불린 대학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봉기군”은 OUN-B의 군사조직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만, UPA란 명칭 자체는 원래 OUN-B의 착상이 아니었다. 이는 OUN-M 계열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타라스 불바-보로베츠(*Taras Bul'ba-Borovests'*)가 자신의 근거지인 우크라이나 서북부 폴레시예(*Poles'e*)에서 나치 독일 당국의 조력 아래 조직한 민병대, “폴레시예 시치(*Polis'ka Sich*)”를 뿌리로 한 소규모 무장 조직의 이름에서 “우크라이나 봉기군”이란 명칭이 유래하였기 때문이다.<sup>38)</sup> 물론 보로베츠의 원조 UPA는 이 명칭을 강탈한 OUN-B의 무장 조직, “OUN

33)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Lebed, Mykola,” Document 69. 한편 레베드는 1961년 익명으로 출판한 저작물, 『1941년 여름 우크라이나에서 공산주의 모스크바가 저지른 범죄』를 통해 리보프 포그롬에서 OUN이 저지른 범죄의 실상을 감추려고 시도했는데, 그 방식은 포그롬을 소비에트 정권의 “프로퍼간다”로 몰아가며 유대인 학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Mykola Lebed] [1961] *Zlochini komunistichnoi Moskvi v Ukraini vlti 1941 roku*. New York). 한편 리보프 포그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pp. 199-204를 보라.

34) Roman Volchuk (2002), *Spomini z peredvoiennoho L'vova ta voiennoho Vidnia* Kiev: Kritika, pp. 89-90. 이 작전으로 리보프에 거주하던 25인의 폴란드인 대학교수와 그들의 가족 17명이 학살당했다.

35) 예컨대 OUN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수장 예브헨 코노발레츠의 최측근, 야로슬라브 바라노프스키(*Iaroslav V. Baranovskii*)를 암살한 주역이 바로 레베드였다(*Mihailiuk, Bunt Banderi*, p. 57). 이처럼 레베드는 독일 점령하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진 OUN-M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암살을 실제 기획/집행한 책임자였다. 원래 레베드는 반데라 분파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과격한 인물로 유명했는데, 예컨대 반데라 본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조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OUN의 창설자, 코노발레츠에 대해서도 레베드는 그를 일찍부터 “[지도자라기 보단] 학교 선생이나 어울리는 인물”로 평가절하하며 OUN의 분열에 일조했던 바 있다(*ibid.*, p. 13). 레베드의 이러한 과격성과 잔인성 때문에 OUN-M 계열 인사들은 레베드를 매우 혐오했으니, 레베드 및 그의 후견인 CIA의 치밀한 은폐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행한 잔학한 온갖 범죄행위들이 상세히 기록에 남아 있는 것 또한 부분적으로 재의 우크라이나인 공동체 내 분열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OUN 활동가들은 자신의 소속 조직이 저지른 범죄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했지만, OUN-M이 저지른 범죄는 OUN-B 계열의 인사들이, OUN-B가 자행한 범죄는 OUN-M 계열의 인사들이 상세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36) OUN 조직원들은 두 분파 모두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지만, 유대인 살해 자체보다는 “훈련된 병력과 무기의 확보”가 OUN 수뇌부가 휘하 조직원들의 나치 보조 경찰 및 민병대 참여를 독려한 주된 이유였다.

37) NARA, RG 85, Entry P3, Box 5, “Mykola Lebed,” Folder 1, Arnold D. Margolin, “Report on Mykola Lebed”

38) Balei, *Frona Stepana Banderi*, p. 104, p. 107; Taras Bul'ba-Borovests' (1981), *Armia bez derzhavi: slava i trahediia*

군사국(*Viis'kovi Viddili OUN*)<sup>39)</sup>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대였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이란 명칭에서 보이듯, 특정 이데올로기 또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아우르고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 명칭을 자신들의 조직명으로 항상 선호했던 OUN-B는, 자신들의 군사 조직 또한<sup>40)</sup> “우크라이나인 인민 전체의 민족 봉기”란 의미를 담아 “우크라이나 봉기군”으로 명명하고자 했으나, 문제는 이 명칭이 OUN-M 소속 볼바-보로베츠의 부대에 의해 이미 선점되어 있다는 것이었다.<sup>41)</sup> 레베드는 물론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1943년 3월 15일 OUN-B의 무장 조직 OUN 군사국을 UPA로 개명하며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봉기군”을 출범시켰고,<sup>42)</sup> 이에 따라 서부 우크라이나에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두 개의 무장 조직이 출현하였으나 두 UPA의 공존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타 정파도 허용하지 않았던 OUN-B의 정책상 보로베츠의 부대 같은 OUN-M 계열 무장세력의 존재, 그것도 같은 이름을 쓰는 무장 조직의 존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에 대한 레베드의 해법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부대의 통합(실질적으로는 흡수)을 통해 UPA란 명칭의 “이양”을 볼바-보로베츠에게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두고 1943년 4월 9일 양자 간에 열린 협상은 이른바 “폴란드인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근본적인 견해차 때문에 난항에 부딪혔다.<sup>43)</sup> 홀로코스트에 적극 협력한 OUN-M 소속으로 그 자신부터가 오랜 나치 부역자였던 볼바-보로베츠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레베드와 많은 것을 공유하던 인물이었지만 적어도 폴란드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레베드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외려 볼바-보로베츠는 협상장에서 OUN-B 측 제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레베드에게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 친나치 홀로코스트 부역자를 격분하게 만든 사안은 바로 폴란드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레베드가 제시한 방식의 극단성과 과격성이었다.

그렇다면 폴란드인 문제에 대한 레베드식 해결 방안이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인가? 레베드의 방

*ukrains'koho povstans'koho rukhu*, Winnipeg: Redaktsiina Kolehiia SLD i tovaristvo “Volin’,” p. 179. 우크라이나 인민 “전체”를 대변하는 군대로서의 “우크라이나 봉기군”이란 착상 자체는 원래 OUN-M 계열 민족주의자들의 발상으로부터 나왔다(*ibid.*, pp. 127-128).

39) *Ibid.*, p. 252.

40) 이에 따라 UPA는 그 지도부 내에 명목상 OUN-B 출신이 아닌 기타 정파의 인물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두고 북미의 OUN-B 계열 역사가들(및 현 우크라이나의 일부 역사가들)은 UPA가 OUN-B라는 특정 정파의 군대가 아닌 “범우크라이나 독립군”이라는 증거로 제시하나(예컨대 Mirchuk, *Roman Shukhevich*, pp. 111-113을 보라), 타 계파의 인물들이 전하는 그 실상은 매우 다르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혁명기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군에서 싸운 경력을 가진 저명한 독립운동가이자 군인, 레오니드 스투프니츠키(Leonid Stupnits'kii)는 1943년 UPA 북부군의 참모장으로 복무하다 1944년 전사한 후 현재도 UPA의 소위 독립 투쟁을 이끈 신화적 영웅 중 한 명으로 찬양받고 있지만, 그의 참여는 자원이 아니라 아들을 인질로 삼아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UPA 가담을 강요한 레베드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Bul'ba-Borovests'*, *Armia*, p. 253).

41) *Ibid.*, p. 252.

42) Balei, *Frona Stepana Banderi*, p. 88. 볼바-보로베츠 또한 나치에 부역하며 홀로코스트 참여 전력이 있는 전범이었던 레베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볼바-보로베츠의 UPA가 “나치 독일 당국의 조력 아래 만들어진 부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OUN-B의 부대 명 찬탈을 정당화했다(Mykola Lebed [1987], *UPA – Ukrains'ka povstans'ka armia*, New York & Munich: Vidavnistva ‘Proloh i Suchasnist’’, pp. 76-77)

43) Balei, *Frona Stepana Banderi*, p. 195; *Bul'ba-Borovests'*, *Armia*, p. 251

식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길래, 무려 “홀로코스트 부역자”마저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 자신부터가 모계 쪽으로 폴란드인의 피가 흐르던<sup>44)</sup> 이 OUN 지도자의 표현을 직접 빌자면 그 해결책은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의를 해치는 ... 폴란드 주민의 모든 반란 영역을 청소해 버리는 것”<sup>45)</sup>이었으니, 레베드가 말하는 그 “청소”란 과연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sup>46)</sup> 그 해답은 (그 자신이 폴란드 감옥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보낸 바 있는 극단적 반폴란드 성향의 인물이었음에도)<sup>47)</sup> 레베드식 해결책에 큰 충격을 받은 타라스 불바-보로베츠의 준엄한 항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항의는 제2차세계대전 시기 수많은 광기 어린 학살로 점철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폴란드인들의 적대적 행위에 관해서라면 그건 그 행위를 행한 사람만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그와 무관한] 전체 주민까지 처벌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요. 그 책임을 집단[전체]에 가족에게 지운다는 원칙은 야만인이나 할 짓이지 문명국의 군대가 할 짓은 아니란 말이오!<sup>48)</sup> ... [폴란드인] 지역 소수집단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정신 나간 짓거리로 국가건설을 시작한 정파 지도부에, 진정한 혁명가[인 내]가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sup>49)</sup> ... 나는 묻고 싶소. 당신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44) NARA, RG 263, Entry ZZ-18, Box 80, Folder 1, “Questionnaire”

45) Balei, *Frona Stepana Banderi*, p. 196; Bul'ba-Borovests', *Armiia*, p. 251 우크라이나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Ochistiti vsiu povstans'ku teritoriiu vid pol'solkogo naseleattia, iake vsiudi shkodit' ukrains'kii spravi ... (ibid.)” 불린 대학살은 바로 이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니, 레베드는 불바-보로베츠의 군대에 이 학살에 대한 동참을 절대적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불바-보로베츠는 물론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아기와 여성 및 노인”과 같은 약자만을 집중적으로 고문하여 죽이는 “레베드식 청소”는 이 홀로코스트 부역자에게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명백히 넘어가는 행위였다. 한편 레베드의 명령에 거역하여 통합을 거부한 “원조” UPA 부대원들은 대부분이 살해당했다.

46) 레베드는 여러 차례 “청소”를 명령하면서도 영리하게도 단 한 번도 이 청소의 “디테일”을 문서 형태로 명시하여 남긴 적이 없었다. 실제 그의 “청소” 명령은 “폴란드인에 대한 물리적 제거”를 의미했지만, 이 표현 자체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기에, 불린 대학살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폴란드인에 대한 물리적 제거”라는 구체적 방식을 누가 명시적으로 지시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 증거를 찾는데 몰두해 왔다. 일부 폴란드 역사가들은 레베드의 명령을 구체화한 인물로 UPA 북부군의 지휘관, 드미트로 클라치키브스키(Dmitro Kliachkivs'kii)를 적시하며 유리 스텔마쉬추크(Iurii Stel'mashchuk)라는 UPA 하급 지휘관이 레베드에게 보낸 1943년 6월 24일 자 비밀 서한을 근거로 제시해 왔는데(Grzegorz Motyka [2022], *From the Volhynian Massacre to Operation Vistula - the Polish-Ukrainian Conflict 1943-1947*, Leiden: Brill, p. 84), “전체 폴란드 주민의 전반적이고 광범한 물리적 파괴”를 직접적으로 적시한 유일한 문건인 이 서한의 진위는 최근 의심 받고 있다. 이는 당사자로 지목된 클라치키브스키가 그러한 중대 명령을 내릴 만큼 큰 권한을 가진 최고위 직급의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이 서한 작성자인 스텔마쉬추크는 일개 하급 지휘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지도자 원리에 따른 엄격한 중앙통제를 받던 OUN-B와 UPA에서, 그리고 조직의 1인자 반데라와 2인자 스테치코가 해외에 체류하던 상황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진 인물은 조직의 3인자인 레베드와 4인자인 슈헤비치 뿐이었는데, 자신들이 행하던 소위 “독립 투쟁” 방식의 범죄적 속성을 잘 알던 이 두 지도자가 잔혹한 고문 학살 명령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문서상 증거를 남길 리는 만무했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대다수가 나치에 부역하며 홀로코스트 참여 경력을 가진 당대 UPA의 전사들은 그 “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에 이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한편 불린의 구소련 문서보관소에서 해당 문건을 검토한 우크라이나 역사가 이호르 마르추크(Ihor Marchuk)는 해당 서한이 소련 정보기관에 의해 위조된 문건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Ihor Marchuk [2009], *Komandir UPA-Pivnich Dmitro Kliachkivs'kii "Klim Savur"*, Rivne: Vidavets' Oleh Zen', pp. 70-71).

47) Ozarowski, *Gdy plonął Wołyń*, p. 25

48) Bul'ba-Borovests', *Armiia*, p. 252

49) *Ibid.*, p. 263

싸우는 것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OUN을 위해서요?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요? 아니면 이 나라에 독재를 수립하기 위함이요? 우크라이나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요? 아니면 당신네 정파를 위해 싸우는 것이요?<sup>50)</sup>

불바-보로베츠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레베드의 “청소”란 바로 폴란드인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과 파괴를 의미했다. 훗날 CIA의 극진한 보호 아래 애국적 미국 시민이자 뉴요커가 될 이 인물은 이 무렵 나치 독일의 “원조” 아이히만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최종적 해결책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레베드와 불바-보로베츠 간 협상이 진행되던 시점에서 폴란드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은 서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된 상태였기에,<sup>51)</sup> 회담 당시 불바-보로베츠는 “레베드식 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이미 잘 알고 있던 상태였다.<sup>52)</sup> 그러나 불바-보로베츠가 목격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1943년 봄까지만 해도 병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자행되던 “레베드식 해결책”은 1943년 6월 이후 볼린 지방 전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학살로 본격화하는데, 이는 나치 독일의 보조 경찰부대와 민병대 소속 OUN-B 조직원들의 대대적인 탈영으로 이 무렵에 가면 소위 “폴란드인 청소”를 위한 충분한 병력 자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었다.<sup>53)</sup> 독소전 발발 이래 대략 2년간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트 집행을 위한 나치의 수족으로 활동하는 동안,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라면 당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경험 및 숙련도를 쌓았으며, 폴란드인에 대한 증오로 무장한 이들 우크라이나인 나치 부역자들이 독일제 최신 무기를 가지고 UPA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레베드에게는 드디

50) *Ibid.*, p. 266.

51) 폴란드인 주민에 대한 학살은 1942년 봄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되었으나(Tadeusz Piotrowski [2008], ed., *Genocide and Rescue in Wolyn: Recollections of the Ukrainian Nationalist Ethnic Cleansing Campaign Against the Poles During World War II*, Jefferson, N. C.: McFarland, p. 59), 그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은 UPA가 공식 출범한 1943년 3월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볼린 대학살이 본격화하기 이전 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큰 규모의 학살 사례로는 1943년 2월 8일 서부 우크라이나 사르니군(Sarnens'kii raion)의 소읍 안토노브카(Antonovka) 인근 폴란드인 마을에서 일어난 쿠세프(Kuszew) 학살이 대표로 꼽히고 있다(Mikolaj Terles [1993], *Ethnic Cleansing of Poles in Volhynia and Eastern Galicia, 1942-1946*, Toronto: Alliance of the Polish Eastern Provinces, p. 16). 이 지역에서 OUN-B의 무장 부대는 소비에트 파르티잔으로 위장한 채 나타나 폴란드인 주민을 안심시킨 후 기습적으로 학살을 시작하였다. 173명의 사망자를 낸 이 학살로 거의 모든 마을 주민이 몰살당하였고, 생존자는 시체 더미 속에 숨어 죽은 척 연기를 했던 6세 소년을 포함한 단 두 명뿐이었는데, 이들의 증언 덕에 이 학살의 끔찍한 세부 사항이 기록에 남겨질 수 있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모든 학살 피해자는 “칼로 아기들의 몸을 산채로 관통시킨 채 테이블에 꽂아버리고,” “산채로 성인 남성의 피부 껍질을 벗겨내거나 사지를 절단하고” “여성은 [집단] 강간 후 즉시 가슴을 도려내 [살해하는]” 등등의, 말로 차마 형언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당해야 했다. 또한 OUN 군 사국 부대원들은 이 사건 직후 시신 더미 앞에서 음주를 하며 술잔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마지막 사망자는 술잔이 놓인 테이블에 칼이 몸을 관통하여 박힌 채 눈요기로 “전시”되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던 생후 12개월 아기였다. 음주를 마친 우크라이나인 도살자들은 술안주로 먹다 남은 절인 오이 통치를 이 아기의 목에 밀어 넣어 질식사시키는 것으로 “살인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ibid.*).

52) OUN의 학살은 “우크라이나 봉기군”의 이름으로 행해졌기에, 애초의 이 명칭의 원조가 된 무장 조직을 만든 불바-보로베츠는 학살 초기 자신의 부대 또한 볼린 대학살에 참여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53) Timothy Snyder (2003), “The Causes of Ukrainian-Polish Ethnic Cleansing, 1943,” *Past and Present*, 179, p. 211. 레베드의 명령에 따른 OUN-B 조직원들의 대대적 탈영으로 나치 독일에 복무하던 우크라이나인 보조 경찰부대와 민병대는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어 자신의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기회가 도래하였다. 1943년 6월 레베드는 드디어 아래와 같은 운명적 결정을 UPA 사령부에 하달했다.

첫째, “즉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폴란드인들을 완전히 청소하는 작전을 끝내라! 둘째, 우크라이나 내부의 적들, 즉 과거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 기타 정파 그룹의 깃발 아래 싸우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을 ... 항상 절멸시키라!<sup>54)</sup>

첫 번째 명령이 폴란드인에 대한 전면적 도살을 의미했다면 두 번째 명령은 이에 동조하지 않는 불바-보로베츠와 같은 그나마 양심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또는 OUN-B 소속이 아닌 기타 정파 우크라이나인 또는 UPA에 동참을 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 동족에 대한 전방위적 살해 명령을 뜻하였다. 레베드의 명령에 따라 OUN-B가 관할하던 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UPA로의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이에 거부하는 이들, 또는 레베드식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던 타정파 출신의 이른바 (OUN-B의 용어를 빌자면) “민주주의자”들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린 대학살은 폴란드인을 겨냥한 동시에 같은 우크라이나인 동족인 이들 “민주주의자” 또한 같이 도살한 학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불바-보로베츠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레베드식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 또한 자명했다. 이는 레베드가 진실로 원했던 시나리오는 사실상 서부 우크라이나 거주 폴란드인 전원에 대한 “나치식 홀로코스트”였기 때문이다. 레베드에게는 안타깝게도 나치에 부여하던 보조 경찰과 민병대 탈영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개 게릴라 부대였던 UPA에게는,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트” 방식으로 또는 독일식 “아인자츠그루페” 스타일로 “최종적 해결”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물적 자원과 정교한 조직 역량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았고 학살을 위한 독일 측의 협조 또한 기대할 수 없었으니, 이에 대한 레베드의 대안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대안이란 극악무도한 잔인성으로 학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폴란드계 주민 사이에 공포를 전염시키며, 이를 통해 폴란드인의 “자발적 도주”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 지역의 완전한 “탈폴란드화”를 이뤄내는 것이었다.<sup>55)</sup>

1943년 여름 이후 전방위적인 학살로 본격화된 볼린 대학살이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트”에 부여하며 유대인 학살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했던 타라스 불바-보로베츠마저도 충격과 공포에 바트릴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목격 생존자들이 남긴 당대 증언에 따르자면, “[산채로 피해자의] 배꼽에 말뚝을 박아 몸을 관통시킨 채” 극도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고, 어린아이를 산채로 잘게 토막 내어 조각난 시신을 우물에 던지며,<sup>56)</sup>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의 살점을 산채로 천천히 도려내 죽이고, (조롱의 의미로) 그 아기

54) Bul'ba-Borovec's, *Armiia*, p. 272 (강조는 필자). 우크라이나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Nehaino i iaknaiskorishe zakinchiti aktsiiu total'noho ochishchennia ukrains'koi teritorii vid pol'skoho naselennia.” “Noslidovno dali vinishchuvati vnutrishn'noho voroha Ukraini, tobtu vsikh demokrativ z pid stiahu UNR ta inshikh politichnikh uhrupovan' ... (ibid).” “민주주의자”들은 OUN-B 조직 내에서 타 정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관용적으로 지칭하던 경멸적 비칭이었다.

55)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p. 210

56) Piotrowski, *Genocide*, p. 159

의 “살점을 잘게 썰어 [식사용] 접시에 담아” 부엌에 둔 채 퇴각하며,<sup>57)</sup> 어린 여아의 배를 갈라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고,<sup>58)</sup> 역시 산채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어머니와 태아 모두를 도륙한 후 모친과 아기의 시신을 돌아온 생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채 퇴각하는<sup>59)</sup> 등등, UPA의 첫 “민족 봉기”는 철저하게 민간인, 그것도 노인과 어린이, 여성, 영유아, 병자, 장애인 등등, 민간인 중에서도 저항하기 힘든 “가장 약한 자”들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잔인하게 도륙하는 인면수심의 끔찍한 만행으로 점철되었다.

이 만행은 우크라이나인 동족 또한 피해 가지 못했으며, 특히 OUN-B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말살되어야 하는 “민족의 적”이라 선언한 우크라이나-폴란드 혼혈 가정의 “영유아”들이 학살의 우선적 목표가 되었다.<sup>60)</sup> 학살을 명령한 당사자인 레베드 본인부터가 우크라이나-폴란드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지만,<sup>61)</sup> 이러한 혼혈 가정을 친폴과 민족 반역자이자 매국노로 간주하던 UPA의 극단적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폴란드인과 결혼한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자신의 배우자나 폴란드인의 피가 흐르는 자신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 외에 생존의 기회는 없었다. 이 극악한 만행에 경악한 적지 않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학살 동참을 거부하며 오히려 폴란드인 이웃을 보호하려고 했으나,<sup>62)</sup> UPA는 자신들의 동족을 학살하는 것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sup>63)</sup> 레베드가 고안한 우크라이나식 “최종적 해결”의 끔찍함은 무려 홀로코스트의 당사자인 나치 독일의 병사들조차 경악하게 만들 정도였으니, 몇몇 지역에서는 무려 현지의 독일군 부대가 눈앞에 펼쳐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보다 못하고 개입하여 구조활동에 나서거나, 쫓기던 폴란드 민간인이 인근의 독일군 부대로 도주하여 무려 “나치 군대의 보호를 받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다.<sup>64)</sup>

57) *Ibid.*, p. 103

58) Aleksander Korman (2003), *Ludobójstwo UPA na ludności polskiej: Dokumentacja fotograficzna*, Wrocław: Nortom, p. 15

59) Piotrowski, *Genocide*, p. 100

60) 순수 우크라이나 혈통에 집착하던 OUN-B 조직원들이 철저히 순수한 원칙 중 하나는 “절대 외국인[특히 러시아인과 폴란드인 및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다(Mikola Sukhovs’kii [1997], *Moi spohadi*, Kiev: Vidavnistvo, “Smolospip,” p. 50). 그 이유는 “[그 경우 혼혈로 태어날] 자녀가 우리의 적이 되기 때문”이었다(*ibid.*).

61) NARA, RG 263, Entry ZZ-18, Box 80, Folder 1, “Questionnaire”

62) 한 폴란드인 생존자는 폴란드 민간인 보호에 나서다 UPA에 살해당한 우크라이나인 이웃의 절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요람에 있는 아기와 지팡이 없이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민족에] 위협이 되는가?(Piotrowski, *Genocide*, p. 69)”

63) *Ibid.*, pp. 58-59. p. 70.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 성직자들 다수가 학살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며 잔혹 행위를 축복했지만, 여기에도 물론 예외는 있었다. 한 성직자는 UPA의 학살에 반대하고 폴란드인을 보호하려던 탓에 그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두 아이까지 전 가족이 몰살당했다(*ibid.*).

64) Piotrowski, *Genocide*, pp. 79-80, p. 87, p. 112, p. 119. 독일군이 구조한 한 폴란드인 여성 생존자는 아래와 같은 놀라운 증언을 남겼다. “나와 함께 하며 [나를 지켜준] 독일군들에게 그들의 도움과 헌신에 대해 나는 감사 인사를 남겼다(*ibid.*, p. 80).”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 속에서는 이처럼 독일군에 의한 구조와 보호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는 물론 나치 당국의 지시가 아니라 일선 독일군 병사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별 병사들의 이러한 행동과 달리 독일 당국의 공식 입장은 UPA 측에 대한 우호적 중립이었다. 한편 중립을 지킨 것과 더불어 독일 당국은 폴란드인에 대한 학살을 오히려 호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는데, 이는 폴란드의 나치 총독 한스 프랑크(Hans Frank)의 표현을 빌자면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 간 관계가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이 독일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Balei, *Fronda Stepana Banderi*, p. 67).

1년 넘게 볼린과 동부 할리치나 지역을 최악의 지옥으로 만든 이 학살은 1944년 여름 이후 소련군에 의해 서부 우크라이나가 해방된 이후에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나치 독일군만큼이나 이 지옥도에 경악한 소련군은 당연히 “레베드식 청소”에 대한 적극적인 진압 작전에 착수했고, 이후 우크라이나 봉기군의 활동은 비무장 민간인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일방적 학살이 아니라 “붉은 군대”라는 실제 군대를 상대로 벌이는 진정한 의미의 전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sup>65)</sup> “아기와 어린이, 청소년, 병자, 노인과 여성”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학살이 아니라, 중무장한 정규군이었던 소련군과의 싸움이 당연한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OUN과 UPA의 실질적 주도권 또한 레베드로부터 슈헤비치에게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제 UPA의 임무가 학살에서 실제 전투로 전환됨에 따라 봉기군에 필요한 지도자는 레베드와 같은 “학살 전문가”가 아니라 간전기 폴란드군 복무 경력이 있으며 나치에게 군사훈련을 받으며 실제로 나치 군대에서 복무한 슈헤비치와 같은 진정한 군사전문가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레베드의 조직 내 역할과 중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소련군의 진압 작전으로 학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따라 그의 기존 임무는 끝난 것과 다름없었지만 레베드의 조직 내 위상은 1944년 여름 이후 오히려 더 올라가며, 어떤 의미에서 그는 반테라 못지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테라를 능가하는) 우크라이나 파시즘 운동의 핵심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레베드가 OUN이 새롭게 출범시킨 지하 정부 조직체이자 범우크라이나 우산 조직, “우크라이나 최고위 해방 위원회(*Ukrainsk'ka holovna vizvol'na rada*: 이하 ‘UHVR’로 약칭)”의 외무 총서기(*Heneral'nii sekretar zakordonnikh sprav*) 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었다.<sup>66)</sup> UPA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범우크라이나적”인 무장 조직이 될 것을 표방했다면 UHVR은 정치와 외교에서 역시 “범우크라이나적” 대의를 소위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원칙” 아래 대변하는 일종의 국민 연합정부를 표방했는데,<sup>67)</sup> 이미 오래전부터 그 스스로가 범우크라이나적인 조직체임을 자임했던 OUN이 구태여 이러한 위장 정부 조직체를 새롭게 출범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이는 패배가 확실시되는 독일을 버리고 소련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영국과 미국 같은 서방 연합국으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sup>68)</sup> OUN이 친나치 행보를 통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파시즘 조직으로서의 악명은 서방 연합국 사이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에 OUN의 이름으로는 영국과 미국과 같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OUN-B의 입장에서는, 최소 외관상으로나마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위장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65)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후퇴하던 독일군은 후퇴 직전 무기고를 개방하고 UPA에게 대량의 무기를 넘겼다(Grzegorz Motyka [2006], *Ukrainska partyzantka 1942–1960: Dzialalnosc Organizacji Ukrainskich Nacionalistow i Ukrainskiej Powstanczej Armii*, Warsaw: Rytm, p. 230). 독일이 지원한 이 무기 덕분에 UPA는 소련군과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할 수 있었다.

66) Lev Shankovs'kii, “Initsiativnii komitet dlia stvorennia,” p. 66; Dariia Rebet, “Do pochatkiv UHVR (Spohadi, komentari, refleksii),” in *Litopis UPA - Ukrainsk'ka holovna vizvol'na rada*, kn. 7, p. 100

67) *Ibid.*, p. 84; Lebed (1987), *UPA*, pp. 144-145

68) Anatol' Kamins'kii (1996), *Vid nasil'noi do mirnoi revoliutsii*, New York: Vidannia Politichnoi Radi OUN za kordonom, p. 20

소위 “민주적 조직”으로의 변신은 1944년 3월에 열린 할리치나 현지의 OUN-B 지도부 총회에서 처음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 회합에서 OUN-B 수뇌부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원칙 아래 운영되는 UHVR의 결성을 처음으로 결의하고 그 첫 조치로 UHVR 총회 소집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과거 세탁을 위한 위장 정부 조직체의 출범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sup>69)</sup> 이러한 “민주 노선”의 첫 결과물이 1944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열린 UHVR의 창립 총회였는데, 이 회합에서는 “외무 총서기” 레베드와 “봉기군 사령관” 슈헤비치가 핵심 지도부로 선출되었으니, 일견 기존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 지도부의 주요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위장 정부 출현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새롭게 채택된 UHVR의 정강과 새롭게 선출된 명목상 정부 수반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참석자 거의 전원이 얼마 전까지 학살을 수행하던 이들로 구성된 UHVR 총회에서 이들은 그동안 OUN의 조직상 철칙으로 간주되어 왔던 “일당독재” 원칙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결의했고, 과거 러시아 혁명 시기 우크라이나 사회혁명당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한 바 있는 대표적 비OUN 인사 중 한 명인 “키릴로 오스마크(Kirilo Osmak)”를 돌연 UHVR의 총재로 추대하며,<sup>70)</sup> OUN의 민족주의 운동이 앞으로 다원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운동이 될 것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sup>71)</sup>

바로 얼마 전까지 “민주주의자들의 절멸”을 외치며 불린 대학살에 반대하던 기타 정파 우크라이나인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도살하던 우크라이나의 파시스트들이, 그것도 그 학살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던 바로 그 시점에서, 갑자기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외치게 된 이렇듯 희극적인 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나치 독일을 버리고 서방 연합국에 구애하기 위함이었지만, OUN-B의 갑작스러운 변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이는 조직의 유일 수령, 스테판 반데라에 대한 반감이 이 무렵 우크라이나 현지의 OUN-B와 UPA 지도부 고위 구성원 사이에 급속히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2)</sup> 물론 할리치나 지역 대중 사이에서 반데라의 명성과 권위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나, 할리치나 현지에서 활동하며 학살과 같은 온갖 끔찍한 일을 수행해야 했던 지도부의 견해는 전쟁을 거치며 크게 달라진 상태였다. 멀리 독일에 체류한 채 구두로 명령만 내리며 할리치나 현지 조직에 절대복종만을 요구하던 그의 행보는, 역시 해외의 편안한 망명지에 앉아 현지 조직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던 OUN의 일차 분열 이전 과거 “구세대 파시스트들”의 행보를 연상시킴으로써 반데라의 권위에 금이 가게 만들기 시작했고, 이에 더하여 독일군에게 점점 불리해지는 전황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독일 노선

69) Rebet, “Do pochatkiv UHVR,” pp. 91-92

70) Anatol' Kamins'kii, “Do henezi ukrains'koi holovnoi vizvol'noi radi u 65-littia ii stvorennia,” in *Litopis UPA - Ukrainsk'ka holovna vizvol'na rada*, kn. 7, p. 7. 불과 1년 전만 해도 OUN-B가 절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형적인 “민주주의자”의 일원이었던 오스마크가 OUN-B 내부의 반데라나 레베드, 스테치코, 슈헤비치와 같은 쟁쟁한 거물을 제치고 느닷없이 UHVR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유는 물론, 이 인물이 OUN-B의 파시즘적 과거 세탁에 가장 적절한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었다.

71) NARA, RG 263, Entry ZZ-19, Box 58, “QRPlumb,” Vol. 1, No. 2, “Platform of the Ukrainian Supreme Liberation Council,” July 15th, 1944; Volodimir Viatrovich (2007), ed., *Ukrains'ka Povstans'ka Armia - Istoriia neskorenikh*, L'viv: Tsentr doslidzhen' vizvol'noho rukh, pp. 83-84

72) Balei, *Frona Stepana Banderi*, p. 101

을 고집하던 반데라의 완고함은, 독일 패배 이후 파시즘 운동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큰 우려와 반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UHVR 출범을 통한 “OUN의 민주화”란 결국, 반데라라는 수령의 유일 독재를 대신하여 OUN 지도부를 일종의 민주적 집단지도체제로 개편하고, 이러한 지도 체제 변화를 기반으로 나치 독일을 대신하는 새로운 후견인을 서방 진영에서 찾는 신노선을 추구하는 OUN-B 내 “새로운 대안 당파”의 출현을 의미했다.<sup>73)</sup>

1944년 여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OUN-B 내 이들 “민주 분파” 또는 “OUN 해외파(*OUN za kordonom*: 이하 ‘OUN-Z’로 약칭)”의 핵심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미콜라 레베드였다. 불과 1년 전에는 같은 우크라이나인 동족인 소위 “민주주의자 절멸”을 명령하고 수많은 폴란드인과 유대인 살해를 기획한 장본인이 무려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일인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 분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모순으로 점철된 OUN의 문제적 역사 중에서도 가장 희극적인 아이러니에 다름 아니지만, 이 무렵 레베드의 위상은 전쟁 발발 초기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역류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독일 측의 보호를 받으며 해외에서 명령만 내리던 반데라와는 달리 실제로 행동하는 지도자였음을 이미 몸소 입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OUN-B 보안국 수반으로 친폴파 또는 친러파 매국노로 간주되던 수많은 우크라이나인 동족과 “민주주의자들”을 처단한 것에 더해, UPA 출범의 실질적 주역으로 불린 대학살을 통해 폴란드 주민에 대한 “청소”를 실현하는 등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며 존재감과 지도력을 보여준 미콜라 레베드는, 격동의 시기 반데라를 대신하여 전쟁 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OUN-B의 할리치나 현지 조직을 이끈 대표적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고, 이제 그는 여전히 친독일적 노선을 고집하던 반데라의 카리스마와 독재적 권위에 대항하여 서방 진영에 구애하려던 “민주 분파” 또는 “OUN 해외파”가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영웅”으로 떠올라 있었다.<sup>74)</sup> 1944년 7월 총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인민의 자유를 위한 혁명적 투쟁에서 ‘민주적’으로 전 인민을 대표한다”<sup>75)</sup>는 위장 정부조직 UHVR의 외무 총서기로 선출된 이 학살의 영웅은, “서방의 동맹 세력에게 우리의 해방투쟁과 목적을 알린다”<sup>76)</sup>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채 전선을 돌파하여 이탈리아로 향했고, 이후 로마에 무사히 도착한 후 바티칸 교황청의 암묵적 보호 아래<sup>77)</sup> 정착한 이 전직 학살 전범과 그 동료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최고위 해방 위원회가 파견한 “외교관”이자 “민주 반공투사”로서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으니,<sup>78)</sup> 그동안 무고한 민간인을 수없이 살해한 OUN-Z의 수장을 궁극적으

73) *Ibid.* 슈헤비치 또한 반데라의 권위에 도전하는 UHVR의 소위 “민주적 지도부” 출범에 동의하였다. 한편 반데라는 UHVR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고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74) *Ibid.*, pp. 101-102

75) Oleksandr Panchenko (2004), *Ukrainsk'ka holovna vizvol'na rada*, Hadiach: Vidavnistvo “Hadiach,” p. 159

76) *Ibid.*

77) Breitman & Goda, *Hitler's Shadow*, p. 77. 그가 로마로 탈출한 이유는 우니아트 교회의 상급 기관이던 바티칸 교황청이 OUN 인사들을 보호했기 때문이었다. 바티칸에서 우크라이나 우니아트 교회를 대표하던 이반 부취코(Ivan Buchko) 대주교는 로마 교황청과의 적극적 협력 속에서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무장 친위대 “할리치나” 사단(14. *Waffen-Grenadier-Division der SS, “Galizien”*)의 소련 송환을 막은 주역이기도 하였다(Roman Kolisnik [1980], *Viiskova Uprava ta Ukrainska Diviziia “Halichina”: Diial'nist' Viis'kovoi Upravi ta nimets'ka politika vidnosno ukrains'kikh natsional'nikh zbroinikh sil v rokakh 1943-1945*, Toronto: Shevchenko Scientific Society of Canada, p. 68).

로 기다리던 미래는 CIA와 협력하는 애국적 미국 시민 “뉴요커”로서의 장밋빛 인생이었다.

### III. 학살마는 어떻게 “자유의 민주 반공투사”가 되었나?

독일군의 패배를 미리 감지하고 나치 독일을 대신하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으려던 UHVR의 노력은 물론 헛되지 않았다. 종전 후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과 영국은 곧 “철의 장막” 내에서 활동하는 반소비에트 세력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레베드를 비롯한 OUN-B 인사들은 자신들의 나치 부역 과거가 서방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저해하리라 우려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UHVR과 같은 새로운 위장 우산 조직을 출범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우려에서 나온 계획적인 행보였으나, 사실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서방 연합국 정부, 특히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들 학살자들의 범죄적 과거 “따위”에는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 냉전 초기 서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부 유럽에서 CIA의 반소비에트 작전을 총괄하며 OUN과의 협력을 주도한 CIA 뮌헨 지국장(Station Chief), 해리 로지츠케(Harry Rositzke)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오. 어떤 악당 놈이든 그저 그자가 반공산주의자이기만 하면 별생각 없이 쓰는 일이었으니까. [그때는] 협력자를 모집하려는 열망과 욕구에 차서 그자들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소.”<sup>79)</sup>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밝힌 로지츠케의 이 변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정보자유법” 및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을 통해 최근 부분 공개된 여러 CIA 극비 문건들이 보여주듯 CIA는 자신들이 협력했던 나치 부역자들의 과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베드의 경우만 봐도 1947년에 나온 CIC 보고서에서는 레베드가 “잘 알려진 사디스트이고 독일인의 협력자”였으며<sup>80)</sup> “아마도 반데라보다도 더 급진적이었을” 인물<sup>81)</sup>로 평가하고 있었으니, CIA는 그가 벌인 일련의 테러활동과 리보프 프로그램에서의 배후 역할 등등 일련의 악행에 대해서도 이미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다. 또한 레베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UHVR의 이름을 빌려 내세우던, 이른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CIA는 이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CIA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대의명분이 명백히 “거짓”이며 일종의 위장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였기 때문이다.<sup>82)</sup>

레베드가 자행한 가장 끔찍한 범죄인 볼린 대학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만 판단하면) 이 무렵의 CIA가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는 의문이나, 설사 이 학살의 유례없

78) Kamins'kii, “Do henezi,” p. 12

79) Simpson, *Blowback*, p. 160; Evan Thomas (2006), *The Very Best Men: The Daring Early Years of the CIA*, New York: Simon & Schuster, p. 35

80) NARA, RG 319, Entry 134B, Box 457, “Mykola Lebed,” July 22nd, 1947

81) NARA, RG 319, Entry 134B, Box 457, “Personality Report, LEBED, Mykola,” December 29th, 1947

82) Kevin C. Ruffner (2003), *Eagle and Swastika: CIA and Nazi War Criminals and Collaborators*,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 16

는 끔찍한 잔혹성을 알았다고 해도 CIA가 서부 우크라이나 출신 학살자들과의 거래를 끊거나 주저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는 이미 미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OUN을 능가하는 “원조” 학살자 집단과의 거래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으니, 그 집단은 바로 동부전선에서 복무한 독일군 출신 나치로 구성된 “겔렌 조직(Organisation Gehlen)”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겔렌 조직은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에 대한 정보수집 및 방첩 업무를 맡았던 독일군의 정보조직 “외래육군동부국(Fremde Heere Ost: 이하 ‘FHQ’로 약칭)”의 수장이었던 라인하르트 겔렌(Reinhard Gehlen)이 종전 후 전범들을 모아 수립한 비밀 조직으로, 겔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CIA 국장 앨런 덜레스의 아래와 같은 촌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그가 악당인지는 잘 모르겠다. 첩보 업계에는 소수의 거물들이 있다. [그 거물 중 하나인] 겔렌은 우리 편이고, 이 점이 중요한 것이다.”<sup>83)</sup> 덜레스가 겔렌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가 보유한 소련군과 소련 체제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때문이었는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 정보들이 주로 어디서 왔을지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 근원은 바로 OUN-B였다. 1930년대 초반 나치 집권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치 독일과 OUN 간 오랜 밀월 관계는 나치가 패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중단없이 지속되었는데, 그 협력의 핵심에 바로 OUN-B와 FHQ의 정보 공조가 있었던 것이다. 동부전선의 소련 영토에서 독일군이 전면 후퇴한 후에도 소련군 후방에서 활동하던 UPA와 FHQ의 정보 협력은 계속되었고,<sup>84)</sup> 이를 통해 FHQ가 쌓은 소련군 관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겔렌이 전후 처벌 회피와 안전 보장을 대가로 미국에 제공한 핵심 정보 자산이었다.<sup>85)</sup>

미국 정보당국은 겔렌 조직이 가진 정보들 상당수가 OUN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측은 또한 반데라와 같은 OUN 전범들을 소련의 인도 요청으로부터 암암리에 보호하는 동시에, 1946년에는 겔렌 조직이 레베드를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그의 가족과 더불어 뮌헨으로 이송해 오는 것까지 비밀리에 돕고 있었지만,<sup>86)</sup> 적어도 전쟁 직후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으니, 먼저 손을 내밀고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측은 레베드의 조직이었다.<sup>87)</sup> 레베드는 1945년 여름 독일 작센의 도시 츠비카우(Zwickau)에 체류 중이던 자신의 동료, 아나톨 카민스키(Anatol Kamins’kii)를 통해 이 도시에 진주한 미군에 정보 제공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화 및 협력을 요청했고, 미국 측에서는 우크라

83) Leonard Mosley (1978), *Dulles: A Biography of Eleanor, Allen, and John Foster Dulles and Their Family Network*, New York: The Dial Press/James Wade, p. 275

84) NARA, RG 263, Entry ZZ-19, Box 11, “Aerodynamic,” Operations, Vol. 13, “Pullach to Director,” March 29th, 1956; Burds, “The Early Cold War,” p. 39

85) *Derzhavnyi arkhiv l’vovs’koi oblasti (DALO) f. 3, op. 1, d. 67, ll. pp. 78–104*, as cited in Jeffrey Burds (2010), *Shpionazh i natsionalizm: pervyi gody ‘kholodnoi voiny’ na Zapadnoi Ukraine (1944–1948)*, Moscow & New York: Sovremennaia Istorii, pp. 146–72

86) NARA, RG 319, Entry A1134-B, Box 457, “Lebed, Mykola,” Folder 1, “Memorandum for the Officer in Charge,” November 17th, 1947. 제2차세계대전 당시 레베드는 반데라와 함께 겔렌의 주요 협력자 중 하나로, 양자 사이에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전후 도피 시기 레베드는 유대인 도살자로 악명높은 “클라우스 바르비(Klaus Barbic)”와도 우정을 나누었는데, 이 인물은 암살 위협에 노출된 레베드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87) Kamins’kii (1996), *Vid nasil’noi do mirnoi revoliutsii*, p. 25

이나게 미국인으로 CIC 요원이던 스티븐 스쿠빅(Stephen J. Skubik)을 보내 레베드의 제안을 경청했다.<sup>88)</sup> 이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였던 카민스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과의 첫 접촉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는 이 첫 만남이 해당 시점에서는 추후 협력을 계속 협의한다는 합의 외에는 큰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소련에 대한 정보 갈증에 목말라하던 미국 정보당국이, 수년 후에는 이들과 적극 협력에 나서게 되는 미국 측이 이 시기에는 왜 레베드의 제안에 선뜻 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OUN 내부의 분열로 인해 미국 정보당국이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의 분파 중 “누구”와 협력할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이들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저울질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 둘째 이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종전 직후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절실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자 한 SSU 문건 속 표현을 빌자면 미국 측은 이들 “우크라이나인들의 개인적 배경, 신뢰성, 동기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 전까지 정보당국의 관리들과 이들 반체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89)</sup> 또한 이때부터 이미 미국 측의 주된 관심은 이들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의 문제적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얼마만큼의 쓸모가 있으며 이들이 첩보 임무에서 과연 신뢰할 만한 집단인가에 가 있었고, 바로 그 유용성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해 미국 정보기관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들의 배경 조사에 투자했다.<sup>90)</sup>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시기 미군 CIC는 일명 “이콘 계획(Project Icon)”으로 이름붙여진 정보수집 작전을 실행하며 OUN 계열 우크라이나인들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를 통해 OUN이 총 3개의 집단, 즉 OUN-M, OUN-R (OUN *Revoliutsiina*: 반데라 지지자로 이뤄진 “혁명파 OUN”), 그리고 OUN-Z (OUN-B에서 떨어져 나오는 레베드 조직)로 나뉘어 있음을 파악했다.<sup>91)</sup> 먼저 미국의 시야에 들어 온 집단은 OUN-M이었으나, OUN-M은 이들이 주도하여 창설한 우크라이나인 무장 친위대 할리치나 사단(14. *Waffen-Grenadier-Division der SS, “Galizien”*)을 통해 대중적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과도한 “친나치” 성향 때문에, 그리고 서부 우크라이나 내 영향력이 반데라 분파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협력 후보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sup>92)</sup> 미국은 대신 나치 독일과의 협력이 (해당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며 이 무렵부터는 자신들이 마치 “반나치” 저항 세력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한 OUN-B에 주목하며 1946년 여름부터 일부 작전을 OUN-B 보안국과 진

88) *Ibid.*

89) Ruffner, *Eagle and Swastika*, pp. 13-14

90) *Ibid.*, p. 14;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 ERR, “Aerodynamic,” Vol., 9, Document 2, “Development and Plans,” “Project Icon: Postwar Ukrainian Exile Organizations in Western Europe,” October 20th, 1948 (hereafter cited as “Project Icon”)

91) *Ibid.*, pp. 3-4; NARA, RG 263, Entry ZZ-19, Box 9, Zolt Aradi, “Operation Belladonna,” December 27th, 1946 (hereafter cited as “Operation Belladonna”)

92) “Project Icon.” 이 시기 OUN-M의 조직원 수는 CIA 추산 2,000여 명으로 OUN-B 대비 현저히 적었다. CIA의 정보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 거의 전부가 난민으로 이 조직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현지의 영향력이 약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UPA가 전적으로 OUN-B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은 OUN-B 소속이던 OUN-Z)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ibid.*).

행하기 시작했으나, 이들과의 협력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는데 이는 이 무렵 OUN-B가 격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4년 여름 UHVR의 출범과 OUN-B 내의 소위 “민주 분파” 또는 “해외 분파”의 출현 이래 여전히 절대적 수령으로 절대복종을 강제하던 반데라와 이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및 “일인 독재 반대”를 주창하던 레베드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탈출 후 로마에 체류하던 레베드가 켈렌 조직과 SSU의 도움으로 독일 뮌헨의 미군 점령지로 이주한 후 전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양측의 갈등은 종전 직후인 1945년 봄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열린 양측의 첫 회동부터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sup>93)</sup> 반데라는 자신의 허락 없이 출범한 UHVR의 정통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레베드는 전쟁 기간 내내 안전한 해외에 체류하며 행동 없이 절대복종만을 요구하던 반데라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이 만나 상호 간 이전을 좁히려던 여러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sup>94)</sup> 1947년 3월 중순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마련된 반데라와 레베드의 양자 회동은 격렬한 논쟁 끝에 급기야 레베드가 반데라에게 권총을 겨누고 실탄을 발사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다.<sup>95)</sup> 반데라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총탄은 비껴갔지만, 이 사건 이후 반데라와 레베드의 개인적 관계는 완전한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듯 격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1948년 여름까지 양측의 균열은 공식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OUN-B라는 한 지붕 아래 있었다. 양측의 결별이 공식화되고 “해외 분파”가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된 것은 1948년 8월 이후의 일이었으니, 그 결정적 계기는 194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독일 미텐발트(Mittenwald)에서 열린 OUN-B 총회였다. 이 회의에서 반데라와 레베드는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했다.<sup>96)</sup> 이 총회는 반데라의 주도 아래 소집된 회의였기에 참석한 대의원 160명은 대다수가 반데라 지지파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레베드와 그의 측근 이반 흐리노흐(Ivan Hrinokh)에게는 반데라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고, 결국 회의에서는 UHVR 외무위원회의 해산, 즉 OUN-Z의 해체를 요구하는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었다.<sup>97)</sup> 총회 종료 후 반데라 측에서는 레베드가 자신의 분파를 해체하지 않으면 OUN-B로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최후통첩 서한을 보냈으나 레베드는 이에 답신하지 않았다. 대신 레베드는 1948년 9월 22일 자신의 지지자들만 불러 모은 별도의 총회를 열었고, 반데라의 최후통첩을 무시한다는 OUN-Z 조직 차원의 공식적 결정이 이 회의에서 내려졌던 것이다.<sup>98)</sup> 이후 OUN-B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OUN-R과 OUN-Z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조직이 되었다.<sup>99)</sup>

93) Roman Krichevs'kii (1962), *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v Ukraini, OUN (z) i zh OUN*, New York & Toronto: Vidanniia Politichnoi Radi Odnodumstv OUN v SSHA, p. 20

94) *Ibid.*

95) Burds, “The Early Cold War,” p. 16

96) “Project Icon,” p. 13; Krichevs'kii, *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p. 23

97) *Ibid.*; Project Icon,” p. 13

98) “Project Icon,” p. 14

99) Ruffner, *Eagle and Swastika*, p. 26. 한편 1946년 반데라는 레베드가 대표하던 UHVR 외무위원회의 정통성을 허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만의 외교활동 전담 조직을 별도로 출범시켰는데, 이 조직의 이름은 “OUN 해외국(Zakordomi

OUN-B의 완전한 분열은 1948년 해외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조직으로 창설되어 새로운 대소 비밀작전을 준비하던 CIA와 미국의 후견을 갈망하던 OUN-Z에게는 전화위복으로 작용했다. 초기에 수립된 제한적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의 유일 수령으로 내세우며 다른 당파와의 협력을 철저히 거부하던 반데라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성향 때문에, 미국 정보 당국자 사이에는 반데라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었다. 미국 측은 또한 사실상 주종관계나 다름없던 나치 독일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독일인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반데라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더구나 의견이 다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활동가에 대한 암살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소위 독립운동 재원 마련을 명목으로 뮌헨의 “지하 세계”에까지 손을 뻗치며 무려 마약 및 밀주 제조 판매와 위폐 제조까지 서슴지 않는 사실상 완전한 “조직범죄단”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전후 OUN-B의 급격한 타락은 CIA를 크게 실망시켰던 것이다.<sup>100)</sup>

반데라의 최측근이자 레베드의 후임자로 이 시기 OUN-B 보안국의 수장이었던 미론 마트비엔코(Miron Matviienko)의 무능과 그에 대한 CIA의 신뢰 부족 또한 반데라에 대해 미국 측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 일조하였다. 마트비엔코는 미국이 OUN-B와 공동으로 추진한 세 가지 작전, “벨라돈나(Operation Belladonna: 서부 우크라이나의 OUN 조직을 통한 소련 내 정보수집 작전)”와 “링크스(Operation Lynx: 우크라이나인 난민 캠프에 침투한 소련 정보 요원 적발 작전”으로 1947년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Trident]’으로 개칭) 및 “우클레레(Operation Ukulele: 상기 작전 수행을 위한 이중간첩 요원 지원 활동)” 작전을 맡은 OUN-B 측 창구였으나,<sup>101)</sup> 마트비엔코에 대해 미국 측은 그가 “무능하고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라 평가하고 그를 해촉하게 되는데 CIA의 판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았다. 반데라 분파와의 협력을 중단한 CIA와는 달리 여전히 협력을 지속하던 영국 정보부 MI6의 반소련 첩보공작에서<sup>102)</sup> OUN-R 측 창구로 활약하던 이 인

*Chastini* OUN)”이었다(Volodimir Kovalchuk [2008], *Stepan Bandera*, Kiev: PP Natalia Brehunenkop, p. 49). “UHVR 외무위원회”가 OUN-Z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었듯이 “반데라의 해외국” 또한 OUN-R과 동일한 조직이었다.

100) Rudling, “‘Not Quite Klaus Barbie,’” p. 161. 반데라에 크게 실망한 CIA와 MI6는 전후 실제 마피아와 같은 수준의 조직 범죄자로 타락해 버린 이 인물이 암살당할 경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의 “순교자”가 될 가능성을 걱정했는데(NARA, RG 263, Entry ZZ-19, Box 10, “Aerodynamic,” “Operations,” Vol. 12, Folder 1, “Joint US-UK Conference,” January 20th, 1955), 이후 이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01)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Kevin C. Ruffner (1998), “Cold War Allies: The Origins of CIA’s Relationship with Ukrainian Nationalists,” Secret Study Paper, p. 29

102) CIA와 달리 MI6의 작전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는 영국 정보부 내 소련 정보기관 스파이망 “케임브리지 5인조(Cambridge ‘Five’)”의 존재, 특히 킴 필비(Harold Kim Philby)의 활약 덕분이었다. 이들 스파이를 통해 모든 정보가 건너간 탓에 소련 정보당국은 영국 침투 요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든 정보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Pavel Sudoplatov [1994], *Special Tasks: The Memoirs of an Unwanted Witness - A Soviet Spymaster*, Boston: Little Brown & Co, p. 257). OUN-B와 MI6의 침투 작전 저지를 맡은 최고 책임자는 소련 정보기관의 전설, “파벨 수도플라토프(Pavel Sudoplatov)”였는데, 그 자신부터가 벨리토폴 출신의 토종 우크라이나인이었던 이 인물은 1930년대부터 NKVD의 OUN 침투 공작을 담당하며 소련 정보기관 내 최고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로 꼽혔다. OUN 내부 침투 당시 “우크라이나어에 서툴거나 우크라이나 역사와 문화에 무지한” 서부 출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쳐 줄 정도로 우크라이나어에 능통했지만(*ibid.*, p. 38), 수도플라토프 자신은 그 누구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반대하고 소련 체제에 헌신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OUN 침투에 성공하자마자 OUN의 수장 코노발레츠의 측근이 되었으니, 코노발레츠는 경호원 없이 그와 단둘이서 여러 차례 시간을 보낼 정도로 수도플라토

물은, 1951년 MI6가 실시한 서부 우크라이나로의 낙하산 침투 작전 후 소련 측으로 전향하여, 자신의 “대자(代子)” 반테라를 배신하고 친소비에트 행보를 걷게 되기 때문이다.<sup>103)</sup>

미국의 최종 선택이 반테라가 아닌 레베드에게 떨어지고 OUN-Z가 CIA가 출범 직후 실시한 첫 반소비에트 공작인 이른바 “카르텔 계획(Project Cartel: 이후 에어로다이내믹[Aerodynamic] 계획으로 개칭)”<sup>104)</sup>의 유일한 우크라이나 측 파트너가 되었던 것에는 바로 이러한 내막이 있었다. 츠비카우 회동을 통해 OUN-Z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미국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정보를 조사/수집/분석하는 “이콘 계획(Project Icon)”의 일환으로 SSU 협력자로 일하던 헝가리계 난민 작가, 졸트 아라디(Zolt Aradi)를 통해 1946년 10월 OUN-Z 측과 접촉을 이미 시도한 바 있었다.<sup>105)</sup> 이 때 아라디와의 만남에 응한 이는 레베드의 측근 두 명으로, 독소전 발발 당시 나치 독일에 부역한 나흐티갈(Nachtigall) 대대에서 군목으로 근무한 바 있는 우니아트 교회 사제, 이반 흐리노호와, 역시 과거 나흐티갈 부대원이자 레베드의 최측근으로 훗날 미국 측과의 연락 담당관으로 활약하게 될 유리 로파틴스키(Iurii Lopatins’kii)였다.<sup>106)</sup> 이들 측근과의 회동 이후에야 아라디는 OUN-Z의 실제 수장 레베드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이 면담에서 레베드는 미국 측에 소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OUN-Z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을 요구했다.<sup>107)</sup> 아라디는 동년 12월 27일 이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보고서에서 아라디는 OUN-Z의 세 지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들[흐리노호와 로파틴스키, 레베드는]은 결의에 차 있고 유능한 자들이지만, ‘쫓기는 자’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그들은 자신의 신조를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거의 종교 수준으로 숭배하며 외국의 것들을 증오한다. ... 미국인들이 이 사람들을 적절히 대우한다면 쓸모가 있을 것이다.”<sup>108)</sup>

프를 신뢰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OUN 지도부 입성이 확실시되었을 정도로 조직 내 미래가 전도유망했던 이 NKVD 요원은 결국 스탈린이 직접 내린 지시에 따라 1938년 5월 네델란드 로테르담에서 코노발레츠를 암살했다. 1940년대 후반 소련의 UPA 진압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UPA 사령관 로만 슈헤비치를 사살한 특별 작전의 지휘자 역시 그였으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게는 “천적”과도 같은 존재였던 이 우크라이나인은 현재도 동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서”를 대변하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남아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포로지예(Zaporozh’e) 출신 우크라이나인 자원병으로 구성되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는 “파벨 수도플라토프 대대(Batal'on imeni Pavla Sudoplatova)”가 바로 그의 이름을 딴 부대이다.

103) 마트비엔코는 반테라의 최측근으로 반테라의 “대부(代父)”이기도 하였다.

104) OUN 계열 파시스트와의 협력 작전의 원 암호명은 원래 “안드로젠(Androgen)”이었으나, 이 작전이 소련 내부로 요원을 낙하산 침투시킨다는 계획으로 구체화되면서 “카르텔(Cartel)”로 개칭되었다(Ruffner, *Eagle and Swastika*, p. 13). 훗날 작전의 목표와 범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전면적인 반소비에트 선전 선동 공작으로 확대되면서 프로젝트 명은 또다시 “에어로다이내믹(Aerodynamic)”으로 개칭되었다.

105) Aradi, “Operation Belladonna”; “Project Icon.” 카톨릭 신자로 로마 교황청에 상당한 인맥이 있던 아라디는 역시 바티칸의 보호를 받으며 이 무렵 로마에 체류 중이던 레베드와 대화를 제안했다. 아라디를 레베드에게 연결시켜준 중개인은 바로 로마 교황청에 복미 우크라이나 우니아트 교회 대표로 주재하던 이반 부취코 대주교였다(Aradi, “Operation Belladonna”).

106) “Project Icon.”

107) *Ibid.*

108) Aradi, “Operation Belladonna,” p. 17

“적절히 대우한다면 쓸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라디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레베드와의 협력이 본격 시작되는 것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레베드의 조직은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인 난민 캠프에 침투한 소련 정보기관 요원 색출 작업에서 미국 측을 부분적으로 돕기 시작했지만,<sup>109)</sup> 이 도움은 OUN-Z 외에도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조직이 관여한 부차적 임무에 불과했다. 지연의 사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레베드가 아직은 OUN-B 소속이던 이 시점에서 반데라의 최측근, 미론 마트비엔코를 창구로 소련 내 정보 취득을 목표로 한 OUN-B와의 공동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베드와의 본격적인 협력은 이 작전의 실패가 확실해지고, OUN-Z가 OUN-B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과 독점적인 협력을 결정할 권한, 특히 이들을 “적절히 대우할” 실질적 권한은 궁극적으로 CIA가 아니라 본토의 미국 정부, 특히 백악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7년 3월 레베드와 반데라 간에 벌어진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OUN-Z가 OUN-B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공식 결별하는 것을 주저하고 여전히 한 울타리 내에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 이유에서였으니, OUN-R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주류 소수파였던<sup>110)</sup> 레베드 분파 입장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 표명 없이는 선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레베드의 목숨은 소련 정보당국만이 아니라 그를 배신자로 간주하던 반데라 추종자들 역시 노렸기에<sup>111)</sup> 1948년까지 레베드는 아라디의 평가대로 계속 “쫓기는 자”의 상태에 있었는데, 레베드의 목숨을 구한 것은 마침 때맞춰 나온 미국의 “카르텔 계획” 실시 결정이었다. 레베드와 OUN-Z와의 협력을 위한 공식 허가는 1948년 12월 초에 떨어졌다. CIA의 해외M국(Foreign Branch M) 국장 리처드 헬름스(Richard Helms)는 드디어 1948년 12월 3일 레베드와 OUN-Z와의 접촉을 전담하던 CIA 뮌헨 지국으로 급전을 보내 “이 그룹에 최선을 다해 접근하라”고 엄명했고,<sup>112)</sup> 이에 따라 CIA와 OUN-Z의 협력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1948년 말에 이르러 레베드 그룹과의 협력에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인가? 종전 후부터 1947년 전까지만 해도 레베드의 OUN-Z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을”의 처지에 가까웠다. 소련에 대한 정보 갈증으로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누구와 협력할지 고르는” 여유로운 “갑”의 입장에 가까웠는데, 1948년 말에 이르자 상황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미국 측이 을이 되어 간절하게 레베드의 협력을 요청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답은 이 무렵 CIA가 “카르텔 계획”의 첫 작품으로 비밀리에 준비하던 특수작전에서 찾을 수 있으니, 그 작전의

109) NARA, RG 263, Entry ZZ-19, Box 9, Folder 1

110) 미국 정보기관의 추산에 의하면 할리치나 출신 난민의 80%가 반데라 지지자였다(NARA, RG 263, Entry ZZ-19, Box 58, “QRPlumb,” Vol. 1, No. 1, “the Ukrainian Element”).

111) NARA, RG 85, Entry P3, Box 6, “Mykola Lebed,” Folder 1, “Correspondence between Captain Clarence Winecoff and Argyle Mackey,” June 20th, 1949. 반데라가 직접 내린 레베드 암살 명령에 더해, 레베드는 같은 우크라이나인 동족에 대해 그가 저지른 수많은 학살 전력 때문에 많은 우크라이나인 난민들(특히 그의 손에 동료와 가족을 잃은 OUN-M 계열 인사들)의 깊은 원한을 산 상태였다. 이처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매우 많았기에, CIA의 보호가 없었다면 레베드는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112) Ruffner, “Cold War Allies,” p. 36

내용과 이름은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 소련 영토 내로 우크라이나인 비밀 공작요원(암호명: “Apostle[사도]”)을 낙하산으로 고공 침투시키는 “사도 작전(Operation Apostles)”이었다. 레베드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사도 작전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내부로 통신 라인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의사 표명이었다.”<sup>113)</sup>

CIA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크라이나인 요원을 소련 내부로 침투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그 해답은 이 시기 미국이 느끼던 소련에 대한 격심한 공포에서 찾을 수 있으니, 사도 작전의 총괄책임자였던 CIA 뮌헨 지국장, 해리 로지츠크의 표현을 직접 빌자면 이 무렵 “백악관은 소련과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14)</sup> 1948년 여름 베를린 봉쇄로 치닫는 위기의 첫 징후가 나타난 1948년 4월 초 CIA에서는 「1948년 중 소비에트가 직접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Possibility of Soviet Direct Military Action during 1948)」이란 이름의 극비 보고서를 배포했는데,<sup>115)</sup> 이 보고서는 그동안 막연한 상상으로만 치부되어 온 제3차세계대전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의 영역으로 진지하게 언급된 최초의 문건이었다. 아직은 미국 혼자 핵무기를 독점하던 이 시점에서 CIA는 소련군의 선제공격이 논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추론했으나, 문제는 이 추론을 입증할 근거가 정보 부족으로 너무도 빈약하다는 점이었다.<sup>116)</sup> 소련의 거대한 지상군이 서유럽으로 진격할 경우 서방 연합국은 이 공세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철의 장막” 뒤에서 소련군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는 선제적인 징후 파악이 필수적이었지만, 미국 측에는 이를 위한 정보 자산이 부족했다. UPA가 그나마 존재감을 보이며 활동하던 1947년 이전 시기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소련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고, 바로 이 정보에 대한 갈망이 미국이 마트비엔코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OUN-B 보안국과의 정보 공조에 나선 이유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OUN-B와의 협력은 미국의 정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sup>117)</sup> 이러한 정보 부재의 상황은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를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트렸으니, 로지츠크는 이 무렵 공

113) NARA, RG 263, Entry ZZ-19, Box 9, “Cartel 2 Debriefing Report,” December 16th, 1949

114) Harry Rositzke (1977), *The CIA's Secret Operations: Espionage, Counterespionage, and Covert Action*, New York: Reader's Digest Press, p. 1

115) NARA, RG 263, Entry A1-22, “Intelligence Publication Files, 1945–1950,” “Possibility of Direct Soviet Military Action during 1948–49”

116) *Ibid.*

117) 미국 측은 벨라돈나 작전의 OUN-B 측 창구였던 미론 마트비엔코를 무능으로 질타하고 그를 해촉하기에 이르지만, 다른 정황을 보면 마트비엔코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베를린 봉쇄 이후 국경에 대한 소련 측의 경비가 갈수록 엄중해짐에 따라 소련 내부의 정보를 인편으로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CIA가 사도 작전을 기획한 이유였다. 한편 CIA는 마트비엔코가 1951년 소련 측으로 전향하기 전부터 소련에 포섭된 이중간첩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전모를 밝힌 수도플라토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트비엔코는 소련 MVD(*Ministerstvo gosudarstvennoi bezopasnosti*) 병력에 체포된 이후에야 전향했으며, 그를 설득하여 이반하게 만든 당사자는 같은 우크라이나인으로 그를 심문했던 수도플라토프 본인이었다. 수도플라토프에 의하면 마트비엔코가 전향한 계기는 심문 중 우연히 심문실 내 TV로 접한 “우크라이나어 오페라”였는데, 서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러시아 본토에 와 본 적이 없었기에 소련 내 실상을 전혀 몰랐고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어 오페라 공연을 구경조차 해 본 적이 없던 이 인물은, 소위 “우크라이나 문화를 탄압한다는 제국주의 러시아의 심장”에서 우크라이나어 오페라가 수시로 공연되고 우크라이나 문화예술이 기념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후 전향한 이 “반테라의 대부”는 소비에트 정권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Sudoplatov, *Special Tasks*, pp. 257-258)

포에 질린 미국 국방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펜타곤 회의장에서 열린 열띤 토론 중 회의에 참석한 한 군 대령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다. ‘나는 베를린에서 우랄 사이에 있는 모든 빌어먹을 [소련] 비행장에 배치된 [소련군의 선제공격 징후를 미리 보고해 줄] 통신 요원을 원한단 말이오!’”<sup>118)</sup>

사도 작전은 바로 그 통신 요원 파송을 위한 작전이었다. 미국 측은 특히 소련군 비행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던 제3차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소련군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침공에 미리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도와 무선 통신장비를 낙하산 고공 침투로 보내는 것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CIA의 판단이었다.<sup>119)</sup> 이 작전은 난이도는 물론이고 위험도 또한 매우 높았다. 우선 OUN-Z 소속 조직원 중에서 선발될 요원이 소련 내부로 엄중한 경계를 뚫고 침투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각오 없이는 실현하기 힘든 임무였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이 임무의 자원자를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OUN-Z에게 달려 있었다. 또한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부 우크라이나 현지 UPA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UPA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레베드는 반데라보다 더 책임자였다. 레베드는 바로 그 UPA가 출범시킨 소위 “범우크라이나 정부조직” UHVR의 외부 총서기인 동시에 그 UPA를 만든 당사자이자 전직 수장이었으며, 반데라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서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UPA를 이끌던 슈헤비치의 일방적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0)</sup> CIA 입장에서는 레베드보다 더 이상적인 협력 후보자는 없었으니, 1948년 12월 돌연 레베드가 “갑”이 되고 CIA가 “을”이 되는 관계의 역전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일어난 변화였다.

작전의 실행 가능 여부가 전적으로 OUN-Z의 협력 의사에 달려 있었던 만큼 CIA는 레베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소련으로부터 탈출한 자신의 부하를 다시 사지로 보낸다는 것은 레베드 역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으나, 1949년 1월 CIA는 레베드 설득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작전 수행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sup>121)</sup> 이 협력은 당연히 공짜가 아니었다. 난민 신분으로 독일에 체류하며 소련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반데라 그룹으로부터도 심지어 OUN-M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레베드와 그의 동료들을 위해, CIA는 이들을 서독으로부터 해외로 소개시킬 계획까지 수립하기 시작했고, 사도 작전 시행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는 뮌헨의 주거비나 생활비 또한 CIA가 전적으로 부담했다.<sup>122)</sup> 레베드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CIA를 위해 일

118) Rositzke, *The CIA's Secret Operations*, p. 21

119) Ruffner, “Cold War Allies,” pp. 37-38

120) 할리치나 현지에서 소련군과 전투를 벌이던 “조직의 4인자,” 슈헤비치는 1948년 7월 레베드가 대표하던 소위 “민주주의 노선”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다(Krichevs’kii, *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p. 52). 그의 메시지는 국경을 돌파하고 탈출한 요원에 의해 뮌헨으로 전달되어 반데라의 권위와 위상에 큰 상처를 입혔다.

121) NARA, RG 263, Entry ZZ-19, Box 11, “Aerodynamic,” “Operations,” Vol. 15. “Questionnaire on Ukrainian Emigration,” June 30th, 1957

하지 않았다. 레베드는 협력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내 UPA의 저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자신의 조직 구성원들이 북미의 이민자 공동체에서 운동의 대의를 설파하는 것을 CIA가 도울 것, 그리고 독일 외 타국에서 조직 지도자들의 활동을 CIA가 전적으로 지원할 것과 자신의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을 걸었으니,<sup>123)</sup> 이러한 조건들은 레베드에게 있어 “서방의 동맹 세력에게 우리의 해방투쟁과 목적을 알린다”는<sup>124)</sup> 자신이 UHVR로부터 부여받은 외무 총서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레베드의 요구는 명확했다. CIA의 작전에 협조하는 대신 그는 자신과 가족의 미국 행과 더불어 OUN-Z가 추구하던 우크라이나 독립 투쟁의 대의와 목적을 알리기 위한 미국 내 활동공간을 원했던 것이다.

CIA는 이 모든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이르면 OUN-Z는 요원 선발과 서부 우크라이나 현지의 지원 확보를 책임지고, CIA는 요원의 훈련과 무선통신 장비 공급 및 침투용 비행기 마련을 맡은 우크라이나로의 대소련 침투 작전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자원자를 찾고 선발된 요원에게 낙하산 훈련과 라디오 작동법과 같은 필수 훈련을 시키기 위한 수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9년 9월 5일 드디어 대망의 첫 작전이 시작되었으니, 이날 밤 서독의 미국 점령지에 자리한 한 비행장에서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CIA 소속의 C-47 수송기 한 대가 이륙하였다.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카르파티아 산맥 동쪽 서부 우크라이나의 구릉 지대였다. 소련의 대공 감시망을 피해 리보프시 상공에 도착한 비행기에서는 2인의 우크라이나인 탑승객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고, 4일 후 이 두 명의 요원은 자신들의 무사 도착을 무전으로 알렸다.<sup>125)</sup>

물론 1945년 9월 5일의 첫 침투는 시작에 불과했고, CIA는 1952년 여름까지 세 차례 더 낙하산 침투로 우크라이나인 요원을 보냈다. 작전 자체로만 보면 낙하산 강하 침투까지는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진짜 난관은 다음 단계였는데, 공중 강하 과정에서 흩어져 착지할 수 밖에 없었던 요원들 상당수가 현지 UPA 조직과의 접선에 실패하고 체포되거나 사살되었기 때문이다. 침투 자체는 성공적이었던 1949년 9월 5일의 첫 작전부터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무사 도착을 알린 요원들이 현지 조직과의 접촉에 성공하지 못하고 소련 당국의 추적을 받아 체포되는 대참사로 끝났기 때문이었다.<sup>126)</sup> 4명의 요원이 강하하여 3명은 연락이 끊기고 한 명만이 생존한 1950년의 두 번째 침투 역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에 그쳤는데, 그나마 두 번째 작전은 생존 요원이 현지 조직과의 접촉에 성공하고 기지 관측은 물론 다시 국경을 돌파하여 귀환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MVD(*Ministerstvo gosudarstvennoi bezopasnosti*) 병력에 의한 로만 슈헤비치 사살이라는 주요 정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CIA는 이를 부분적인 성공으로 평가했다.<sup>127)</sup> CIA

122) NARA, RG 319, Entry A1134-B, Box 457, “Lebed, Mykola,” Folder 1, “Memorandum for Lt. Caslin from Steve Haider, 1947”; Ruffner, *Eagle and Swastika*, p. 12

123) Ruffner, “Cold War Allies,” p. 39

124) Panchenko, *Ukrainsk'ka holovna vizvol'na rada*, p. 159

125) Rositzke, *The Cia's Secret Operations*, pp. 18-19

126) *Ibid.*, p. 28

127)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 ERR, “Memorandum for Chief of Foreign Intelligence,” “An Evaluation of the Aerodynamic Project”, June 22nd, 1955, “Aerodynamic,” Vol. 2, Document 30

입장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작전은 레베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OUN-B와 OUN-Z의 고위 간부였던 바실 오희리모비치(Vasil Ohrimovich)가 직접 참가한 1951년 5월의 세 번째 공중 강하였다. 총 4명의 OUN-Z 요원이 참가한 이 작전은 결과적으로 전 요원이 귀환에 실패하였으나,<sup>128)</sup> 가장 오랫동안 소련군 기지를 관측하며 미국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소련군 준비 태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CIA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오희리모비치는 1952년 8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장장 1년간 기지 감시를 수행하고 무려 16차례나 관측 결과를 송신하며 CIA의 기대에 전적으로 부응하였다.<sup>129)</sup> 오희리모비치를 돕기 위해 1952년 8월 2인의 요원이 추가로 강하하여 성공적으로 침투했으나, 이 작전이 사실상 마지막 사도 작전이였다.<sup>130)</sup>

결과적으로는 침투 요원 거의 전원이 사망하거나 체포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고대하던 정보 획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CIA의 기준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던 작전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은 “작전의 성공”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요원들로부터 소련군 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은 CIA는 그 결과에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이는 소련의 공세가 임박했다는 CIA의 예상과는 달리 소련군에는 전쟁 준비를 시사하는 별다른 특이 사항 자체가 “전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131)</sup> 사실 사도 작전의 결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바로 소련군의 공세를 기정사실로 확신하고 이들 상부에 예보했던 CIA 자신이었으니, 다시 로지츠키 본인의 회고를 직접 인용해 보자면, 침투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요원에게는 “보고해야 할 조기경보 사항 자체가 없었다. 서유럽으로 공세를 위해 움직이는 소비에트 사단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미국을 향해 이륙하는 전략 폭격기는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이다.”<sup>132)</sup> 돌이켜 보면 사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 시기의 소련에게는 미국과 전쟁을 치를 의사도 그럴 능력도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으니, 서유럽 침공 계획 자체가 없었기에 그에 따른 군대의 기동이 관측될 리 만무했고, 보고할 내용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작전의 지속은 무의미했던 것이다. 사도 작전은 결국 제3차세계대전 임박이라는 공포에 빠진 채 소련의 의도를 오판한 미국 측의 어처구니없는 “망상”이 만들어낸 무의미한 공작이었으니, 다른 아닌 작전의 책임자였던 로지츠키 본인부터가 이 시기 백악관과 국방부 및 CIA를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 전체가 가지고 있던 이 “망상”에 대해 훗날 회고록에서 아래와 같은 통렬한 비판과 반성을 남겼다.

128) *Haluzevii derzhavnii arkhiv Sluzhbi Bezpeki Ukraini* (hereafter cited as “HDA SBU”), f. 13. spr. 372, t. 40, ark. 157, as cited in Oleksandr Ponipaliak (2022), “Spivpratsiia OUN iz SSHA ta Velikoioi Britaniiieu u 1945-1955 rr.,” *Etnichna istoriia narodiv Evropi*, 67, p. 94. 도착 직후 오희리모비치는 함께 침투한 “2인의 요원은 사망을 추정하고 1인은 실종”되었으며 접선이 예정된 “2인의 현지 연락원 역시 사망했다”는 보고를 송신했다(*ibid.*). CIA가 2인의 요원을 추가 파송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손실 때문이었다. 오희리모비치 자신은 1954년 4월까지 활동하다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129) *Ibid.*; NARA, RG 263, Entry ZZ-19, Box 11, “Aerodynamic,” “Operations,” Vol. 15. “Questionnaire on Ukrainian Emigration,” June 30th, 1957

130)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February 25th, 1952, “Aerodynamic,” Vol. 1, Document 62

131) HDA SBU, f. 13. spr. 372, t. 40, ark. 157, as cited in Ponipaliak, “Spivpratsiia,” p. 94; Rositzke, *The Cia’s Secret Operations*, p. 29

132) *Ibid.*

“냉전의 정서 이면에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 어느 누구도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대계획을 실현할 러시아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것은 ‘망상(Illusion)’에 불과했다. 강력한 러시아라는 유령은 전쟁과 산산조각난 경제 ... 로 약화된 이 나라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sup>133)</sup>

그러나 이 “망상”의 대가는 너무도 컸다. 침투 요원 체포 후 심문을 통해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소련 당국이 전면 대응에 나선에 따라 그동안 “철의 장막”과 같은 수사로만 존재하던 냉전이 진정한 대결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전면적 “열전” 발발을 막고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 외려 “냉전”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으나, 소련의 대응과 반응에는 물론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겪었던 나라에, 바로 그 나치 독일과 협력하여 민간인을 학살하던 악명높은 반소비에트 파시즘 집단의 소속 조직원이 그것도 소련 측이 가장 적대시하던 OUN 소속의 학살 범의자가, 그것도 무려 불과 몇 년 전까지 나치 독일에 대항한 전쟁을 함께 치른 동맹이었던 국가의 요원이 된 채 낙하산을 타고 소련 영토에, 그것도 안보적으로 가장 민감한 우크라이나에 침투하는 상황만큼 소련에 충격과 배신으로 다가온 사건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도의와 관행은 고사하고라도 국제법을 완전하고도 철저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것도 “먼저” 무시한 미국의 이 작전은 소련의 시선에서 볼 때 미국이 소련을 완전한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에 다름 아니었으니, 곧 냉전 발발로 이어지는 미국과 소련 양국 간 “오해의 악순환”은,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무려 3천만 명에 달하는 참담한 인명 피해를 겪어야 했던 나라가, 무려 “유럽 적화를 위해 곧바로 또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채 OUN이라는 범죄적 과거를 가진 “악마”와의 협력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미국의 무모한 반소비에트 공작이 초래한 결과였던 셈이다.

#### IV. 에필로그 - “롱디스턴스(Long Distance) 파시즘?”

사도 작전이 진행되던 1949년 10월 4일 레베드와 그의 가족은 CIA의 주선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sup>134)</sup> CIA는 즉시 레베드의 미국 정착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레베드의 입국과 미국 체류는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이 인물의 과거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35)</sup> 예컨대 레베드의 기록을 검토한 이민국의 한 관리

133) *Ibid.*, p. 14. 강조는 필자.

134) NARA, RG 85, Entry P3, Box 5, “Mykola Lebed,” Folder 1. 미국 첫 입국 시 레베드는 CIA의 요청에 따라 그의 정체를 감추도록 “가명”을 사용했는데, 비자와 입국 심사 서류에 적힌 그의 이름은 “로만 투란(Roman Turan)”이었다. 그의 딸과 아내도 똑같이 가명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ibid.*).

135) 이런 반응을 당연히 예상했던 CIA는 레베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이민국에 극히 “일부 자료”만을 공개했으나, 그 “일부”만으로도 이 학살마의 과거 행적에 이민국이 충격을 받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는 그의 범죄적 과거에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레베드에게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CIA의 요청에 대해 공문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감정적 언사까지 구사하며 다음과 같이 일갈하였다. “[이 자는] 우크라이나인 [동족]과 폴란드인 및 유대인을 죽인 ‘완전한 살인자(Wholesale Murderer)’입니다.”<sup>136)</sup> 사안의 심각성에 경악한 이민국은 국장 자신이 직접 나서 항의하며 이 학살 범죄자의 추방을 피하였으나,<sup>137)</sup> CIA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CIA는 이민국의 항의를 묵살하고 거의 2년에 걸친 지속적 압박 끝에 결국 레베드의 합법 체류를 관철하게 되니, CIA 부국장 앨런 덜레스가 이민국을 설득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해당 인물(레베드)은 1948년 이래 CIA와 협력해 오며 국가 정보 임무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그의 지식과 인맥은 ... CIA의 작전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sup>138)</sup> CIA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레베드는 결국 가족과 함께 뉴욕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후 레베드를 기다리던 미래는 CIA의 극진한 보살핌 및 풍성한 경제적 지원 아래 시민권까지 획득하며 자유의 민주 반공투사이자 애국적 미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뉴요커”로서의 장밋빛 인생이었다.

CIA는 사도 작전의 준비와 진행에서 레베드에게 큰 빛을 쬐지만, 이 악명 높은 민간인 도살자가 CIA의 보호 아래 무려 미국 시민이 되어 “뉴욕의 아이히만”이 탄생하게 되는 이렇듯 황당한 상황을 OUN-Z의 희생에 대한 CIA의 보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학살 범죄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 냉전기 CIA의 최장수 국장, 앨런 덜레스의 서한이 보여주듯, CIA가 레베드를 미국으로 데려오고 훗날 극진히 보호하게 되는 것에는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었으니, CIA는 레베드를 이용한 또 다른 장대한 반소비에트 우크라이나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사도 작전의 기반이 된 카르텔 계획은 소련 내부에 대한 정보 획득과 내부 교란을 목표로 한 일종의 간첩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이 진행되던 중 CIA는 이 계획의 암호명을 “에어로다이내믹”으로 개칭하며 반소비에트 공작의 정의와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니, CIA의 기밀문건이 적시한 “에어로다이내믹 계획”의 목적은 아래와 같았다. “소련의 영향력을 침식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내에서 이 공화국을 겨냥한 작전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며 실행에 옮긴다.”<sup>139)</sup>

즉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보공작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측면에서 소련의 약한 고리를 겨냥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기도하는 장대한 반소비에트 공작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CIA가 발견한 소련의 “약한 고리”는 바로 우크라이나였는데, 그 이유는 종전 후 수년간 OUN 계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CIA는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이들의 광기 어린 광신적 민족주의와 결기 어린 반공

136) NARA RG 85, Entry P3, Box 6, “Mitchell Solomon’s Memorandum to Mr. T. Avery,” March 20th, 1951. 강조는 필자.

137) NARA, RG 85, Entry P3, Box 6, “Re: MYKOLA LEBED”

138)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Lebed, Mykola,” Document 22, “Allen Dulles’s Secret Letter to the INS Commissioner,” May 5th, 1952

139) NARA, RG 263, Entry ZZ-19, Box 11, “Aerodynamic,” “Operations,” Vol. 10. “Ukrainian SSR – Operational Program,” August 8th, 1952

반소비에트 정서, 그리고 소련에 대한 한결같은 증오에 큰 인상을 받고 이에 감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소위 독립 투쟁을 위해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의 배를 가르며 학살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던 이들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의 악마적 과거는 CIA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레베드에 대한 텔레스의 평가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미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철두철미한 반소비에트 “민주 반공투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래 CIA가 이들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들의 투철한 반소비에트 반공 이데올로기였으나, CIA는 곧 이들의 이데올로기에는 다른 반소비에트 반체제 그룹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로지츠크가 발견한 그 차이란 바로 이들이 사실 “반소비에트”가 아니라 “반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이었다.<sup>140)</sup>

나치 독일과 유사하게 우크라이나를 소위 순수 혈통에 기반한 “종족 기반 민족공동체”로 정의하며, 이에 따라 한때 폴란드-우크라이나 혼혈 영유아를 무려 “민족의 적”으로 선언하고 우선적으로 학살할 정도로, 타자와의 그 어떠한 공존 및 타협 가능성도 거부하던 OUN식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파괴적 잠재력과 함의에 CIA가 주목하고 이를 이용하게 되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OUN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아버지” 드미트로 돈초프(Dmitro Dontsov)의 등장 이래 급격하게 우향우하여 파시즘 민족 혁명을 꿈꾸던 증오의 이데올로기였으나,<sup>141)</sup> CIA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큰 관심이 없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던 OUN 구성원들의 범죄적 과거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이 추구하던 파시즘 이데올로기 또한 “소련의 영향력을 침식시키고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을 거꾸러트리기 위해서라면 CIA는 그 누구든 심지어 OUN과 같은 “악마”와도 기꺼이 계속 손을 잡을 용의가 있었다.

레베드와 OUN-Z는 바로 “소련의 영향력을 침식시키고 약화시키는” 작전을 위해 CIA가 선택한 독점적인 협력 파트너였다. 여러 정황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간헐적으로 나오는 우크라이나 측 관련자들의 회고들은<sup>142)</sup> 냉전 기간 내내 소련이 해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CIA의 비밀공작이 시도되었음을 시사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사도 작전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이들 작전들의 구체적 전모를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그중 몇 사례가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예컨대 최근의 한 연구는 국제

140) Rositzke, *The CIA's Secret Operations*, p. 27

141) 돈초프에 대해서는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pp. 163-172을 보라.

142) 예컨대 레베드의 후임자로 프롤로그를 이끌었던 로만 쿠프친스키(Roman Kupchinsky)는 2008년 자신이 CIA와의 조율 아래 1990년 여름 우크라이나의 KGB 수장, 예브헨 마르츠크(Evhen Marchuk)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Roman Kupchinsky, “Ukrainian independence and Soviet Ukraine’s KGB [a Memoir],” *Ukrainian Weekly*, 47, November 22th, 2009, p. 8). 이전까지 반평생을 KGB에 재직하며 프롤로그와 CIA의 공작에 맞서 싸워 온 마르츠크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소련 해체 당시 하루아침에 “열렬 민족주의자”로 변신한 수많은 구소련 노멘클라투라 중 한 명이었다. 쿠프친스키는 마르츠크와의 면담 사실을 밝히면서도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이 만남에 대해 레베드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프롤로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노년의 레베드는 자신들과 수십 년에 걸쳐 대결해 오다 갑자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로 돌변한 이들 노멘클라투라를 믿지 않았고, 이들과 프롤로그 간의 협력을 반대하는 (비록 CIA의 만류로 접었지만) 성명서 발표를 고려하기도 하였다(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Lebed, Mykola,” Document 66, “Meeting with QRPlumb/2,” Aug. 16th, 1990).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올림픽 게임에도 CIA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1960년 로마 올림픽의 경우 그 실무 담당자가 바로 로마 현지로 파견된 “CIA 요원” 레베드와 카민스키였음을 폭로하고 있지만,<sup>143)</sup> 소련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망명을 이끌어 냈으로써 소련의 위신에 상처를 주려던 “CIA가 기획하고 레베드가 실행한” 이 비밀공작이 로마 올림픽 한 건으로 한정되었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소련이 참여하던 거의 모든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 레베드와 OUN-Z가 관여한 유사한 공작이 있었으리라 추론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겠지만 그 구체적 실상 확인은 공개된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번에는 소련 대신 “러시아의 영향력을 침식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비밀공작 진행이 유력시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기밀문건들의 추가 조기 공개는 앞으로도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지금까지 그나마 기밀 해제된 자료로, 그리고 소련 해체 후 관련 인물들의 “자기과시를 위한 예상치 않은 고백” 덕분에 현 시점에서 어렵잖게나마 윤곽을 그려낼 수 있는 CIA의 반소 우크라이나 공작 중 하나는 “에어로다이내믹”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민간 출판사 “프롤로그(Prolog)”을 중심으로 진행된 “큐알플럼(QRPlumb: 프롤로그의 CIA 암호명)”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144)</sup> 레베드가 1952년에 설립한 프롤로그는 일견 뉴욕에 본부를 두고 뮌헨에 지부를 둔<sup>145)</sup> 평범한 “우크라이나 지역학” 전문 출판사처럼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언어 및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대중서와 전문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으로 냉전 시기 그 이름을 크게 떨친 프롤로그는, 소위 우크라이나학 진흥에 관심을 가진 여러 독지가들의 후원 속에서 운영되는 평범한 민간 연구재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위장했으나,<sup>146)</sup> 자타가 공인하는 학살 전문가였던 “뉴욕의 아이히만”이 돌연 전문 학술서적을 출간하는 언론인이자 출판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에는 물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이는 반소비에트 선전 선동 공작을 목적으로 OUN-Z가 CIA의 비밀 자금 지원 아래 운영하던 미국 정부의 특수공작 조직이 바로 프롤로그의 진정한 정체였기 때문이다.<sup>147)</sup>

143) Austin Duckworth & Thomas M. Hunt (2019), “Espionage in the Eternal City: the CIA, Ukrainian Émigrés, and the 1960 Rome Olympic Games,” *Journal of Intelligence History*, 18-2, pp. 233-252. 정치와 무관한 올림픽 경기에도 CIA가 개입하여 펼친 소련의 메달리스트 망명 공작을 처음으로 파헤친 이 연구는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한 CIA의 집착이 얼마나 강박적이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CIA가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이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소련의 위신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었다.

144) Taras Kuzio (2012), “U.S. Support for Ukraine’s Liberation during the Cold War: a Study of Prolog Research and Publishing Corpor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5-1/2, p. 54. OUN-Z 조직원이었던 프롤로그 관련 인사들이 한 때 극비 기밀 사항이었고 (현재도 관련 자료 상당수가 여전히 기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 자신들의 문제적 과거를 털어놓은 이유는,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독립에서 자신들의 기여를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으니, 상기 글의 저자 타라스 쿠지오부터가 “레베드 키즈”의 일원이었다.

145) 뉴욕에 자리한 본사는 레베드 본인이, 뮌헨 지부(Ukrainische Gesellschaft für Auslandsstudien)는 그의 최측근 이반 흐리노호가 운영했다(NARA, RG 263, Entry ZZ-19, Box 9, “Aerodynamic,” Vol. 5, “Chief [of] Soviet Bloc Division to Assistant Deputy Director for Plans”).

146) 프롤로그가 CIA의 하부 조직이라는 사실은 프롤로그에 고용된 직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극비기밀 사항이었다. CIA가 내린 모든 작전 명령은 오로지 레베드나 그의 측근 카민스키 및 뮌헨 지부장 흐리노호와 같은 최고 위급 임원, “6인”에게만 공개되었다.

147) *Ibid.*; Roman Kupchinsky, “Ukraine during the Cold War: the Role of Prolog Research Corp.,” *Ukrainian Weekly*, November 30th, 2008, p. 10, p. 20; NARA, RG 263, Entry ZZ-19, Box 58, Vol. 1, “A Synopsis of QRPlumb Operations, 1946-[1987]”

CIA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1988년까지<sup>148)</sup> 무려 26년간이나 지속된 이 작전은 CIA의 원 의도였던 “소련의 영향력을 침식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에는 사실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지하듯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연방의 해체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CIA는 프롤로그를 통해 이반 지바(Ivan Dziuba)나 발렌틴 모로즈(Valentin Moroz)와 같은 우크라이나 내 반체제 인사들의 사미즈다트(*Samizdat*) 저작물의 우크라이나 내 비밀 유통과 해외 번역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점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련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sup>149)</sup> OUN의 발상지로 여전히 추종자가 남아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적어도 1990년 이전까지) 중부와 동부의 우크라이나인들은 프롤로그를 통해 발신되는 증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예컨대 1930년대 초 우크라이나 대기근<sup>150)</sup>을 다루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983년 작 TV 다큐멘터리 『절망의 수확(*Harvest of Despair*)』<sup>151)</sup>은, 대기근이란 역사적 비극을 무려 홀로코스트와 비견되는 “우크라이나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로 조작하여 이를 우크라이나 현지에 유포하려던 CIA의 프롤로그를 통한 기획 공작 중 하나였음을 CIA 자신의 기밀문건이 확인해 주고 있으나,<sup>152)</sup> (막상 대기근 당시에는 폴란드의 일부로 대

148) Kupchinsky, “Ukraine,” p. 20

149) Kuzio, “U.S. Support,” p. 55

150) 스탈린의 폭력적인 근대화가 만들어낸 이 비극은 우크라이나인은 물론이고 러시아인과 카자흐인 또한 큰 피해자였지만, CIA와 프롤로그는 동 시기에 일어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대기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기근은 농민에 대한 수탈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 자본을 마련하려던 스탈린의 무자비한 집단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 “인재”였으나, 스탈린 체제의 폭압성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카자흐인을 결코 차별하지 않았다. 한편 홀로도모르 신화를 반증하는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그 중 극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의 같은 연구들이 연구사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에 대해서는 R. Davies & S. Wheatcroft (2003), *The Years of Hunger: Soviet Agriculture, 1931–1933*, London: Palgrave를 보라. 러시아 “본토”의 대기근 및 그 참상에 대해서는 Viktor V. Kondrashin (2008), *Golod 1932-1933 gg. v Rossiiskoi Federatsii (RSFSR)*, Moscow: Rossiiskaia politicheskaia entsiklopediia; V. A. Poliakov (2020), “K voprosu o prichinakh goloda 1932-1933 gg.: na materialakh Nizhnego Povolzh'ia,” *Voprosy Istorii*, 3, pp. 42-52를 참고하라. 카자흐스탄 대기근에 대해서는 Sarah Cameron (2018), *The Hungry Steppe: Famine, Violence, and the Making of Soviet Kazakhstan*, Ithaca: Cornell Univ. Press를 보라. 특히 카자흐 대기근 연구자인 사라 카메론은 북미 우크라이나 학계가 주장하는 “고의적 제노사이드” 가설에 대한 가장 강경한 비판자 중 한 명으로, 그녀의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meron (2018), “Question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Ukrainian Famine,”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27-3, pp. 460-464를 보라.

151) *Harvest of Despair: The Unknown Holocaust The Great Famine in Ukraine, 1932-1933* (1983), Documentary, Director: Slavko Nowytski, Produced by: Slavko Nowytski, Yuriy Luhovy, the Ukrainian Canadian Research & Documentation Centre (UCRDC) in Toronto, Starring: Jon Granik, Joan Karasevych, Eric Peterson (Documentary Film, 55 min.)

152) NARA, RG 263, Entry ZZ-19, Box 58, Vol. 1, “A Synopsis of QRPlumb Operations, 1946-[1987].” 『절망의 수확』의 TV 방영은 CIA가 의도한 대로 그간 주로 북미 우크라이나 공동체 내부 담론으로 남아 있던 “홀로도모르 신화”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대기근 희생자의 사진”을 영상에 담아 소위 “홀로도모르의 참상”을 널리 알린 이 TV 다큐멘터리는 실상 심각한 역사 왜곡이었는데, 이는 이 영상에서 소위 “홀로도모르”의 증거로 제시한 시각 자료들 거의 전부가 사실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1921년에서 23년까지 3년간에 걸쳐 5백만 명(최대 추산 1,0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를 낸 “볼가 및 우랄 대기근”의 “러시아인 피해자들”의 사진들이었기 때문이다(Douglas Tottle [1987], *Fraud, Famine, and Fascism: the Ukrainian Genocide Myth from Hitler to Harvard*, Toronto: Progress Books, p. 79). 이러한 조작 사실은 해당 영상 제작 당시 자료 관련 자문을 맡았던 캐나다의 우크라이나계 역사학자, 마르코 카리닉(Marco Carynnyk)의 고백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캐나다 언론인 더글라스 토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진위 공방의 결과 제작진은 결국 영상 속 증거 사진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음(Not verified)”을 공식 인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비록 증거들은 모두 조작이지만] 내러티브에는 사실이 담겨 있다”는 기이한 입장을 고수하였다(“Widely Acclaimed Famine Documentary Questioned on Footage Authenticity,” *Ukrainian*

기근 피해지역이 아니었던 서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이러한 왜곡 시도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 현지의 반향은 지극히 미미했다.<sup>153)</sup> CIA가 그토록 과대평가한 OUN식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실로 소련의 존재 기간 내내 (적어도 고르바초프가 시작한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재건]”로 소련 체제가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소련 체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으니, 1991년 8월 보수파 군부 쿠데타 실패로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가 기정사실이 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의 공산당 노멘클라투라는 사회주의 연방의 이상에 지극히 충실한 집단으로 남아 있었다.<sup>154)</sup>

돌이켜 보면 이 공작이 성공을 거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전의 목표이자 대상이었던 소련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작전의 본거지이자 기지였던 미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롤로그를 통한 CIA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내 반체제 운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북미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작전의 목표였던 소위 “소련 점령하 식민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른바 “우크라이나 해방”을 지원하던 미국 자신이 OUN-Z의 파시즘 세계관을 내면화하고 이에 점차 동화되는 기이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해외 공작을 위해 생산하는 역정보(Disinformation)의 “미국 내 유포”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에, 소련을 겨냥한 프롤로그 발 “허위 정보”의 제작 및 유포 공작이 엉뚱하게도 미국 사회, 특히 학계와 시민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물론 CIA가 처음부터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전 시작으로부터 28년 후인 1990년 CIA 내 “큐알플럼” 공작 감사관은 “하버드 대학과 몇몇 우크라이나인 교회 관련 그룹들(Harvard University and certain Ukrainian church-affiliated groups)”이 프롤로그에서 나오는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구독해 온 당혹스러운 상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 문제적 상황이 관련 법령(행정명령 12333호)<sup>155)</sup>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 간행물들의 미국 내 구독 금지와 나아가 프롤로그 공작의 완전 중단

*Weekly*, January 18th, 1987, p. 1. p. 12). “홀로도모르 프로파간다”의 첫 시작부터 이러한 희극적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적십자사와 같은 구호단체의 국제적 도움을 받은 탓에 그 참상이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는 1921년 러시아 대기근과 달리, 1931년의 소비에트 대기근은 그 존재 자체를 은폐했던 스탈린 체제의 철저한 통제 탓에 남아 있는 자료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현재도 인터넷 상의 각종 검색엔진에서 “홀로도모르” 아사자들로 나오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1921년 볼가/우랄 대기근의 “러시아인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한번은 레닌의 “전시 공산주의”로 인하여 10년 후에는 스탈린의 “집단화”로 인해 인육을 먹는 최악의 대기근을 무려 2차례나 겪어야 했던 볼가강 연변의 “러시아인 (및 타타르인과 독일인) 농민들”이야말로 소비에트 체제가 가한 폭정의 최대 피해자 집단 중 하나일 것이다.

153) 훗날 벌어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대기근의 피해를 심하게 입었던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 대부분이 공고한 “친러시아 지역”이 되고 막상 그와 완전히 무관했던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 사건을 인위적인 제노사이드로 조작하는 이른바 “홀로도모르 신화”의 근거지가 된 것은, CIA의 반소 우크라이나 공작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54) 물론 소련 해체와 더불어 소련 공산당이 사라지자, 이들 모두는 자신의 기존 특권 유지를 위해 하루아침에 열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로 재탄생하게 되니, 상기 각주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예브헨 마르츠크가 바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평소 투철한 공산주의자로 반평생을 “CIA가 보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간첩”을 사냥하던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KGB 수장”은, 독립 직후 우크라이나 보안국(*Sluzhba bezpeki Ukraini*)의 “최초 수장”이 되어 하루아침에 민족주의자로 돌변하는 공산당 출신 구소련 노멘클라투라의 전형적 인생 궤적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계형 민족주의”는 우크라이나만의 현상이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하여 구 소련에서 독립한 거의 모든 신생독립국가에서 관측되는 현상이었다. 마르츠크는 훗날 독립 우크라이나의 4대 총리직을 역임하였다.

155) Executive Order 12333.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codification/execut>

을 긴급히 강력권고하게 되지만<sup>156)</sup>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시점에 이르면 CIA의 기획 아래 프롤로그가 수십 년간 제작/유포해 온 “조작된 사실들”이 영동하게도 우크라이나 본토가 아니라 미국 사회 내, 특히 북미의 대학들에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상좌: 소위 “홀로도모르” 소녀상의 모델이 된 1921년 불가우랄 대기근 당시 “러시아 소녀”

상중: 상기 러시아 소녀와 그 가족들

상우: 위 러시아 소녀를 모델로 만들어진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 추모 소녀상

It is called the forgotten holocaust—a time when Stalin was dumping millions of tons of wheat on the Western markets, while in Ukraine, men, women and children were dying of starvation at the rate of 25,000 a day, 17 human beings a minute. Seven to 10 million people perished in a famine caused not by war, not natural disasters, but by ruthless decree.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is great tragedy the story is finally being told. Since 1981, the Ukrainian Famine Research Committee has been gathering materials, seeking out eye-witnesses and documenting this unprecedented event. HARVEST OF DESPAIR is the product of this effort.

The film probes the tragic consequences of the Ukrainian nation's struggle for greater cultural and political autonomy in the 20s and 30s. Through rare archival footage, the results of Stalin's lethal countermeasures unfold in harrowing detail. Highlighting the film are intensely moving eye-witness

accounts of survivors of the famine, as well as such noted Irish intellectuals as Peadar Kirby, a former Soviet General, British journalist Malcolm Muggeridge, Ambassador Johann Von Herwarth, the then German Attaché in Moscow and Andor Hencke, then German Consul in Ukraine and others.

In 1985, the film "Harvest of Despair" won seven award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These include the first prize at the Houst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he Government and World Relations category, the Chris Statuette award at the Columb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he Social documentary category, and both a gold and grand award at the International Film and T.V. Festival in New York.

*The 1932-33 Famine in Ukraine*

# Harvest of Despair

Program

4:00	Light Supper
4:45	Historical overview: <i>Forsaken Famine in Ukraine</i> Dr. Orest Subtelny, Professor of History, York University
5:00	Film: HARVEST OF DESPAIR
6:00	Panel discussion: <i>Why teach the 1932-33 forced famine in Ukraine?</i>
	Panelists:
	Dr. Yarey Boshyk - Research Fellow, Harvard Ukrainian Research Institute
	Nola Crewe - Vice-chairman, Toronto Board of Education
	Valya Kurylo - History Teacher, York Board of Education
	Larry Moonyk - History Teacher, Hampshire Collegiate Institute
	Marco Carynnyk, Writer and Researcher
	Moderator: Alex Chumak - Trustee, Toronto Board of Education
7:40	Adjourn

RSVP by Nov. 12 - 591-8335

하: “홀로도모르 신화 조작”의 직접적 기원이 된 1983년 미국 PBS 다큐멘터리 『절망의 수확』 광고 포스터

사진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 문서고(상좌와 상중),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 추모관(상우), PBS 다큐멘터리 『절망의 수확』(하)

냉전 시기 북미의 대학에서 레베드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 아래 꽃피우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지역학 관련 전공 학과와 연구소들의 주요 연구 어젠다가 무엇이였을지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및 폴란드와 공유한 수백 년 간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집단

ive-order/12333.html (검색일: 2024.09.05.)

156) CIA, FOIA, Special Collection NWCDA, ERR, “QRPlumb,” Vol. 5, “Development and Plans,” Document 35, “Audit of Operational Activity QRPlumb”

기억에 대해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전면적 조작과 재구성 및 왜곡을 시도하는 OUN 특유의 “배제적 민족주의”였다. 현재와는 달리 역사상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인 대다수(특히 중부와 남부 및 동부 우크라이나)의 주류 견해가 아니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일부, 그것도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만 추종자들이 있었던 OUN의 파시즘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엉뚱하게도 우크라이나 본토가 아닌 북미의 대학과 연구소에 공고히 뿌리내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우크라이나 파시즘이 기생하는 “숙주 국가”로 만들며, 현재의 미국 정책결정권자들이 무려 “돈초프와 반데라 그리고 레베드의 시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역사적 관계를 바라보게 만든 이른바 “롱디스턴스(Long Distance) 민족주의”<sup>157)</sup> 또는 “롱디스턴스 파시즘”이라는 기이한 현상이야말로, “뉴욕의 아이히만”이 프롤로그 공작을 통해 이뤄낸 진정한 성과였던 것이다.

프롤로그의 활동이 정점에 달한 냉전 후반기는 북미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프롤로그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레베드 키즈(Lebed Kids)”가 실로 본격 태동한 시기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뉴욕의 프롤로그 사무실은 북미 전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프롤로그의 지원을 받는 (대다수가 OUN-B 계열) 우크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 우크라이나학 전공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과거 자코파네와 리보프 및 볼린에서 벌어진 소위 “우크라이나 독립 투쟁(을 빙자한 학살)”에 대한 OUN과 UPA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를 듣는<sup>158)</sup> “롱디스턴스 파시즘”의 사랑방에 다름 아니었으니, 현재도 학계 주류로 활동하며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미 우크라이나 전공 (미국 국적)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OUN-Z를 추종하던 “레베드 키즈” 출신이라 해도 결코 과장은 아닐 것이다. OUN-Z의 파시즘 세계관에 따라 철저히 훈련된 이들 “레베드 키즈”가 학위 취득 후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전직 민간인 학살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예컨대 193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덮친 대기근을 무려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고의적인 학살”로 철저히 조작하고<sup>159)</sup> 이를 통해 우

157) Per Anders Rudling (2020), “Long-Distance Nationalism: Ukrainian Monuments and Historical Memory in Multicultural Canada,” in S. Marschall, eds, *Public Memory 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isplacement*, London: Palgrave, pp. 95-126

158) Kuzio, “U.S. Support,” p. 57. 레베드는 또한 은퇴 후 북미 전역의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 내 “레베드 키즈”를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파시즘 운동의 대의를 적극 설교했는데, 예컨대 1979년 12월 3일 하버드 대학 우크라이나 연구소 (Harvard Ukrainian Research Institute)에서 열린 강좌에서 학살마 출신의 이 “초빙 강사”가 맡은 우크라이나어 강연의 제목은 “OUN과 1930년대 국제정세”였다(<https://huri.harvard.edu/event/seminar-ukrainian-studies-391> [검색일: 2024.09.05.]).

159) 소련 농업사 전공 연구자들에 의해 철저히 반증되어 학계에서는 사실상 사장된 채 북미 우크라이나 공동체의 내부 담론으로만 남아 있던 “홀로도모르의 신화”가 최근 다시 되살아 난 계기는 2017년에 출간된 “비우크라이나계” 미국 언론인 앤 애플바움(Anne Applebaum)의 저작 『붉은 기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탈린의 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Anne Applebaum [2017], *Red Famine: Stalin's War on Ukraine*, New York: Doubleday). OUN과 “레베드 키즈” 및 CIA의 시각을 철저히 반영한 이 책은 그 저자가 우크라이나계 이민자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반색한 북미 우크라이나인 공동체의 암묵적 지원 아래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후 미국 사회를 휩쓴 반러시아 친우크라이나 정서에 편승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언론의 호평과는 달리 진지한 학술연구 성과로 간주하기 어렵다. 소위 “우크라이나 [농촌]에 대한 스탈린의 전쟁”을 묘사한 이 저작은 역시 같은 시기에 벌어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농촌에 대한 스탈린의 전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바움의 사례와 상반되게 이 무렵 북미 우크라이나 역사학계의 한 거장은, 애플바움이 옹호한 “홀로도모르의 신화”에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레베드 키즈”의 본거지 중 하나인 앨버타 대학 사학과와 명예교수 존-폴 힘카(John-Paul Himka)였다.

크라이나인들을 무려 유대인과 같은 반열의 “제노사이드 피해자”로 만들며 홀로코스트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책임까지 면책시키고자 한 이른바 “홀로도모르(*Holodomor*)의 신화”라든가,<sup>160</sup> 미국 슬라브 언어학계가 돌연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어와 공통 조상을 가지는 동슬라브계 제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우크라이나어 독자 발생론”의 발상지가 되고,<sup>161</sup> 대다수가 홀로코스트 참여 경력을 가진 우크라이나인 자원병으로 구성되어 나치 독일에 끝까지 충성했던 무장 친위대 할리치나 사단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무려 “학술연구서”의 이름 아래 등장하며,<sup>162</sup> 무려 UPA 전사 출신의 전범이 북미의 저명한 소비에트학(*Sovietology*) 연구자가 되어 OUN과 UPA의 역사를 “독립운동”으로 포장하고,<sup>163</sup> 1917년 우크라이나 혁명이 줄지에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으로 변신하며, OUN의 학살자들이 주창하던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본원주의적 해석과 인종주의적 세계관이 북미 대학에서 나온 소위 “우크라이나 역사 개설서”에 의해 영미 학계의 학술 헤게모니를 빌어 아무런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sup>164</sup> 이제 미국

그 자신이 우크라이나인 이민자 혈통으로 본인 역시 열혈 민족주의자였던 힘카가 분연히 나서 “홀로도모르 신화”를 부인한 이유는 북미의 우크라이나 역사학계에서 “학술연구”의 이름 아래 수십 년간 횡행해 온 자료의 조작과 사실 왜곡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힘카의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hn-Paul Himka (2013), “Encumbered Memory: The Ukrainian Famine of 1932–33,”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14-2, pp. 411-436을 보라.

- 160) 홀로도모르(*Holodomor*)는 “기아(*Holod*)”에 의한 살인”이란 의미로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조어된 합성어이다. “레베드 키즈”가 홀로도모르 신화 유포에 열심이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인이 유대인과 같은 반열의 “제노사이드 피해자”가 되는 순간, 나치 독일 못지않게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OUN 계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의 범죄적 과거가 회색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161)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pp. x-xi. 이를 주도한 인물은 컬럼비아 대학 슬라브 언어학 교수로 스스로를 “언어학의 흐루셴프스키”로 자화자찬하던 조지 셰벨로프(*George Shevelov*)였는데, 이 인물 역시 OUN 계열의 부역자였다(*ibid.*).
- 162) 예컨대 Taras Hunczak (2000), *On the Horns of a Dilemma: The Story of the Ukrainian Division Halychyna*,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를 보라. 타라스 훈차크는 “레베드 키즈”의 주요 구성원으로, 『빌리지 보이즈』의 고발 기사 당시 레베드 보호를 위해 앞장선 인물이었다.
- 163) 북미의 저명 소비에트학 전공 정치학자, 피터 포티치니(*Peter [Petro] Potichnyj*)는 1947년 소련군의 추격을 피해 탈출한 UPA 서부군 소속 전사 중 한 명으로(*Peter J. Potichnyj [2008], My Journey, 4 Vols., Toronto: Litopis UPA, Vol. 1, pp. 46-91*), 그를 소련 송환의 운명에서 구한 것은 미국 측에 이들의 “보호”를 요청했던 레베드와 OUN-Z의 탄원서였다(“A Note to the Secretary of State Mr. George C. Marshall by the General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Supreme Ukrainian Liberation Council,” in *Mykola Lebed (1948), UPA in Western Europe*, New York: Ukrainian Press Service, pp. 7-9). 이처럼 레베드에게 큰 빛을 준 포티치니는 다른 UPA 전범들처럼 미국으로 건너간 후 학계에 투신하여 북미 우크라이나 학계 “레베드 키즈”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영미권 독자를 대상으로 기획되어, OUN의 파시즘을 레베드식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로 포장하며 UPA의 범죄적 과거를 “삭제”해 버린 OUN-Z의 정치적 프로퍼간다, 『우크라이나 지하운동의 정치적 사유』가 바로 그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이다(*Peter Potichnyj & Yevhen Shtendera [1986], eds., Political Thought of the Ukrainian Underground, 1943-1951*, Edmonton &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y Press). 또한 포티치니는 UPA의 범죄 행각을 “독립운동의 대서사시”로 왜곡하는 『우크라이나 봉기군 연대기(*Litopis Ukrain's'koi povstans'koi armii*)』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였다.
- 164) 이러한 부류의 저작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가장 최근의 것으로 북미의 우크라이나인 역사가, 세르히 플로히(*Serhii Plokhyy*)의 우크라이나사 개설서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OUN식 인종주의 역사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Serhii Plokhyy [2015], The Gates of Europe: A History of Ukraine*, New York: Basic Books). 『유럽의 문』이라는 제목 자체가 노골적으로 시사하듯 세르히 플로히의 역사해석에는 “러시아는 유럽이 아닌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아시아’의 일원”이고 우크라이나는 문명의 본고장인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며, “유럽의 문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아시아적 야만에 맞서는 유럽 문명의 방어선”이라는 OUN의 세계관이 그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참고로 플로히가 소장자로 재직하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우크라이나 연구소에서는

과 캐나다 학계의 주류 연구자로 성장하여 양국 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들 “레베드 키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전 선동 공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들 “레베드 키즈”의 기여는 미국과 캐나다로 한정되지 않았다. 북미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학계를 장악한 레베드의 파시즘 세계관은 곧 1991년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본토로 역수출되었고,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를 덮친 정치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 속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급격히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크나큰 분란의 씨앗을 뿌리게 되니, OUN-Z의 “롱 디스틴스 파시즘”이야말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완전한 분열과 “민족의 적”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이 사라진 “인종적으로 순수한 우크라이나”를 그토록 소망하며 아기와 어린이, 여성과 노인을 집중적으로 도살하고, “유홍”을 위해 길거리에서 유대인 청년을 납치/고문/살해하는 취미를 가졌던 “뉴욕의 아이히만” 미콜라 레베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보스턴과 뉴욕, 앨버타와 토론토 등 북미 주요 도시에서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변영하며, 목표했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미국을 먼저 바꾸어버리고, 나아가 소련 해체 후에는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영향을 끼치며, 동슬라브 형제 국가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극단적 증오에 기반한 전쟁의 씨앗을 뿌리게 될 이 공작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며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서 깊이 고찰해 볼 계획이다.

---

레베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미콜라 레베드는 ... 1930년대와 1970년대 사이 우크라이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다([https://huri.harvard.edu/browse-collections?sv\\_list\\_box\\_delta=1590594563&pager\\_id=0&destination=node/1309911&page=1](https://huri.harvard.edu/browse-collections?sv_list_box_delta=1590594563&pager_id=0&destination=node/1309911&page=1) [검색일: 2024.09.05.]).” 레베드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없는 이 소개야말로, 하버드 대학 내 “레베드 키즈”가 하버드란 이름의 권위 뒤에서 추구해 온 역사 조작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역사 공정”의 별거벗은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 문서고 자료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Record Group 85 -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Record Group 263 -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Record Group 319 - Records of the Army Staff

## 신문기사

Blumenthal, Ralph, “Nazi Hunter Says C.I.A. Has Files On Man Accused of War Crimes,” *New York Times*, Sept. 17th, 1992, p. 10  
Crouch, Wallace, “A Russian Priest on His Head,” *Daily Telegraph*, May 7th, 1965, p. 3  
Conason, Joe, “To Catch a Nazi,” *The Village Voice*, Feb. 11th, 1986, pp. 17–21  
Kupchinsky, Roman, “Ukraine during the Cold War: the Role of Prolog Research Corp.,” *Ukrainian Weekly*, November 30th, 2008, p. 10, p. 20  
\_\_\_\_\_ “Ukrainian Independence and Soviet Ukraine’s KGB (a Memoir),” *Ukrainian Weekly*, 47, November 22th, 2009, p. 8  
“Mykola Lebed Still Fights for His Country,” *News-Weekly*, June 3rd, 1965  
“Widely Acclaimed Famine Documentary Questioned on Footage Authenticity” *Ukrainian Weekly*, January 18th, 1987, p. 1. p. 12

## 논문 및 단행본

고광열 (2024), 『검은 땅의 경계인: 우크라이나 도시 역사문화 기행』. 프시케의숲  
구자정 (2023),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박영사  
Antoniuk, Iaroslav, Volodimir Trofimovich & Liliia Trofimovich (2020), “Orhani Bezpeki OUN(M) u period druhoi cvitovoi viini,” *Ostroz'ka akademiia*, 30, pp. 29-35  
Applebaum, Anne (2017), *Red Famine: Stalin's War on Ukraine*. New York: Doubleday  
Balei, Petro (1996), *Frona Stepana Banderi v OUN 1940 roku - prichini i naslidki*. Kiev  
Bazyler, Michael J. & Frank M. Tuerkheimer (2014), “The Trial of Feodor Fedorenko, Treblinka Relived in a Florida Courtroom,” in *Forgotten Trials of the Holocaust*.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pp. 247-274  
Breitman, Richard & Norman J. W. Goda (2010), *Hitler's Shadow: Nazi War Criminals, U. S. Intelligence, and the Cold War*. Washington, D. 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Bul'ba-Borovests', Taras (1981), *Armiia bez derzhavi: slava i trahediia ukrains'koho povstans'koho rukhu*. Winnipeg: Redaktsiina Kolehiia SLD i tovaristvo “Volin”  
Burds, Jeffrey (2001), “The Early Cold War in Soviet West Ukraine, 1944-1948,” *Carl Beck Papers in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1505, pp. 1-70

- Burds, Jeffrey (2010), *Shpionazh i natsionalizm: pervyi gody 'kholodnoi voiny' na Zapadnoi Ukraine (1944–1948)*. Moscow & New York: Sovremennaia Istoriia
- Cacciatore, Francesco A. (2021), “Re-evaluating the Émigrés: Intelligence Collection and Policy-making in the Early Cold War,” *Journal of Intelligence History*, 20-2, pp. 126-145
- \_\_\_\_\_, & Stephen Long (2023), “One Size Does Not Fit All: Rollback Orthodoxy and Anglo-American Covert Action in Albania and Ukraine in the Early Cold Wa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4, pp. 599-619
- Cameron, Sarah (2018), *The Hungry Steppe: Famine, Violence, and the Making of Soviet Kazakhstan*. Ithaca: Cornell Univ. Press
- \_\_\_\_\_. (2018), “Question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Ukrainian Famine,”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27-3, pp. 460-464
- Davies, R. & S. Wheatcroft (2003), *The Years of Hunger: Soviet Agriculture, 1931–1933*. London: Palgrave
- Douglas, Lawrence (2016), *The Right Wrong Man: John Demjanjuk and the Last Great Nazi War Crimes Tria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Duckworth, Austin & Thomas M. Hunt (2019), “Espionage in the Eternal City: the CIA, Ukrainian Émigrés, and the 1960 Rome Olympic Games,” *Journal of Intelligence History*, 18-2, pp. 233-252
- Goda, Norman J. W. (2017), ed., *Rethinking Holocaust Justice: Essays across Disciplines*. Berghahn Books: New York
- Himka, John-Paul (2013), “Encumbered Memory: The Ukrainian Famine of 1932–33,”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14-2, pp. 411-436
- Hunczak, Taras (2000), *On the Horns of a Dilemma: The Story of the Ukrainian Division Halychyna*.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Kamins’kii, Anatol’ (1996), *Vid nasil’noi do mirnoi revoliutsii*. New York: Vidannia Politichnoi Radi OUN za kordonom
- \_\_\_\_\_. (2009), *Proloh u kholodnii viini proti Moskvi: Prodovzhennia vizvol’noi borot’bi iz-za kordonu*. Hadiach: Vidavnistvo “Hadiach”
- \_\_\_\_\_. (2009), “Do henezi ukrains’koi holovnoi vizvol’noi radi u 65-littia ii stvorennia,” in P. J. Potichnyj & M. Posivnych, ed., *Litopis UPA - Ukrain’s’ka holovana vizvol’na rada*, kn. 7. L’vov & Toronto: Litopis UPA, pp. 5-21
- Kolisnik, Roman (1980), *Viiskova Uprava ta Ukrainska Diviziia “Halichina”: Diial’nist’ Viis’kovoï Upravi ta nimets’ka politika vidnosno ukrains’kikh natsional’nikh zbroinikh sil v rokakh 1943-1945*. Toronto: Shevchenko Scientific Society of Canada
- Kondrashin, Viktor V. (2008), *Golod 1932-1933 gg. v Rossiiskoi Federatsii (RSFSR)*. Moscow: Rossiiskaia politicheskaia entsiklopediia
- Korman, Aleksander (2003), *Ludobójstwo UPA na ludności polskiej: Dokumentacja fotograficzna*. Wrocław: Nortom
- Kosakivs’kii, Mikita (1977), “Z nedavn’oho minuloho,” *Nashe Slovo*, 5, pp. 69-70
- Krichevs’kii, Roman (1962), *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v Ukraini, OUN (z) i zh OUN*. New York & Toronto: Vidannia Politichnoi Radi Odnodumtsiv OUN v SSHA
- Kuzio, Taras (2012), “U.S. Support for Ukraine’s Liberation during the Cold War: a Study of Prolog Research and

- Publishing Corpor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5-1/2, pp. 51-64
- Lebed, Mykola (1948), *UPA in Western Europe*. New York: Ukrainian Press Service
- [Lebed, Mykola] (1961), *Zlochyni komunistichnoi Moskvi v Ukraini vliti 1941 roku*. New York
- \_\_\_\_\_ (1987), *UPA – Ukrains’ka povstans’ka armii*. New York & Munich: Vidavnitstva ‘Proloh i Suchasnist’
- Loftus, John (2010), *America’s Nazi Secret: an Insider’s History*. Walterville, OR: TrineDay LLC
- Marchuk, Ihor (2009), *Komandir UPA-Pivhich Дмитро Кличківський “Клим Савур.”* Rivne: Vidavets’ Oleh Zen’ Mihailiuk, Bohdan (1950), *Bunt Banderi*
- Mirchuk, Petro (1970), *Roman Shukhevich (hen. Taras Chuprinka) - komandir Armii Bezsmertnikh*. Toronto: Tovaristvo kolishnikh voiakiv UPA v ZSA Kanadi i Evropi
- Mosley, Leonard (1978), *Dulles: A Biography of Eleanor, Allen, and John Foster Dulles and Their Family Network*. New York: The Dial Press/James Wade
- Motyka, Grzegorz (2006), *Ukrainska partyzantka 1942–1960: Dzialalnosc Organizacji Ukrainskich Nacjonalistow i Ukrainskiej Powstanczej Armii*. Warsaw: Rytm
- \_\_\_\_\_ (2022), *From the Volhynian Massacre to Operation Vistula - the Polish-Ukrainian Conflict 1943–1947*. Leiden: Brill
- Motyl, Alexander J. (1985), “Ukrainian Nationalist Political Violence in Inter-War Poland,” *East European Quarterly*, 19-1, pp. 45-54
- Ozarowski, Filip (1995), *Gdy płonął Wołyń*. Chicago: Wici. *Wołyn Aflame* (1997), trans. by Jan Peczkis from Polish to English. Wici
- Panchenko, Oleksandr (2004), *Ukrainsk’ka holovna vizvol’na rada*. Hadiach: Vidavnitstvo “Hadiach”
- Piotrowski, Tadeusz (2008), ed., *Genocide and Rescue in Wołyn: Recollections of the Ukrainian Nationalist Ethnic Cleansing Campaign Against the Poles During World War II*. Jefferson, N. C.: McFarland
- Plokhyy, Serhii (2015), *The Gates of Europe: A History of Ukraine*. New York: Basic Books
- Poliakov, V. A. (2020), “K voprosu o prichinakh goloda 1932-1933 gg.: na materialakh Nizhnego Povolzh’ia,” *Vopros Istorii*, 3, pp. 42-52
- Ponipaliak, Oleksandr (2022), “Spivpratsiia OUN iz SSHA ta Velikoiu Britaniieiu u 1945-1955 rr.,” *Etnichna istoriia narodiv Evropi*, 67, pp. 92-97
- Potichnyj, Peter & Yevhen Shtendera (1986), eds., *Political Thought of the Ukrainian Underground, 1943-1951*. Edmonton and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y Press
- \_\_\_\_\_ (2008), *My Journey*, 4 Vols. Toronto: Litopis UPA
- Prusin, Alexander V. (2007), “A Community of Violence: The SiPo/SD and Its Role in the Nazi Terror System in Generalbezirk Kiev,” *Holocaust and Genocide Studies*, 21-1, pp. 1–30
- Rashke, Richard (2013), *Useful Enemies: America’s Open-Door Policy for Nazi War Criminals*. New York: Delphinium Books
- Rudling, Per Anders (2017), “‘Not Quite Klaus Barbie, but in That Category,’ Mykola Lebed, the CIA, and the Airbrushing of the Past,” in Norman J. W. Goda, ed., *Rethinking Holocaust Justice: Essays across Disciplines*. Berghahn Books: New York, pp. 158-187
- \_\_\_\_\_ (2020), “Long-Distance Nationalism: Ukrainian Monuments and Historical Memory in Multicultural Canada,” in S. Marschall, ed, *Public Memory 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 Displacement*. London: Palgrave, pp. 95-126
- Ruffner, Kevin C. (2003), *Eagle and Swastika: CIA and Nazi War Criminals and Collaborators*.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Shankovs'kii, Lev (2009), “Initsiativnii komitet dlia stvorennia Ukrainsk'koi holovnoi vizvol'noi radi, postannia i diia v 1943-1944 rr. - spohad i komentar -,” in P. J. Potichnyj & M. Posivnych, ed., *Litopis UPA - Ukrainsk'ka holovana vizvol'na rada*, kn. 7. L'vov & Toronto: Litopis UPA, pp. 42-83
- Sidorchik, Andrei. “Delo Chernogo Fedora. Kak ukrainets iz Dzhankoia stal natsistskim palachom,” *Argumenty i Fakty*, Sept. 19th, 2022 ([https://aif.ru/society/history/delo\\_chernogo\\_fedora\\_kak\\_ukrainec\\_iz\\_dzhankoya\\_stal\\_nacistskim\\_palachom](https://aif.ru/society/history/delo_chernogo_fedora_kak_ukrainec_iz_dzhankoya_stal_nacistskim_palachom) (검색일: 2024.09.05))
- Simpson, Christopher (1988), *Blowback: America's Recruitment of Nazis and Its Effects on the Cold War*.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Snyder, Timothy (2003), “The Causes of Ukrainian-Polish Ethnic Cleansing, 1943,” *Past and Present*, 179, pp. 197-234
- Stakhiv, Evhen (1999), *Kriz tiurni, pidpillia i kordony*. Kiev: Rada
- Struve, Kai (2022), “Theodor Oberländer and the Nachtigall Battalion in 1959/60 - an Entangled History of Propaganda, Politics, and Memory in East and West,” *Slavic Review*, 81-3, pp. 677-700
- Sudoplatov, Pavel (1994), *Special Tasks: The Memoirs of an Unwanted Witness - A Soviet Spymaster*. Boston: Little Brown & Co
- Sukhovs'kii, Mikola (1997), *Moi spohadi*. Kiev: Vidavnistvo, “Smoloskip”
- Terles, Mikolaj (1993), *Ethnic Cleansing of Poles in Volhynia and Eastern Galicia, 1942-1946*. Toronto: Alliance of the Polish Eastern Provinces
- Thomas, Evan (2006), *The Very Best Men: The Daring Early Years of the CIA*.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Tottle, Douglas (1987), *Fraud, Famine, and Fascism: the Ukrainian Genocide Myth from Hitler to Harvard*. Toronto: Progress Books
- Rebet, Dariia (2009), “Do pochatkiv UHVR (Spohadi, komentari, refleksii),” in P. J. Potichnyj & M. Posivnych, ed., *Litopis UPA - Ukrainsk'ka holovana vizvol'na rada*, kn. 7. L'vov & Toronto: Litopis UPA, pp. 84-102
- Rositzke, Harry (1977), *The CIA's Secret Operations: Espionage, Counterespionage, and Covert Action*. New York: Reader's Digest Press
- Viatrovich, Volodimir (2007), ed., *Ukrains'ka Povstans'ka Armiia – Istoriiia neskorenikh*. L'viv: Tsentr doslidzhen' vizvol'noho rukh
- Volchuk, Roman (2002), *Spomini z peredvoiennoho L'vova ta voiennoho Vidnia*. Kiev: Kritika

문학/역사 분과

문화/역사 분과 C:

**‘포스트’ 시대의 러시아 영화 서사와 그 특징**

사회: 이지연 (고려대, 한러대화 문화예술분과 간사위원)

- ▶ 애국주의에서 탈서구화까지: 후기 푸틴 시대의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주요 경향 연구 ..... 237
  - 발표: 라승도 (한국외대)
  - 토론: 조준래 (한국외대)
  
- ▶ 시상식을 통해 본 러시아 영화, 2022년 이후 ..... 247
  - 발표: 황기은 (서울대)
  - 토론: 이희원 (상명대)
  
- ▶ 2022-2023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여성 서사 -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을 중심으로 - ..... 257
  - 발표: 홍상우 (경상국립대, 한러대화 문화예술분과 위원)
  - 토론: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 애국주의에서 탈서구화까지

- 후기 푸틴 시대의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주요 경향 연구 -

라승도 (한국외대)

### 러시아 영화와 외래 요소의 영향

- ◆ 러시아 영화사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외래 요소의 유입·수용·존재임
- ◆ 1896년 ‘영화의 도착’부터 10여 년간 러시아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은 프랑스 출신의 영화 제작자이자 흥행주인 샤를 파테와 레옹 가몽의 회사 등 외국계 영화사들이 독차지함
- ◆ 외국에서 찍은 이국적 풍경의 낯설고 신기한 이미지가 스크린 장악·장식함

### 러시아 영화와 외래 요소의 영향

- ◆ 알렉산드르 드란코프와 알렉산드르 한존코프의 러시아 영화사 설립(1907년과 1908년)과 함께 러시아 풍경 이미지 등장
- ◆ 외국 영화사들이 초창기 러시아 영화산업에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러시아 영화 발전에도 일조함
- ◆ 블라디미르 로마시코의 「**스텐카 라진**」(1908)
  - ▶ 이국적 인상을 짙게 풍기는 페르시아 공주의 이미지
  - ▶ 외래 요소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스크린 위에서 선보임

## 러시아 영화와 외래 요소의 영향

- ◆ 주로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세계 인물들이 러시아 스크린에 꾸준하게 등장하고 묘사됨.
- ◆ 프랑스 코미디 배우 막스 린더(1883~1925) 등이 연기한 인물들과 「스페이드의 여왕」(1916)과 「작은 엘리」(1918) 같은 각색 영화들에서 야코프 프로타자노프가 묘사한 외국인 인물들
- ◆ 분명한 점은 **외국인 인물의 등장과 묘사**가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 이후 국유화 등으로 급변한 러시아 영화산업에서 분명한 **이념적 성격과 선전적 목적** 속에 이뤄졌다는 사실임.

## 웨스트 씨, 볼셰비키 나라에 온 미국인

「볼셰비키 나라에서 웨스트 씨가 겪은 이상한 모험」  
(레프 쿨레쇼프, 1924)

- ◆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 권력이 들어선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미국인 웨스트(West) 씨와 그의 경호원 제디
- ◆ 웨스트와 제디, 엘리 등 미국인들의 도입과 묘사
- ◆ 서부극 스타일 등 미국 영화 기법들의 동원과 적용
- ◆ 세비키 국가의 안전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선전

## 마리온 덕손, 서구인에서 소련인으로

「서커스」

(그리고리 알렉산드로프, 1936)

- 미국에서 백인 여성 마리온 덕손이 흑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인종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핍박을 받다가 소련으로 건너와서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야기
- 미국인 여성의 등장과 묘사는 궁극적으로 차별과 착취가 만연한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 체제보다 관용과 포용의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전하는 데 동원됨

## 마리온 덕손, 서구인에서 소련인으로

- ◆ 자본주의 체제의 미국과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에서는 피부 색깔이 달라도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고 있음이 분명하게 강조
- ◆ 소련에서는 인간 차별과 혐오, 착취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인간 자유와 평등, 관용과 포용, 통합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보장됨

## 탐욕과 파괴의 서구인

### 「시베리아의 이발사」 (1998)

- 러시아와 그 국민에 관한 긍정적이고 진심 어린 이미지를 서구에 보여주고 러시아인들에게는 서구인들이 얼마나 번덕스럽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의제 아래 기획된 영화
- 19세기 말 러시아는 사람들이 마슬레니차 축제에서 캐비아를 한 손가락씩 퍼먹고, 알렉산드르 3세 황제는 장교들과 함께 보드카로 건배하고, 젊은 러시아 사관생도들은 떠들썩하고 혈기 왕성한 해도 주정 부리지 않고 명예로 뚝뚝 뭉쳐 있는 그런 나라로 제시됨

## 탐욕과 파괴의 서구인

### 「시베리아의 이발사」 (1998)

- 칼라한 부인(줄리아 오몬드)이 대표하는 서구인들은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이고 위험하며 맥크레켄(리차드 해리스)처럼 돈을 벌려고 러시아 풍경을 사정없이 파괴하는 사람으로 묘사
- 러시아는 스크린을 가득 채우곤 하는 순백의 눈만큼이나 정신적으로 순수하지만, 러시아의 호의와 친절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배신을 일삼는 서구인들이 제멋대로 구는 나라로 제시됨

## 모스크바의 노르웨이인

### 「노르웨이인」 (2015)

러시아인 예브게니와 노르웨이인 브룬힐드의 남녀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반전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러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세계의 생활 조건보다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중앙시아 출신의 인종적 타자들까지도 포함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관용과 포용, 유대와 연대를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

## 모스크바의 노르웨이인

노르웨이 여성 브룬힐드는 노르웨이에서 자신이 읽고 상상했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등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유명 작가들을 자주 언급하고 인용함.

이는 브룬힐드가 러시아 문학을 그만큼 잘 알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브게니는 그녀의 모스크바 도착을 고대하면서 “브룬힐드! 체호프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의 요람에서 당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함.

## 모스크바의 노르웨이인

- 러시아 문학을 즐겨 읽고 사랑한다는 말이 러시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도 브룬힐드는 자신이 러시아 문학을 읽고 쌓은 경험을 통해 러시아 현실에 접근하려 들.
- 이는 그녀가 예브게니와의 관계에서 파경을 맞이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 관해 썼다”라고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나며 그녀는 “쇼콜라드니차 카페에서 사람들이 아편굴 속에서처럼 담배를 피우는” 러시아는 자신이 상상하고 보고 싶었던 러시아가 아니라고 말함.

## 모스크바의 노르웨이인



## 러시아 영화의 아시아 선화: 중국인

「**세상의 끝으로**」(2017)



중국인들은 주로 사업가나 장사꾼으로 등장하고 있어 러시아 극동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의 일반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긍정성은 러시아인 남자 주인공 미샤가 결혼 상대로 자신의 러시아인 여자친구 넬랴를 포기하고 젊은 중국인 여성 야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강조됨.

## 러시아 영화의 아시아 선화: 중국인

「**세상의 끝으로**」(2017)

- ◆ 중국인의 긍정성은 청혼을 망설이는 미샤를 재촉하다 못해 강제하는 듯한 넬랴의 강압적 여성 이미지와 현저하게 대비되는 야오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음.
- ◆ 야오의 아버지는 밀리온카나 인접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중국식당을 운영하면서 러시아어를 서툴게 말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외동딸을 끔찍이도 아끼는 따뜻한 부성애와 가족애를 보여주기도 함.

## 러시아 영화의 아시아 선화: 중국인

### 「세상의 끝으로」(2017)

- ◆ 중국인의 이미지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띤.
- ◆ 영화 주인공 미샤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친구 넬라를 찾아 모스크바에서 멀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다가 결국 여기서 발견한 넬라 대신 우연히 마주친 야오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것으로 암시되는 이야기에서 러시아 영화의 ‘아시아 선화’ 경향이 러시아 정부의 ‘전통적 가치’ 중시 정책과도 밀접하게 결부돼 있음을 확인함.

## 러시아 영화의 아시아 선화: 중국인

### 「나는 어떻게 러시아인이 되었나」(2019)



## 러시아 영화의 동방 선회

- 블라디보스토크는 2010년대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정책과 '아시아 선회' 노선이 낳은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최근 2~3년 사이에 나온 영화에서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다.
- 알렉산드르 안드류셴코의 <파트너>(2017)와 올가 주예바의 <동네에서>(2018), 일리야 악쇼노프의 <세상의 끝으로>(2019) 같은 영화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만연한 범죄나 비리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서 급변하기 시작한 이 도시의 새롭고 산뜻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러시아 영화의 동방 선회

- 최근 러시아 영화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영화가 제작되어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만 아니라 일부 영화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와 아시아의 극적 만남을 위한 핵심 무대 공간으로 등장하여 극동이 러시아 영화의 중요한 일부로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사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영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 일례로 10년 전인 2009년에 니콜라이 호메리키 감독이 만든 영화 <어둠의 동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한다.



## 시상식을 통해 본 러시아 영화, 2022년 이후

황기은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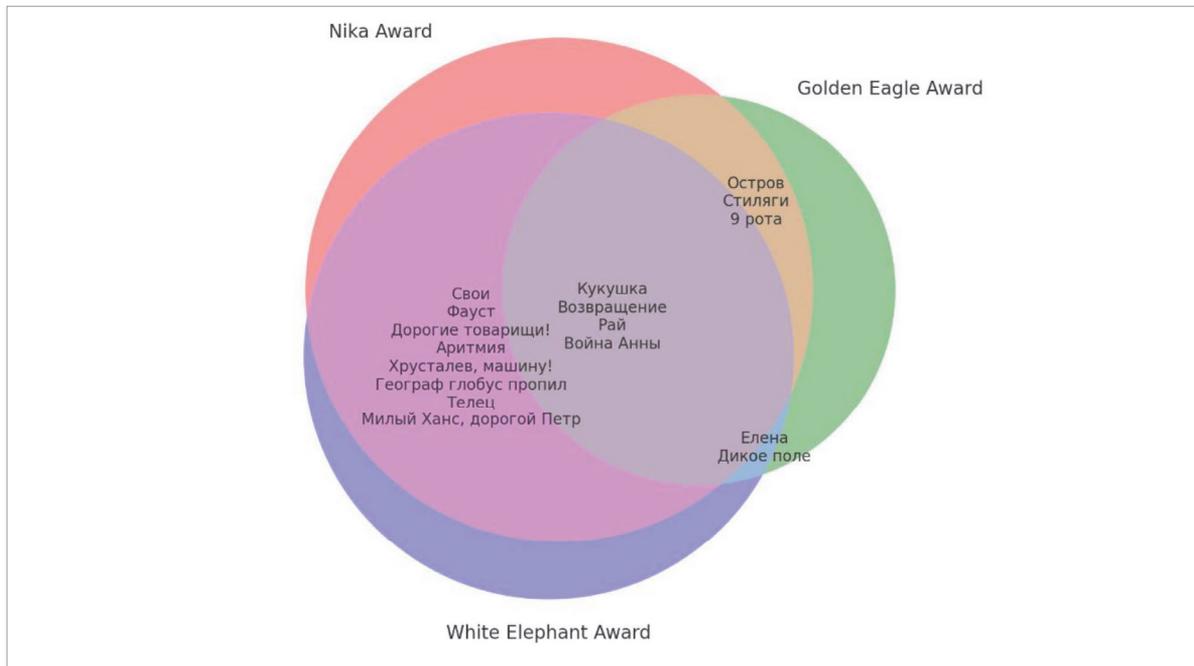
### 러시아 영화계, 202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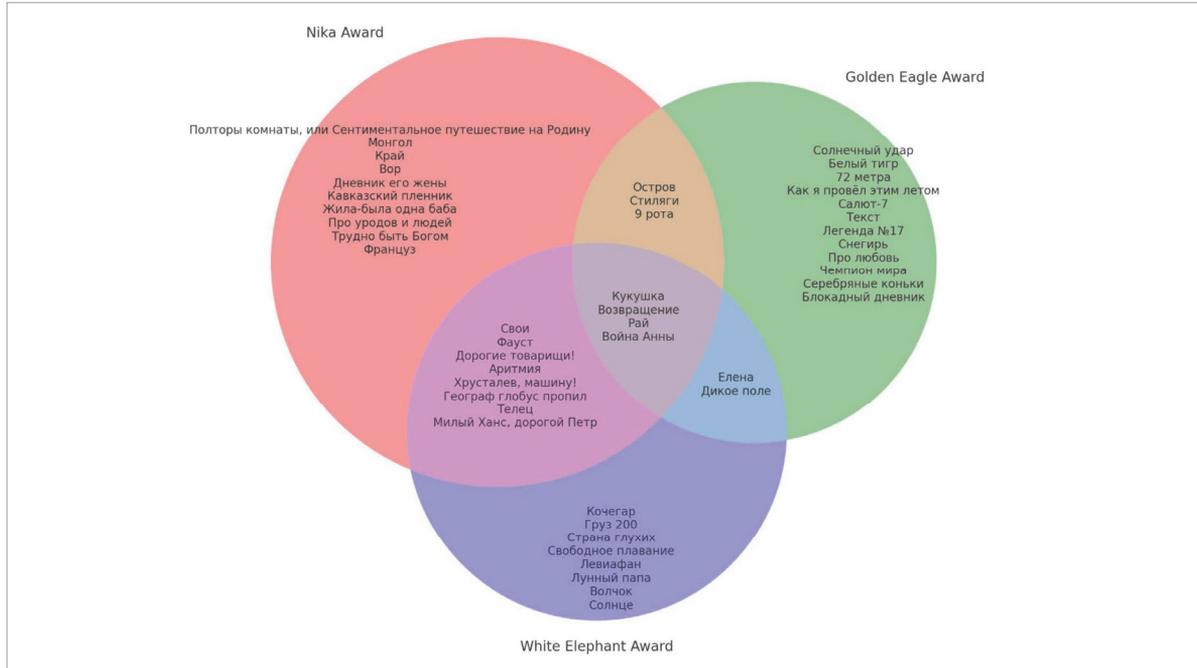
- 알렉산드르 로드난스키(제작자), 안드레이 즈바긴체프 및 칸테미르 발라고프 & 키라 코발렌코(감독), 안톤 돌린(전 Искусство кино 편집장) 등 망명
- 헐리웃 영화 배급사들 철수
  - 2022년 <체부라시카> 대흥행, <형제> 시리즈 재상영
  - 헐리웃 영화 해적판 상영 (2023년: <바비>, <오픈하이머> 등)
- 소쿠로프 <동화>, 긴즈부르크 <제국v>, 비르나세프의 <아이타> 등 상영 금지
- 다닐라 코즐롭스키 주연 tv드라마 상영 금지, 영화 <비행사> 감독 무산
- 포포그렙스키의 <가장 큰 달>과 록신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 감독 이름 없이 개봉
- 2024년 록신 <거장과 마르가리타> 스캔들: 솔로비요프 "반소비에트, 반러시아 영화"



## 러시아 영화상

니카 (1988-)	황금독수리 (2002-)	키노타브르 (1991-2021)	하얀코끼리상 (1998-)
소비에트 러시아 영화제작자 협회 창립 러시아 영화촬영 아카데미 주관  	니키타 미할코프가 2002년 설립 국립 영화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 주관  	1990년 마크 루딘슈테인의 “미구매 영화제”에서 시작 1991년 소치에서 개최 2005년 로드난스키 주최 2022년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무한 연기	1998-2005 황금양상 2021년까지 영화학자 및 비평가 길드 주관  





## 영화제 (202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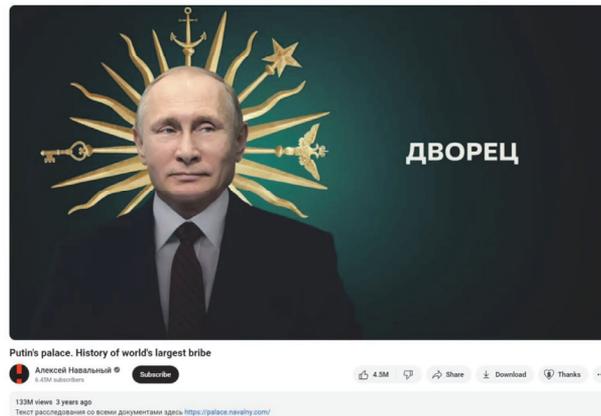
- 키노타브르 영화제 취소
- 황금독수리상
  - 2023년 1월 27일
    - Алексей Сидоров «Чемпион мира»
  - 2024년 1월 26일
    - Борис Хлебников «Снегирь»
- 니카 2022년, 2023년 취소
  - 2024년 6월 1일
    - Сергей Урсуляк «Праведник»

## 하얀코끼리상(Белый слон)

### 2021년 올해의 이벤트상 (Событие года)

나발니의 탐사 다큐멘터리  
<Putin's Palace>  
(2021년 1월 유튜브 업로드)에  
수상

<https://www.youtube.com/watch?v=ipAnwilMncl>



## 하얀코끼리상(Белый слон)

- 미할코프(황금독수리 주관) & 콘찰롭스키(니카 주관)의 비판  
하얀코끼리상 전문가 위원회와 조직이사회(영화 평론가 길드)의 분열
- 2021년 3월 14일 전문가 위원회 선언문 발표
  - Зара Абдуллаева, Любовь Аркус, Екатерина Барабаш, Юрий Богомолов, Виктория Белопольская, Юрий Гладильщиков, Алексей Гусев, Антон Долин, Марина Дроздова, Олег Зинцов, Александр Киселев, Александр Колбовский, Василий Корецкий, Сергей Лаврентьев, Лариса Малюкова, Виктор Матизен, Татьяна Муштакова, Борис Нелепо, Лилия Немченко, Наталья Нусинова, Леонид Павлючик, Андрей Плахов, Елена Плахова, Марина Порк, Дина Радбель, Михаил Ратгауз, Станислав Ф. Росточкий, Дмитрий Савельев, Дмитрий Салынский, Татьяна Сергеенко, Наталья Сирипля, Алена Солнцева, Василий Степанов, Елена Стишова, Диляра Тасбулатова, Елена Уварова, Светлана Хохрякова, Константин Шавловский, Павел Шведов, Андрей Шемякин, Ольга Шервуд, Вячеслав Шмыров, Давид Шнейдеров

## 하얀코끼리상(Белый слон)

- 2021년 4월 10일 사하로프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개최
- 2022년 10월 시상식 대신 25주년 수상작 재평가
  - 최고의 영화: 루쾅의 «Окраина», 로고지킨의 «Кукушка», 게르만의 «Хрусталеv, машину!»
  - 최악의 영화: 우치젤 «Матильда», 미할코프 «Сибирский цирюльник», 롱긴 «Дирижер»
- 2024년 1월 수상작 발표
  - 2022.12.1- 2023.11.30 사이 개봉한 총 24편의 장편 극영화가 수상 후보
  - 최우수상 소쿠로프의 «Сказка»
  - 감독상&남우주연상&여우조연상 « Пациент №1», 촬영상&남우조연상 «Снегирь», 각본상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 작품상 «Новый Берлин», 음악상&여우주연상 «Чувство Анны»

## 2024년 최우수작품상 후보

### 하얀코끼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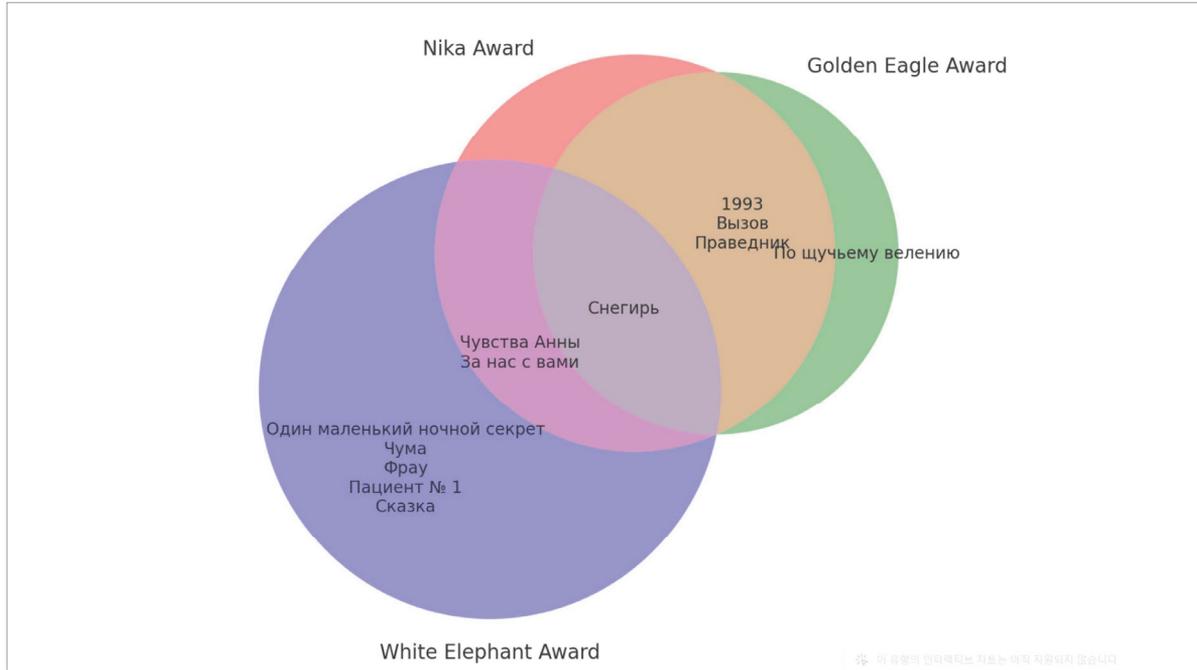
- Александр Сокуров «Сказка»
- Андрей Смирнов «За нас с вами»
- Наталия Мещанинова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
- Резо Гигинеишвили «Пациент № 1»
- Борис Хлебников «Снегирь»
- Любовь Мульменко «Фрау»
- Анна Меликян «Чувства Анны»
- Дмитрий Давыдов «Чума»

### 니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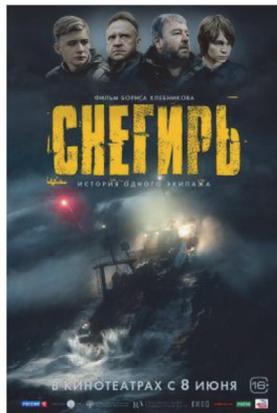
Антон Урсуляк «Праведник»  
Александр Велединский «1993»  
Андрей Смирнов «За нас с вами»  
Борис Хлебников «Снегирь»  
Клим Шипенько «Вызов»  
Анна Меликян «Чувства Анны»

### 황금독수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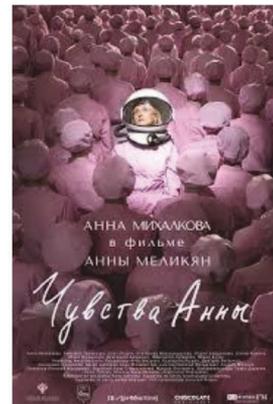
Борис Хлебников «Снегирь»  
Антон Урсуляк «Праведник»  
Александр Велединский «1993»  
Клим Шипенько «Вызов»  
Александр Войтинский «По щучьему велению»  
Анна Меликян «Чувства Анны» (여우주연상)



<멋쟁이새>



<안나의 감정>



## <멋쟁이새>와 황금독수리상

- 1969년 게오르기 블라디모프의 소설 “3분의 침묵”기반
- 세르게이 셸라노프의 STV 제작
- 감독 보리스 흘레브니코프
- 황금 독수리 최우수상, 편집상, 음향상, CG상; 니카 신인상; 하얀코끼리 촬영상, 남우조연상
  
- 테리베르카&부르만스크 현지 촬영
- 선박 내부 장면과 폭풍우 장면을 위해 대규모 세트 제작
  
- 구세대 vs 신세대
- “러시아 영혼에 대한 영화” –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에 대하여
- 배 위에서만 내러티브 진행 – 사회정치적 문맥에서 분리 가능





## <안나의 감정>

- 감독 안나 멜리키안
- 주연 안나 미할코바
- 첫번째 채널(Первый канал)의 간판 앵커 예카테리나 안드레예바 출연
- 보수적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호평
- 하얀코끼리 여우주연상, 음악상; 황금독수리 여우주연상
  
- 디스토피아 평행 세계 배경
- 전염병, 화성 식민지 개척, 군사주의 선전 언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대중 매체 등
- 상실, 이별, 사랑에 대한 이야기





## 2022-2023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여성 서사\*

-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을 중심으로 -

홍상우 (경상국립대)

### I. 서론

최근 러시아 영화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은 재능있는 여성 감독 및 여성 프로듀서의 등장이다. 이들이 제작하는 작품 상당수가 권위있는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선정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국내외 평단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주목되는 신인 러시아 영화감독들의 작품 중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 《안녕, 엄마》, 《방학》 등이 여성서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여성 서사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은 현실의 폭력과 위선에 맞서는 영화이면서도 인과관계에 근거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한정된 시공간이지만,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전개되는 이 영화의 서사는 보편성도 함께 획득하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나탈리아 메샤니노바는 현대 러시아 작가 예술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 중 한 사람이다. 메샤니노바 감독은 옥사나 비치코바, 보리스 흘레브니코프, 알렉세이 페도르첸코의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은 그녀의 세 번째 장편 영화이다. 첫 번째 작품인 《희망 공장》은 극중 인물의 잦은 욕설 사용으로 인해 개봉하지 못했다. 두 번째 작품인 《세상의 심장》은 2018년 키노타브르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은 메샤노바의 감독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미라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한다.

\* 본고는 발표문의 초고이다. 수정된 발표문은 학회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임을 밝혀둔다.

## II. 본론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의 시간적 배경은 12월 31일 아침에 주인공 미라가 눈을 뜬 순간부터 1월 1일 새벽까지이다. 주인공의 가족은 모스크바 외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 14세인 주인공 미라의 계부 안드레이는 그녀에게 값비싼 에어팟 프로 헤드폰을 선물로 준다. 하지만 미라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고통스러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초반부의 시각적 묘사는 새해 전야의 축제와도 같은 빛의 쇼트와 다음 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미라의 채 지우지 못한 검은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이 대조된다.(〈사진. 1〉, 〈사진. 2〉) 새해 전야의 축제와 흰 눈으로 덮여 있는 세상은 학대와 가정 폭력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영화에서 ‘밤의 작은 비밀’이 무엇인지 감독은 직접 묘사하지 않는다. 다만 영화 초반부에 은밀하게 미라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 계부의 행동에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미라의 계부의 캐릭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마디로 강간범이다. 그러나 그는 선량한 남편이자 아버지이기도 하다.(〈사진. 3〉)미라의 어머니는 남편의 행각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애써 모른채 한다. 이 상황은 미라가 엄마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하는 계부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단지 그가 죽어버리길 원할 뿐이다.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메사니노바 감독은 영화 초반부에 이러한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전달하고 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에서 미라에게 가해지는 계부 안드레이의 성폭행은 일상적인 폭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폭력을 은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해 전야에 티브이를 통해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아이러니하다.<sup>1)</sup>

계부가 주인공 미라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역겨운 것이지만, 계부는 그 행위를 조용히 일상적으

1) Антон Долин,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 — новая драма от сценариста «Аритмии» Натальи Мещаниновой На примере Нового года в одной московской семье режиссер рассказывает, как россияне привыкли к постоянному насилию.”, Meduza 2 февраля 2023. <https://meduza.io/feature/2023/02/01/odin-malenkiy-nochnoy-sekret-novaya-drama-ot-stsenarista-aritmii-natalii-meschaninovoy>

로 행한다. 그는 낮에는 친아버지처럼 다정하게 행동하고, 가족들을 돕는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새해 전야에 미라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계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구들과의 파티에 어렵게 부모의 허락을 얻어 참석한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리가 출신의 잘생긴 소년(〈사진. 4〉, 〈사진. 9〉)은 사실상 계부와 다를 바 없다. 미라는 그와 사랑에 빠지고(〈사진. 7〉), 리가로 함께 떠날 것을 약속하지만, 그가 그녀와의 성관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좌절한다. 가정 내에서 미라의 악몽은 가정을 벗어나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즉《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리가에서 온 소년이 계부를 반복한 것처럼, 공간 역시 반복된다.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친구들은 미라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리가에서 온 소년의 성폭행에 관심이 없다. 집에서 엄마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을 외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비롭고 선량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계부의 형상은 미라에게 접근하는 잘생긴 리가에서 온 소년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진. 4〉



〈사진. 5〉



〈사진. 6〉

영화 언어적으로는 겨울의 발코니, 흰 눈으로 덮인 땅, 어두운 입구, 답답한 대피소 등의 시각적 형상이 영화의 서사와 조화를 이룬다.<sup>3)</sup> 나탈리아 메샤니노바는 전작 《희망 공장》, 《세상의 심장》, 《우리 엄마의 펭귄》 등에서 이미 십 대에게 가해지는 가정 폭력을 고발한 바 있다. 14살 소녀가 겪어야 하는 치욕적인 폭행에 대해서 고백하는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에서 제기하는 문제 역시 한 어린 소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sup>4)</sup>

메샤니노바 감독은 이 영화에서 남성의 세계를 불, 뇌물, 폭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여성의 세계는 불친절한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미라에게 성폭행을 하는 계부 안드레이가 그녀에게 새해 전야에 선물로 준 아이팍은 뇌물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리가에서 온 소년이 미라를 불꽃놀이로 유도한 것은 그녀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욕망의 시각적 표현이다. 또한 계부는 미라에게 일상적인 성폭력을 행하고 있으며, 미라가 만난 소년들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여성

2) Сергей Сычев, “Все отметят, а я останусь: как смотреть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 *Известия*, 7 марта 2023. <https://iz.ru/1479808/sergei-sychev/vse-otmetiat-ia-ostanus-kak-smotret-odin-malenkii-nochnoi-sekret>

3) Вероника Хлебникова, “Утро первого —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 Натальи Мещаниновой”, *Сеанс*, 02 / 02 / 2023. <https://seance.ru/articles/my-little-nighttime-secret/>

4) 메샤니노바 감독은 티브이 시리즈 《앨리스는 기다릴 수 없다》에서도 역시 십대 소녀의 분노를 묘사하고 있다.

의 불친절은 미라의 엄마가 대표한다. 그녀는 미라가 계부에게 성폭행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기 때문이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미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에서 알 수 있다. 《밤중의 어떤 작은 비밀》에서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인 메사니노바는 캐릭터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sup>5)</sup>



〈사진. 7〉



〈사진. 8〉



〈사진. 9〉

이제 이 영화의 주요 쇼트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영화가 시작되면 외부의 빛이 실내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이 반복된다. 희미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부부가 잠들어 있다. 그곳에는 중년 부부가 잠들어 있다. 조명은 계속 깜빡이고, 남편이 몰래 일어난다. 부인은 눈을 감은 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메라는 그녀의 상태를 모호하게 처리한다. 남편이 부인 몰래 일어나서 찬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 후, 의붓딸의 방으로 들어간다. 남편은 잠자고 있는 미라를 깨워서 상자를 열어보라고 한다. 상자에는 아이팍이 들어있다. 이러한 초반부 쇼트는 사실상 계부 안드레이가 이것은 일종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돈으로 14살에 불과한 의붓딸의 성을 사는 것이다.

카메라는 미라의 무표정한 옆모습을 클로즈업한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남자는 침대로 돌아오고, 부인은 잠결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본다. 부인, 즉 미라의 엄마는 그녀의 계부인 남편 안드레이가 어디 갔다가 온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마도 남편의 행각을 알고 있는 듯하다. 부부 사이가 다정해 보이지만 카메라는 그들 사이에 어딘가 틈새가 있는 듯이 처리한다. 남자는 부인의 가슴을 만진다. 두 사람이 관계하려는 순간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리를 내면서 넘어진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즉 다정하게 보이는 이 부부의 관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즉 파열음이 있다는 것이다. 미라의 동생인 어린 베로니카가 보이고, 미라는 동생을 다정하게 대한다. 그러나 카메라는 불현 듯 이 순간 미라의 모습이 베로니카의 미래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듯하다. 카메라는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으로 인물과 공간을 들고 찍기로 관찰한다.

창문을 통해서 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인다.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물들어 있다. 미라가 자신의 방에서 베로니카를 안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계부가 들어와서 나가서 엄마를 도

5) Ксения Рождественская, “Жажда Мира.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ночной секрет»: новый 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талии Мещаниновой”. Коммермант 03.02.2023ю

우라고 말한다. 이때 카메라는 문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즉 계부 안드레이가 미라의 방문을 넘어섰을 때, 두 사람만이 있는 미라의 방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이다. 남편이 딸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부인은 애써 바라보지 않는다. 계부는 미라에게 고양이를 놔주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도우라고 말한다. 그는 정성스럽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다. 부인이 하려는 일도 자신이 하겠다고 하고, 미라에게 도우라고 한다. 부인은 딸인 미라와 함께 일하려 하지만, 남편은 미라에게 자신을 돕기 위해 남으라고 말한다. 부인은 당혹스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이처럼 영화의 서사는 일종의 ‘틈새’와 ‘외면하는 시선’의 서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라와 계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말없이 장식하는 장면이 롱테이크로 처리된다. 계부가 갑자기 미라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몸을 만진다. 미라는 반항하고, 멈추라고 한다. 엄마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들은 답한다. 엄마는 미라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계부 안드레이 역시 이제는 엄마를 도우라고 미라에게 말한다. 미라가 방을 나갈 때 부인은 의혹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미라는 엄마가 음식 만드는 것을 도우면서 계부의 눈치를 본다. 그녀는 엄마에게 새해 전야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한다. 엄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라는 여자 아이들만 모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미라가 엄마에게 계속 조르고 있는데, 갑자기 안드레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미라는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안드레이를 바라본다. 안드레이와 미라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다. 안드레이가 “너는 14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미라는 분노한다. 안드레이의 말은 역겹기 그지없다. 이때 쇼트 구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드레이는 아내에게도 미라의 외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한다. 아내 역시 새해 전야는 가족과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 사이를 엄마는 통과해 지나간다. 이것은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 묘사이다.

안드레이는 14세라는 나이가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일탈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자신은 미성년자인 미라에게 성폭행을 일삼으면서, 이때는 그녀가 미성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자상하고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 행세를 한다. 미라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분노한 눈빛이 강조된다. 미라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온다. 엄마는 아빠 말이 맞으며, 너는 어리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라에겐 집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엄마는 가족들이 함께 불꽃놀이를 구경한 후에 혹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엄마는 아이팟을 발견하고 어디서 났냐고 묻는다. 미라는 안드레이가 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안드레이에게 그런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말도 덧붙인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러한 의심스런 정황들이 누적되고, 카메라는 엄마가 아마도 안드레이가 미라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엄마는 선물을 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애써 침착하게 말한다. 이때 화면구도는 이상하다. 엄마는 화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미라는 우측 가장자리에 있다. 그녀의 뒷 모습만 보일 뿐이다. 좌측에는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보인다.

안드레이의 친딸들이 미라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선물을 교환한다. 엄마는 미라에게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면서 뺨에 키스한다. 미라는 옆에서 어린 베로니카를 안고 있는 안드레이를 경멸의 눈길로 바라본다. 그녀는 안드레이와 베로니카를 유심히 바라본다. 베라의 미래가 바로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드레이의 친딸인 장녀는 임신한 상태이다. 카메라는 파노라마처럼 아파트에 모인 미라와 안드레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본다. 티브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연설이 흘러나온다. 미라는 종이에 소원을 적는데, 엄마에게 보지 말라고 한다. 그녀가 종이에 적은 소원은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이다. 미라의 분노의 눈빛과 태연하게 먹고 마시는 안드레이가 번갈아 클로즈업된다. 미라는 이어서 그가 “뉘져 죽기를 바란다”고 쓴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새해 소원이다.

제야의 종소리가 들린다. 메모지를 접는 미라의 손이 클로즈업된다. 이후 카메라는 미라의 분노한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미라는 메모의 내용을 가족들이 모르게 하도록 조심한다. 카메라는 미라의 상반신을 클로즈업한다. 모두가 소원을 적은 쪽지를 태우고, 일어서서 새해를 축하한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그러나 미라는 여전히 앉아 있다. 다른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한다. 안드레이가 친딸들을 다정하게 포옹한다. 그리고 아내를 포옹하는데, 이때 카메라는 샴페인을 따르는 미라를 주목한다. 미라는 자고 싶다고 말하면서 일어선다. 식구들은 어색해한다.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다시 나오라고 설득하지만, 미라는 손님들은 내 손님이 아니며, 안드레이의 선물도 되돌려주겠다고 반항한다. 이때 안드레이가 방에 들어와서, 미라의 외출을 허락한다. 어두운 방과 밝은 거실 사이의 문턱에서 있는 안드레이의 모습이 강조된다. 그는 미라가 가고자 하는 모임에 여자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믿겠다고 말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진행 중이다. 안드레이는 미라에게 한 시간마다 전화하라고 말한다.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미라와 그녀의 친구 레라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계단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밖에서는 남자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불꽃놀이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소녀는 창밖의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다. 화장과 불꽃, 거리의 흰 눈. 안드레이의 성폭행, 다음 날 흥하게 변진 화장, 계부의 또 다른 모습인 리가에서 온 소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 소녀들이 불꽃놀이를 하는 거리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새해를 축하하는 눈 덮인 거리에서 리가에서 온 소년 단니를 만난다. 미라의 친구 이름은 레라. 미라의 성은 골루브, 즉 그녀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의 비둘기’이다. 또 다른 소년 이고리가 등장하고, 미라는 이제 집으로 가려 한다. 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모들이 금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는 틈새는 미라와 안드레이 사이의 틈새, 미라와 엄마의 틈새, 엄마와 안드레이의 틈새, 미라와 베라의 틈새, 안드레이와 베라의 틈새, 안드레이와 친딸들 간의 틈새, 안드레이의 친딸들과 미라 가족과의 틈새, 새해 전야의 축제 분위기와 다음날 현실의 틈새, 친아버지로서의 안드레이와 계부로서의 안드레이의 틈새 등이다.

반복 혹은 거울의 모티프는 안드레이-리가에서 온 소년, 미라-베라, 미라-엄마-베라, 미라와 베로니카-안드레이의 친딸들, 미라-레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미라가 외출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엄마의 태도는 아이러니하다. 그녀는 정작 집에서 미라가 안드레이에게 고통받는 것은 외면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은 금지하려 한다.

영화 후반부에서 계부가 미라의 바지를 벗기고 겁탈하는 장면에 대한 시각적 묘사는 탁월하다. 이때 미라는 큰 소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꾀다. 이 쇼트는 미라의 공통에 대한 시각적 강조이다. 계부가 관계가 끝난 후 가파른 호흡을 쉬면서 이제 자라고 말하고 일어선다. 이후 누워있는 미라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바라본다. 이미 새벽녘이고, 카메라는 여운이 있는 시선을 던진다. 이것은 사건 종료 후 미라가 느낄 수밖에 없는 황폐한 심경에 대한 카메라의 코멘트이다.

